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사학위논문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A Study on the feature film <Eomeong> as
a Cinematic Representation of the Women of
Jeju Island in Korea

고 훈

한양대학교 대학원

2020년 2월

박사학위논문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으로서의
장편영화 <어멍> 연구

A Study on the feature film <Eomeong> as
a Cinematic Representation of the Women of
Jeju Island in Korea

지도교수 이 상 인

이 논문을 연극영화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20년 2월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학과

고 훈

이 논문을 고 훈의 박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2월

심사위원장 : 길 중 철



심사위원 : 이 상 인



심사위원 : 조 수 진



심사위원 : 민 용 근



심사위원 : 서 원 태



한양대학교 대학원

차 례

국문요지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3
제2장. 제주 여성에 대한 고찰	5
제1절. 제주 설화 속 제주 여성	5
1. 자립성과 생활력	6
2. 적극적인 자아실현	8
3. 진취성과 적응력	11
제2절. 제주 여성의 삶	13
1. 문헌에 기록된 제주 여성	13
2. 가정 경제 활동과 제주 여성	17
3. 가부장제와 제주 여성	19
제3장. 한국 영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	22
제1절. 계춘할망	23
1. 제주적인 장면들	24
(1) 해녀	24
(2) 주거 공간	26
(3) 잠수 곳	28
(4) 무덤, 오름 그리고 자연 풍경들	29
2. 제주도 문화의 영화적 재현과 그 한계	31
제2절. 인어전설	33
1. 제주 감독	35

2. 제주적인 정서들	36
(1) 제주 방언	36
(2) 제주 지역 문화 반영	37
제4장.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 : 장편영화 <어멍> 연출 분석	43
제1절. 작품 개요	43
1. 작품 주요 정보	43
2. 기획 의도	44
3. 시놉시스	45
4. 캐릭터	46
5. 연출의도	48
제2절. 제주 여성의 상징적 재현으로서의 ‘숙자’	49
1. 제주 여성 캐릭터 ‘숙자’	49
(1) 제주 배우와 제주어	50
(2) 제주여성의 구체적 형상화로서의 ‘숙자’	51
2. 영화 <어멍>의 가족 서사와 제주 여성 ‘숙자’	54
(1) 영화 <어멍>의 가족 서사	54
(2) 자립적이고 진취적이며 생활력 강한 제주 어머니 ‘숙자’	58
(3)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하는 제주 여성 ‘숙자’	60
제3절. 영화 <어멍>의 형식미학 분석	63
1. 관찰자적 시선과 거리두기	63
2. 사실적 시간과 공간의 재현으로서의 롱 테이크	68
3. 사운드와 이미지의 대위법적 사용	74
(1) 희극적 사운드	77
(2) 트로트 음악	79
(3) 아이들의 웃음소리	81
제5장. 결론	84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리	84

제2절. 제언	88
참고문헌	91
부록 : <어멍> 시나리오	95
영문요지(ABSTRACT)	158



표 차 례

표 1.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	18
표 2. 영화 <계춘할망>의 오프닝 시퀀스 주요 쇼트들	25
표 3. 영화 <계춘할망>의 주거 공간 쇼트들	27
표 4. 영화 <계춘할망>에서 잠수굿 시퀀스의 쇼트들	28
표 5. 영화<계춘할망>에서 제주의 풍경 쇼트들	30
표 6. 오명 감독의 작품들	35
표 7. 영화 <인어전설>에서 표현된 여성과 남성의 모습 비교	38
표 8. 영화 <인어전설>에서 제주 무속 문화가 표현 된 쇼트들	41
표 9. 영화 <어명> 작품 주요 정보	43
표 10. 영화 <어명>의 주요 캐릭터 및 배우	47
표 11. 영화 <어명>에서 ‘숙자’의 외형적 캐릭터 구축 모습들	52
표 12. 영화 <어명>에 나타난 음식과 식사 장면 쇼트들	55
표 13. 영화 <어명>에서 숙자의 꿈을 암시하는 쇼트들	61
표 14. 영화 <어명>에서 숙자가 마을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부르는 쇼트 ..	62
표 15. 영화 <어명>에서 숙자의 감정 쇼트들	64
표 16. 영화 <어명>에서 롱 테이크 방식으로 촬영 된 숙자의 쇼트들	68
표 17.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향수>의 롱 테이크 시퀀스 쇼트	73
표 18. 영화 <어명>에 등장하는 죽음의 이미지들	75
표 19. 영화 <어명>에서 어두운 이미지와 희극적 사운드의 충돌 시퀀스들	78
표 20. 영화 <어명>에서 사용된 트로트 음악 사운드 쇼트들	80
표 21. 영화 <어명>에서 사용된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퀀스들	81

그림 차례

<그림 1> 영화 <계춘할망> 포스터	24
<그림 2> 영화 <인어전설> 포스터	34
<그림 3> 영화 <어멍> 포스터	44



국문요지

본 논문은 제주도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장편 영화 <어멍>에서 ‘제주 여성’으로서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도는 특이한 풍광만큼이나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보편적인 설화의 구성과는 달리 제주도 설화속의 주인공은 여성인 경우가 많다. 그중 대표적인 여성 신화는 ‘설문대 할망’인데, 이 여신은 기골이 장대하며 제주도를 만든 여신으로 등장하는 독특한 사례의 신화다. ‘자칭비’는 사건의 중심에서 남성인 문 도령을 리드해가며 자아를 실현시켜 나간다. 설화에 등장하는 ‘백주또’의 모습 또한 남편 앞에서도 당당하고, 남편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영위하는 여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립적이고, 진취적이며 생활력 강한 설화 속 제주 여성들의 모습은 현실을 사는 제주 여성의 특징을 잘 드러내주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영화 <어멍>에서 표현하고자하는 제주 여성상의 모습과 비슷하다.

제주도라는 지리적·문화적 독특한 위치는 한국 여성 중에서도 제주 여성이라는 독특한 여성상을 구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문헌에 기록된 제주 여성의 모습은 남성과 동등하게 지역방위를 책임진다거나 제주 주민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휼을 하는 김만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직 여성 집단인 해녀가 항일 투쟁을 했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주 여성은 생존을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제주도라는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따로 없었다. 누구나 살아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면 경제 활동을 해야 했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제주 여성을 가정 경제를 책임지는 한 축으로 만들었다. 제주 여성이 가정과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도 높아지게 되었다. 가정 경제 활동 주체자로서 제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럼으로써 제주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상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한국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자체가 드물지만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더욱 드물다. 그 중에서 사례를 연구할 대상은 창 감독의 <계춘할망>과 오멸 감독의 <인어전설>이다.

<계춘할망>은 제주의 전통 가옥과 돛 통시라고 불리는 제주 전통의 화장실, 올레 길, 제주 전통 무덤 방식, 잠수 곳 장면, 해녀 물질, 오름 장면 등 제주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주 여성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방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주 여성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사실적인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인어전설>에서 오멸 감독은 전작에서도 제주의 사실적인 삶을 유쾌하게 구현해 낸 감독이다. 그것은 감독이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영화 또한 제주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제주 방언의 사용과 한량한 남성들의 모습, 생활력 강한 제주 여성의 모습들을 묘사하거나 제주 무속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제주의 보편적인 문화들을 영화적으로 담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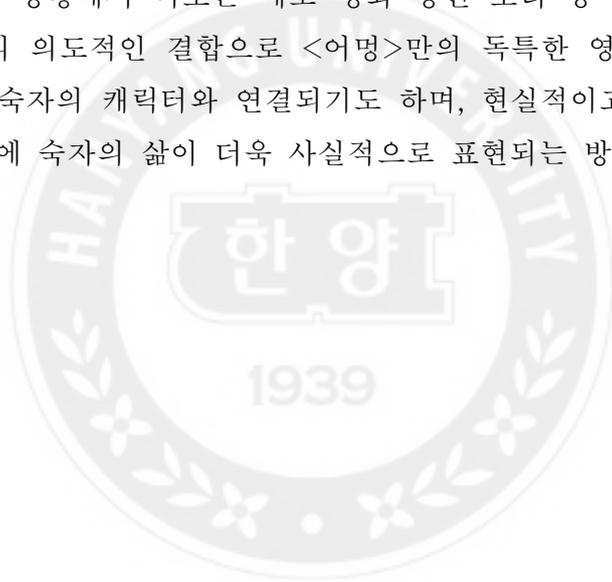
독립 장편 영화 <어멍>은 본 연구자의 작품으로 2017년 제주도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했다. 본 연구자는 <어멍>이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주체적·능동적인 제주 여성상으로서의 숙자는 <어멍>의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한량 남편과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서, 남편이 죽었지만 역세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으로서의 모습 등이 숙자의 캐릭터를 형성한다. 또한 항상 밝은 옷을 입고 물질할 때도 화장을 하는 등 숙자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제주 여성다운 모습을 구현한다.

사실적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카메라는 관조적 시선을 유지한다. 이것은 거리두기의 기법으로써 격한 감정이나 갈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클로즈업의 사용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관객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의 체험을 제공한다. 숙자의 이웃으로서

숙자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은 현실적·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 영화의 사실성을 확보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어멍>의 많은 시퀀스들이 롱 테이크로 촬영 되었다. 롱 테이크는 컷을 구분하는 방식에 비해 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는 거리두기 방식과 함께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제주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어멍>은 비극적인 내러티브 속에서도 희극적인 사운드를 접목함으로써 독특한 영화적 톤을 만들어낸다. 숙자와 율의 갈등 장면에서의 트로트 노래의 활용, 죽음을 이야기 하는 심각한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거운 내적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예로 영화 장면 소리 등 내러티브에 어긋난 이질적인 사운드의 의도적인 결합으로 <어멍>만의 독특한 영화 톤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운드는 숙자의 캐릭터와 연결되기도 하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숙자의 삶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되는 방식으로 활용 된다.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예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섬이었다. 한반도 남단에 위치한 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인데다가 교통수단도 한정적이었으므로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섬에 간혀 지낼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더욱 심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주 여성만큼 역사적으로 공간에 구속 받아온 여성들도 없었다. 조선 인조 7년(1692)부터 제주 여성은 출륙금지를 당하여 이후 약 250여 년 동안 섬에 갇혀 살아야했다. 계속 되는 흉년과 과중한 진상, 부역으로 인하여 제주인들이 육지로 속속 이주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자 취해진 조치였다. 어머니, 아내, 딸 등 여자들을 데리고 가지 못하게 인질로 삼았던 것이다. 출륙금지가 시행된 250여 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제주 섬 밖으로 나갈 수 있었던 여성은 오직 김만덕(金萬德) 한 사람뿐이었다. 정조 18년(1794), 전 재산을 던져 백성을 구휼한 포상으로 왕명에 의해 그녀의 소원인 ‘육지 구경’이 이루어졌던 것이다.¹⁾

본토(本土)²⁾에서 멀리 떨어져 고립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과 사회의 격변에 따른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제주도는 인구통계상 남성이 여성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자연히 남아선호사상이 한반도의 그 어느 지역보다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육지와는 달리 남성이 여성을 노골적으로 ‘이등성(二等性)’으로 취급하거나 생활권의 예외적인 존재, 혹은 보조자로 취급하지는 않았던 듯하다. 오히려 대등한 생활권자로서 삶을 영위하고 공유하는 파트너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측면도 있다.³⁾

1) 참조. 김순이,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pp. 13-14.

2) 제주 사람들은 한반도를 통상 ‘육지(陸地)’라고 부른다. 이에서 기인되어 제주와 본토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육지부(陸地部)’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본토’와 ‘육지’를 혼용한다.

조선조 이래로 본토의 여성들이 태어날 때부터 오직 집안일에만 종사하도록 종용되었다면, 제주의 여성은 그와 정반대로 생활경제에 기여하는 존재,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한다면 ‘일꾼’이라는 점에 그 비중을 두었던 것이다. 제주도 속담에, ‘딸을 낳으며 곧 밥 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이 속담이 말하고자하는 의미는 ‘딸은 일을 하여 집안의 부(富)를 축적하므로 (딸을 낳는 게) 좋아서 (제주에서는 귀한) 쌀밥을 하여 잔치를 벌인다.’는 뜻이다. 이와 쌍을 이루는 속담이 또 하나 더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 여성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쇠(牛)로도 못 낳아 여자로 낳았다’고 자조하였다. 전통적으로 제주 여성은 정말 소(牛)보다도 더 강도 높게 일을 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제주 여성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도 이와 정반대로 그토록 강도 높은 일을 해내는 스스로를 매우 대견하게 여기는 면도 없지 않았다. 즉, ‘제주 예즈로 태어나시민 혼 일가는 동동 맥여살려야주(제주 여자로 태어났으면 한 일가는 철저히 책임지고 의식주를 책임질 수 있어야한다.)’라는 격언이 있다. 이를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능력 있는 제주 여성’,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의 자부심을 잘 나타낸 말임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⁴⁾

장편 영화 <어멍>은 제주도 해녀인 ‘엄마’와 제주도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있는 ‘아들’의 이야기다. 이 영화의 스토리는 본 연구자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주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자연스럽게 반영하는 ‘제주 지역 영화’의 틀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영화 <어멍>의 핵심 주제는 ‘해녀’이자 ‘엄마’이며 ‘여성’인 주인공의 삶을 영화적 공간 안에서 재현함으로써 ‘제주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성찰을 시도하는 것이다.

제주도 여성들의 삶은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성상이 제시하는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히 해녀로 대표되는 제주 여성의 강인한 생존력은 억척스럽다고 할

3) 참조. 한림화, 「역사를 통해서 본 제주여성」,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등 공편, 2004, pp. 73-74.

4) 참조. 위의 글, pp.73-74.

만큼 적극적인 여성의 생활력과 삶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에 본 연구는 장편 영화 <어멍>에서 재현되는,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여성의 삶과 죽음을 통해 제주의 여성상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제주도가 가진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어멍>에서 재현하는 ‘제주 여성’으로서 살아온 한 여성의 삶을 바라보고, 또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연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일차적 목적이다.

나아가 본 연구가 제주 지역 이외에도 우리나라 각 지역의 특색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영화 기획, 연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선례 연구로서의 유의미한 사례를 남기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제2절. 연구방법 및 내용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위하여 우선 제주 여성상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이 제주 여성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공간적인 개념과 더불어 문화적 개념으로 제주 여성상을 특정 짓는 고찰을 할 필요성이 있다.

2장에서는 각종 문헌과 연구 자료를 통해 제주 여성의 특징과 생활양식, 문화, 언어 등을 연구할 것이다. 특히 제주 설화 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모습에서 현실을 살고 있는 제주 여성의 특징과 성향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제주 지역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여성 중심의 설화를 토대로 하여 설화 속에 나타난 제주 여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그러한 제주 여성의 특징이 영화 <어멍>에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3장에서는 2장에서의 연구를 토대로 제주 여성을 그린 한국 영화를 연구할 것이다. 한국 영화중에 제주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가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개봉한 영화 중 제주 여성을 그린 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이 영화들이 제주 여성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했는지 연구할 것이다.

4장에서는 본 연구자의 장편 영화 <어멍>의 연출 분석연구를 할 것이다. 영화 <어멍>이 제주 여성상을 재현하는 방식에 있어 형식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거장 감독들이 여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 형식적으로 표현한 방식을 연구하며 영화 <어멍>에도 그러한 표현 방식이 어떤 방향으로 적용되었는지를 연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편 영화 <어멍>이 제주 로컬 영화로서 제주 여성의 삶과 노동, 언어 등 제주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영상 언어로 잘 표현되었는지 검토하고 이러한 영화의 표현 방식과 연출 방식이 타 지역 로컬 영화 제작 및 연출에 적용 될 수 있는지 그 대안을 도출 하고자한다.



제2장. 제주 여성에 대한 고찰

제1절. 제주 설화 속 제주 여성

제주도는 특이한 풍광만큼이나 국내 어느 지역보다 풍부하게 설화를 간직하고 있다. 특히 1만 8천 신(神)들의 내력을 담은 제주의 여러 설화 가운데는 <천지 왕 본풀이>라고 하는 천지개벽 신화까지도 존재한다. 개벽신화를 간직한 지역은 제주도와 한반도 북부지방 일부를 제외하곤 국내에선 사실상 거의 없다. 세계적으로도 흔한 편은 아니다.⁵⁾

제주 설화는 개인의 감성이나 본능을 다루고 있기보다는 공동체의 질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갈등하는 모습들이나 개인과 사회의 긴장 관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설화의 중심적인 이야기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제주 설화는 삶의 제반 조건에서 만들어낸 구조와 일관성이라는 점에서 볼 때 무척 가치가 있다. 현실과 유리된 것으로써 설화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견고한 현실을 비집고 그 속에 자리 잡은 것이다.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설화 속의 행태나 캐릭터들은 충분히 사회적 속성을 표현하고 또 대표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 속에 등장하는 어떠한 여성이 제주도 여성을 대표하는 여성상인지 말하기는 매우 어렵다. 특정한 여성 인물이 제주도 여성을 대표할 만한 속성을 두루 지니고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 여성을 대표할 만한 속성을 각자 조금씩 나누어 가지고 있을 뿐이다.⁷⁾

5) 참조.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p. 40.

6) 참조.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 아기 백주또-제주신화 그리고 여성』, 도서출판 각, 2002, p. 24.

7) 참조. 강정식, 「제주설화 속의 국제여성상」,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제주국제협의회 등 공편, 2004, pp. 40-41.

1. 자립성과 생활력

강남 천자국에서 솟아난 여신 백주또와 제주도 알송당(下松堂)에서 솟아난 산신(山神) 소천국은 부부가 된다. 아들 열여덟, 딸 스물여덟을 낳고 산다. 백주또는 남편에게 농사를 지어 자식들을 먹여 살리자고 제안한다. 사냥으로 생계를 잇던 소천국은 백주또의 말을 듣고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소천국의 식성이 대단하여 백주또는 점심으로 밥 아홉 동이, 국 아홉 동이를 준비해 가는데 지나가던 중이 다 먹어버린다. 배가 고프는 소천국은 밭을 갈던 소를 잡아먹고도 배가 차지 않아 이웃집 암소까지 잡아먹어 버린다.

백주또는 농사 짓는 자기 집 소를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소까지 잡아먹는 것은 소도둑놈이라 하여 하늘과 땅이 갈라서듯 살림을 분산하여 다른 살림을 산다.

복중에 있던 아들이 태어나 일곱 살이 되었을 때 백주또는 소천국에게 아들을 데려다 준다. 아들이 아버지 수염을 잡아당기는 등 무례하게 굴자 소천국은 아들을 무석쇠함에 담아 바다에 띄워 버린다.

무석쇠함이 용왕국 산호수 가지에 걸려 용왕국에 들어가 용왕국 막내딸과 결혼을 하나 식성이 하도 과하여 쫓겨난다. 아들(괘네기또)과 용왕국 막내딸은 강남천자국의 난리를 평정하고 제주도로 돌아와 김녕당에 좌정하고 아버지 소천국은 알송당(下松堂)에 좌정하고 어머니 백주또는 웃송당(上松堂)에 좌정한다. 나머지 자식들은 사방으로 가지를 뻗어 마을의 당신이 되었다.⁸⁾

위의 설화는 <송당 본풀이> 중 백주또의 이야기다. 이 설화에서 보듯이 설화 속 여성은 가정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실행할 줄 안다.

백주또는 소천국과 별거하고도 많은 자식을 길러낸다. 별거하기 전에는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소천국에게 농사를 지으라고 하였지만, 굳이 자식

8) 이재숙, 「제주 당신본풀이 백주또 신화의 공동창작 연극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pp. 33-34.

때문에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소죽이 못> 전설의 과부는 일꾼에게 밥이 일한다고 하면서 점심밥을 차려주었다. 그러나 일꾼이 밥을 갈지 않고 버티자 스스로 밥을 갈아낸다. 남성이 아니라도 밥갈이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신화시대의 힘은 영웅의 상징이었지만 실생활에서 힘이란 단지 노동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수단일 뿐이다. 노동은 힘이 아니라 근면함을 통해서 그 성과를 얻는다.⁹⁾

설화에서도 나타나듯이 백주또는 그 많은 자녀들을 혼자 묵묵히 키워내면서 힘들어하지도 않고 수난과 희생을 하소연하지 않는다. 아들, 딸이 성장하고 분가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경우도 없다. 자녀들의 결혼과 직업 선택에 대한 것은 그들 자신의 몫이다. 백주또는 모성적이면서도 자립적이고 생활력 강한 어머니를 표상한다.¹⁰⁾

백주또 형 여성상은 사려 깊으며 자존심이 강하고 자기표현에 인색하다. 그녀는 마치 아버지 같은 어머니다. 자식들에 대한 책임감이 지나칠 정도로 강하며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지만 자기 자식만 최고라고 여기거나 호도라는 보상을 원하지도 않는다. 남편에게 의존하지 않으며 늙어서도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추구하며 자식의 간섭을 바라지도 않는다.¹¹⁾

실제로 제주도의 주거 문화 중에 ‘안거리’, ‘밖거리’ 문화라는 것이 있다. 안채와 바깥채로 구분되는 집에서 부모가 나이가 들거나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는 안거리를 자식에게 내주고 밖거리로 들어간다. 한 집에 살고 있지만 부모와 자식 내외는 서로의 생활을 공유하지 않는다. 각자 독립된 개체로서 밥도 따로 해먹고 일도 따로 한다. 물론 밭일이나 제사 같은 집안 공동의 행사는 같이 하지만, 며느리가 때가 되면 시부모의 밥을 차려 주지도 않을뿐더러

9) 참조. 강정식, 앞의 글, p. 35.

10) 참조.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60.

11) 참조. 위의 글, p 63.

시부모 또한 며느리가 밥을 차려주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은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남편을 잃은 어머니나 아내를 잃은 아버지 또한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묵묵히 독립된 개체로서 생활을 한다. 서로에게 의존하거나 서로를 억압 간섭하지 않는, ‘따로 또 같이’의 생활체계는 노인들의 소외감이나 자녀들이 가지는 부모에 대한 압박감을 줄이고 고부간의 갈등을 줄여주었다.¹²⁾

2. 적극적인 자아실현

제주 설화에서는 여성성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개성을 발현하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여성상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삼공 본풀이>의 가문 장아기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 부모로부터 쫓겨난다. <금악 본향당본풀이>의 정좌수따님은 자신을 겁탈하려는 최지국의 아들을 완력으로 제압한다. 그러나 그런 뒤에는 오히려 스스로 그를 남편으로 맞아들인다. 정좌수따님은 최지국 아들은 사랑 하지만 그의 구애방식은 거부한 셈이다. 남성이 자랑으로 삼는 힘을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혔듯이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지국 아들에 대한 사랑을 바꾸지 않는다.¹³⁾

옛날 김진국 대감과 조진국 부인이 부를 누렸으나 이들에게는 오십이 되어도 자식이 없어 항상 탄식을 하며 지냈다. 어느 날 동개남 상저질 대사가 권제 삼문을 받으러 와서 절에 시주를 하고 백일 불공을 드리면 자식을 볼 것이라고 했다. 부부는 백일을 정성껏 불공을 드렸으나 시주가 한 근이 부족한 아 혼아홉 근이라 아들이 아닌 어여쁜 딸을 얻게 되었다.

부부는 자칭하여 얻은 자식이라 하여 이름을 ‘자칭비’라 지었다. 십 오세가

12) 참조. 위의 글, p. 64.

13) 참조. 김정숙, 앞의 책, pp. 36-38.

된 자청비는 주천 강 연못에 빨래를 하러 갔다가 거무 선생에게 공부하러 하늘에서 내려온 옥황 문 곡성의 아들 문 도령을 만나게 된다. 문 도령에게 한 눈에 반한 자청비는 남장을 하고 문 도령을 따라 글공부를 하러간다.

두 사람은 서당에서 같이 기거하며 글공부를 하는데, 문 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일지 모른다고 의심을 한다. 문 도령은 자청비가 여자임을 밝혀내려고 오줌 멀리 싸기 내기를 제안하지만 자청비의 기지로 모면한다.

문 도령은 서수 왕 딸에게 장가를 들라는 아버지 문성왕의 편지를 받고 떠나려하자 자청비는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 문 도령을 원망하며 자신이 여자임을 알리는 글을 버들잎에 써서 띄워 보낸다. 문 도령은 자청비의 집을 찾아 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 술 석 잔을 나눠 마시고, 문 도령은 박 씨 한 알과 열레빗 반쪽씩 나눠 갖고 노각성 자부 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나 심은 박 씨에서 박이 열려도 문 도령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느 날, 하인 정수남이에게 일을 시켰더니 소 아홉 마리, 말 아홉 마리를 다 잡아먹고 문 도령을 구하다가 그리하였다고 거짓말을 한다. 문 도령을 그리워하던 자청비는 문 도령을 만나기 위해 정수남이와 함께 굴미굴 산으로 간다.

정수남이가 자청비를 겁탈하려고 하자 자청비는 무릎을 베어 누우라며 달래어 그가 잠들자 청미래 덩쿨을 그의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로 찢러 죽여 버린다. 자청비가 집으로 돌아와 정수남이를 죽인 사실을 부모에게 고하자 부모는 화를 내며 자청비에게 종의 일을 시킨다. 일이 너무 고되어 괴로웠던 자청비는 정수남이를 살리기 위해 집을 나선다.

남장을 하고 집을 나선 자청비는 서천꽃밭¹⁴⁾으로 가서 꽃밭을 망치는 봉새를 유인하여 잡고 그 공로로 꽃감관 황세곤간의 막내사위가 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에서 살 오를 꽃, 뼈 오를 꽃, 환생 꽃을 구한 후 과거를 보러 간다고 핑계를 대고는 그곳을 빠져나온다. 자청비는 세 가지 꽃을 가지고 굴로 가서 정수남이를 살려내고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집으로 돌아온 자청비에게 부모는 계집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였다 살렸다한다며 크게 꾸짖고 다시 내쫓는다. 집을 나와 떠돌던 자청비는 주모 땅에서 공단을 짜는 주모 할망을 만나게 되고 자청비의 공단 짜는 솜씨를 보고 그녀를 수양딸로 삼는다. 주모 할망은 문 도령이 서수왕의 딸에게 장가

14) 서천꽃밭은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꽃들이 있는 장소.

갈 때 입을 옷을 만들고 있었고, 자청비는 자신의 이름을 비단에 짜 넣는다.

주모 할망이 그 비단을 문 도령에게 가지고 올라가자 이를 알아본 문 도령이 이튿날 자청비를 찾아온다. 자청비가 문 도령에게 손가락을 내밀어보게 하고는 바늘로 찌르자 화가 난 문 도령은 하늘로 올라가 버린다. 주모 할망은 자청비가 조신하지 못하다며 내쫓아 버린다. 쫓겨난 자청비는 머리를 깎고 중이 된다.

자청비를 그리워하던 문 도령은 자청비를 다시 만나게 되고 부모에게 그녀와 결혼하겠다고 말한다. 문 도령의 어머니는 자청비에게 며느리가 될 수 있는지 과제를 내린다.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제들을 통과한 자청비는 문 도령과 결혼을 하게 된다.

행복하게 살던 두 사람은 어느 날 외눈 할망이 주는 술잔을 받아 마시고 문 도령은 죽고 자청비는 어렵게 살아난다. 자청비는 서천꽃밭으로 가서 환생 꽃을 가지고 와 문 도령을 살려낸다.

이후 자청비와 문 도령은 인간계로 오곡 씨를 가지고 내려와 농사의 신이 되는데 문 도령은 상세경, 자청비는 중세경으로 좌정된다.¹⁵⁾

위의 자청비 설화는 ‘자청비’라는 한 여성이 농경신인 ‘세경신’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이야기 하는 서사무가이다. 자청비는 제주도 사람들이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섬기기 시작한 농경·오곡의 여신으로 ‘세경 할망’이라고 부른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간 자립적인 여신¹⁶⁾이다.

자청비는 사건의 중심에서 남성인 문 도령을 리드해가며 자신의 의도와 욕망을 실현시켜 나간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제주도 여신들 중에서도 돋보이는 존재일 뿐 아니라 우리 고전문학 전체를 통틀어도 보기 드물게 역동적인 여성 캐릭터이다.¹⁷⁾

제주도 신화를 연구한 김정숙은 사랑하는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청비를 페미니스트로 규정하고, 또한 거침없고 개방적이며 자유로운

15) 김은정,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pp. 20-21.

16) 참조. 위의 글, pp. 24-29.

17) 참조. 위의 글, pp. 24-29.

제주도 여성의 원형이라고 보고 있다. 자청비 신화는 내외법 등 유교적 질서가 제주도에서는 덜하였기¹⁸⁾ 때문에 출현할 수 있었다고 본다.

우리는 제주도의 많은 여성들에게서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를 만날 수 있다. 이 여성들은 남성(남편)이 없어도 스스로 완전하다. 그녀는 남성의 동의나 협조를 전제로 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이해에 따라 일한다. 남성들보다 더 용감하게 쟁기로 받을 같고, 마치 저승과도 같이 까마득한 바다로 자맥질하면서 바당 받을 개척해 내었던 도전적인 제주의 잠수들...(김정숙 2002, 116).¹⁹⁾

자청비와 가문장아기 등의 설화 속에서도 여성의 모습은 활달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며 또한 독립적이다. 설화를 통해서도 제주 여성들은 가부장적 사회에 순응한 것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자청비와 가문장아기는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인 여성으로 이들은 제주 여성들의 특징의 한 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²⁰⁾

3. 진취성과 적응력

제주 설화 속에서는 상황이 달라졌을 때 적절하게 대응하고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는 데도 흔히 여성이 앞장선다. <당신 본풀이>에서는 송당의 백주또가 그러하고 <일반 신 본풀이>에서는 여산부인, 사만이 부인, 강림 큰 부인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해당하는 여성신격이다. 반면에 남성 신들은 여성이 제시해 준 일마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을 그르치기 일쑤이다.

제주 설화에서 여성의 진취성과 적응력은 뚜렷하게 드러난다.

18) 김정숙(2002), p. 88, 재인용: 김경애(2005), p. 134.

19) 위의 글, p. 134.

20) 참조, 위의 글, p138

설문대 할망은 옥황상제의 셋째 딸로서 덩치가 굉장했다. 그녀가 흙을 몇 번 날라다 만든 것이 한라산이며, 이 흙을 나르던 중 터진 치마 사이로 떨어져 굳은 흙덩이가 제주도 전역에 퍼져있는 오름이다. 그녀의 나막신 밑에 붙어 있다 떨어진 흙덩이도 오름이 되었다.

한라산을 배개로 삼고 서귀포 고군산에 엉덩이를 걸치고 서귀포 앞 범섬에 다리를 걸쳐 물장구를 치곤했다. 고군산 정상에 패인 분화구는 설문대 할망의 엉덩이 자국이다. 때로는 제주시 앞쪽의 관탈 섬에 다리를 뻗어 걸치기도 했다.

성산 일출봉은 그녀가 빨랫감을 놓았던 빨래 바구니이며 그 앞의 우도는 빨래판이었다. 또 일출봉 등산로 한 편에 보이는 겹쳐진 기암괴석은 길썩할 때 불을 밝혔던 등경돌이다.

본래 우도는 본섬과 연결되어 있었는데 설문대 할망이 한쪽 다리를 오조리 식산봉에 또 한쪽 다리를 일출봉에 걸쳐놓고 오줌을 누자 그 오줌이 바다를 이루어 우도가 분리된 것이다. 일출봉과 우도 사이에는 물살이 센 편인데 이는 바로 설문대 할망의 센 오줌발 때문이다.

그런데 이 설문대 할망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다. 옷이 한 벌 뿐이라 매일 빨래하고 바느질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제주도민들에게 속옷 하나를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육지와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만다. 설문대 할망의 속옷을 만드는 데는 명주 100동이 필요했으나 도민들이 모아온 명주는 1동이 부족한 99동에 그쳤기 때문이다.²¹⁾

위 설문대 할망 설화에서 설문대 할망은 제주도와 육지 사이에 다리를 놓아 주겠다고 나선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제주 섬에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가 고자 하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설문대 할망 설화와 비슷한 이야기로 남의 명당 터를 힘으로 빼앗아 시집 발복하게 한 며느리 이야기나, 친정 명당 터를 가로채어 시집 발복하게 한 며

21) 이영권, 앞의 책, pp. 41-42.

느리 등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을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은 출가외인이기에 그렇다보다 현실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척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는 사례다.²²⁾

설문대 할망이 섬을 만드는 노동처럼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노동의 강도는 후대 제주 여성의 노동력과 그 질량에 맥이 닿는다. 물질적 궁핍함을 설명하는 설정은 실제로도 넉넉하지 못했던 예전의 제주생활의 한 양상을 대변한다. 이는 농경사회가 제주에 정착되기 이전 수렵생활을 하던 시절에, 모계중심(母系中心)으로 꾸려지던 제주인류사회의 일면이 설문대 신화 등 제주 여신에 기호화 되어 오늘날까지 전승되었을 행적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설문대 할망은 제주 섬을 만든 일종의 창조의 신이다. 그 성격을 보건대 다른 신화에 나타나는 창조의 신들에서 보이는 절대적인 권위나 권력 따위를 지니지 않았다. 신화 상으로는 여성성이 풍부한 인물로 그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행적을 통해 ‘제주의 전통적이며 전형적인 여성’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설문대 할망에게서 ‘일하는 여성’인 제주 여성과 ‘진취적인 생활인’인 제주 여성을 만나게 된다.²³⁾

제2절. 제주여성의 삶

1. 문헌에 기록 된 제주 여성

제주도는 오래전부터 풍속과 관습에서 육지와는 다른 성과 젠더의 문화를 형성하며 지역적인 차별성과 독자성을 지녀왔고 비교적 높은 여성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²⁴⁾

22) 참조, 강정식, 앞의 글, pp. 38-39

23) 참조, 한림화, 앞의 글, p. 48

24) 참조, 김경희, 「제주 지역 여성 이미지의 탐독-대안적 페니스트 지리학의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

다음은 1920년대 후반에 제주도를 찾은 일본인의 눈에 비친 제주도와 제주 여성을 기록한 글이다.²⁵⁾

- 육지부의 여성은 대개 안방에 칩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주도의 부녀자들은 야외에서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활동에 종사하며 해변에서 자라난 사람은 해녀가 되어 활동한다.
- 제주도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활동이 눈에 띄게 활발하며 여성이 제사를 주관하는 일도 적지 않고 따라서 가정에서의 여성의 권력이 강한 편이다.
- 육지에서 중류 이상의 사람들은 반드시 밥상을 따로 받아 식사를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것이 관례이다.
- 제주도의 부녀자들은 육지에서처럼 길을 가는 도중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길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며 신부나 처녀 모두 얼굴을 가리는 법도 없다.²⁶⁾

외국인의 눈에도 제주의 여성은 본토의 여성과는 다른 특질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라는 지리적·문화적 독특한 위치는 한국 여성 중에서도 제주 여성이라는 독특한 여성상을 구축한 중요한 요인이었다.

제주 여성 중 역사적으로 유명한 인물은 김만덕(金萬德)이다. 김만덕에 대한 문헌 기록은 당시 정치가이며 학자였던 채제공의 사적으로 집필된 문헌인 『변암집(樊巖集)』에 나타난다. 채제공은 김만덕이 천금을 구휼자금으로 쾌척할 때 전 현감 고한록(高漢綠)이 곡식을 사들여 진곡에 보충한 것이 3백 석에 이르며 장교 홍삼필(洪三弼)과 유학 양성범(梁聖範)이 각각 1백 석의 원납 공물을 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그 기록에 의하면 김만덕이 임금이 사는 궁궐을 보고 금강산을 구경할 수 있도록 국법으로 정해놓은 출륙금지를 특별히 푸는 배려를 하였을 뿐 아니라 임금을 직접 면전에서 만나 볼 수 있도록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p. 7.

25) 위의 글, pp. 8-9.

26) 위의 글, pp. 8-9.

내의원 의녀반수의 벼슬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이 있던 때는 1797년으로 김만덕의 나이 예순이었다고 한다.²⁷⁾

김만덕은 전형적인 제주 태생의 제주 여성으로서 적극적으로 구휼에 앞장섰으며 그 당시 제주 여성으로서는 상상하기도 힘든 ‘육지 구경’을 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조선조에는 이미 제주 여성이 여정(女丁)으로서 지역방위의 임무를 수행한 기록이 등장한다. 청음 김상헌(金尙憲)이 편저하였다는 『남사록(南槎錄)』에는 조선조 시대의 제주 섬에 존재했던 지역방위군인 여군, 즉 여정(女丁)에 대한 기록이 들어있다. 김상헌은 1601년에 선조 임금으로부터 어사의 직을 받고 제주도에 파견되었던 관헌으로 전직이 성균관 전적이었다. 그는 전적(典籍)답게 제주로 오는 과정의 기행이며 제주에서의 견문을 꼼꼼하게 자신의 글과 남의 글 등을 차입하여 기록함으로써 후에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지는데, 그 책이 바로 『남사록』이다.²⁸⁾

본주의 성안에 남정은 5백이고 여정은 8백이 있다. 여정이란 말은 제주 지역어이다.

뒤이어 여정이 담당하는 지역 방위 임무가 어떠한 것인지도 기록되어 있다.

대개 남정은 매우 귀하여 만약 사변을 만나 성을 지키게 되면 민가의 튼튼한 여자를 골라 살받이터 어귀에 세워 여정이라고 칭하는데 삼읍이 한가지이다.²⁹⁾

제주 여성의 역사를 소극적으로 논한다면 군역이 더해짐으로 인하여 제주 여성은 생활, 조공, 군역의 이중·삼중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하는 지난한 삶의 흔적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적극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당시

27) 한림화, 앞의 글, p. 63.

28) 위의 글, p. 65.

29) 위의 글, p. 65.

한반도의 여성은 사회활동이 공식적으로 거의 제한된 상태에서 제주 여정과 같은 균역을 치러낼 육체적·정신적 무장이 거의 불가능했다고 본다. 그러나 제주 여성은 실생활에서 다져진 육체와 섬 생활을 원만하게 극복하려는 불굴의 투지 등 정신적으로 균역을 치러낼 만한 역량을 갖추었기에 그 역할을 감당해내고 수행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현대에 이르러서도 소수의 여성을 제외하고는 남성의 영역으로만 치부되어 왔던 국방의 임무를 여성도 똑같이 치러왔음이 수적으로는 오히려 남성지역방위군보다 우세하였음은 역사상 나타난 제주 여성의 대단한 공적으로 보인다.³⁰⁾

그리고 제주 해녀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정조가 즉위한 직후인 정조 즉위년 5월경인 1779년 5월 22일 조에는 제주섬에 대한 민심과 형편을 살피라면서 어사를 파견하였는데 이어 올라 온 장계에 다음과 같은 대목을 발견할 수 있다.

... 그 하나는 포작과 잠녀(潛女)에게 경납(京納)한다고 조등(계획적으로 어정 어정 속이는 것)하는 폐단은 더욱 엄히 금단(禁斷)하십시오.³¹⁾

이 기록을 보면 제주 잠녀(해녀)에게는 물질이 생업이기 이전에 국가에 헌납해야 하는 물건을 생산해내고 세금을 바칠 물량을 확보하는 공적인 ‘일감’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잠녀는 물질을 개인 및 지역과 국가를 위해 오래하여 왔기 때문에 기록을 뛰어넘어 제주의 근현대사의 변혁기에 제주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에도 물질적인 공헌을 도모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때는 생존권투쟁에서부터 독립운동에 이르도록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제주지역에서의 1932년에 ‘제주해녀항일항쟁’이란 명칭으로 공식화된 제주 잠수(潛嫂)들의 독립운동은 제주여성근대사의 큰 족적으로 볼만하다. 일제강점 36년의 역사상 단일직종 종사자들인 여성 집단에 의해서 행해진 독립운동으로는

30) 위의 글, pp. 66-67.

31) 위의 글, pp. 68.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 여성사회가 조직적·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하였다는 사실은 그 시대에 흔하지 않은 ‘우먼파워(woman power)’의 발로였다.³²⁾

2. 가정 경제 활동과 제주 여성

제주도를 흔히 여성들이 많은 섬이라고 불린다. 제주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삼다(三多)’라는 말이 있는데 그 ‘삼다’ 중에 하나가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여성인 많은 섬이라는 말은 인구 통계학적으로 성비에서 남녀의 차이가 많다는 뜻도 되지만 제주 여성이 종사하는 업종이 많고 다양하며, 개개인의 특성으로 보아도 제주 여성이 역세고 부지런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확대 해석 할 소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³³⁾

해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제주도는 농작물을 재배하기에 무척이나 불리한 지형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주요 경제 활동은 바다에서 이루어졌다. 남성들은 배를 타고 나가 고기를 잡았으며 여성들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했다. 해녀로 대표되는 제주 여성의 노동은 척박한 제주도에서 살아남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척박한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성이고 여성이고 따로 없었다. 누구나 살아 있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생계에 보탬이 되어야 했다. 그러한 척박한 환경이 제주 여성을 가정 경제 활동의 주체자로 만들었다. 제주 여성이 가정과 지역에서 경제 활동의 주체자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가족과 사회에서의 지위도 높아지게 되었다.

32) 위의 글, pp. 68-69

33) 참조, 김경희, 위의 글, p. 20.

표 1. 15세 이상 경제활동 참가율³⁴⁾

구분	전국		제주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960	-	28.4	-	66.0
1970	77.9	37.6	-	57.7
1980	76.4	42.8	-	50.3
1990	74.0	47.0	74.7	57.0
1995	76.5	48.3	75.0	57.6
2000	74.1	50.6	74.5	59.7
2005	73.9	48.4	77.9	62.6

위에 표에서 보듯이 제주 여성은 경제 활동의 한 축으로 활동을 했으며 그것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제주도에서 나고 자란 제주 여성들은 80대가 되어서도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며 밭에서 일을 하고, 하다못해 남의 밭에서 일을 하고 일당을 버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간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안 살림만 하는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에서 빈둥거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돈을 벌라고 다그친다.

우리 부모 날 날 적의 해도 달도 엇일적의 나를 낳아 높아신가 어떤 사람 팔
 제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의 긴 담뱃대 물고 앓앙 사랑방에 잠을 자리 해너
 팔젠 무신 팔제라 혼백상지 등에 지꼭 푸린 물 속 왓다 갖다
 (우리 부모 날 낳을 적에 해도 달도 없을 적에 나를 낳아 놓았을까 어떤 사
 람 팔자 좋아서 긴 담뱃대 물고 앓아 사랑방에 잠을 잘까 해너팔자는 무슨
 팔자라 혼백상자 등에 지고서 푸른 물속을 오락가락)³⁵⁾

영화 <어멍>에도 등장하는 제주 민요 해녀 노래는 경제 활동을 책임져야하는 해녀로서의 고단한 삶이 잘 드러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딸 한 집이 부재’라는 제주 속담이 있다. 이 속담은

34) 위의 글, p. 27.

35) 제주도 여성특별위원회, 『제주 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 2001. p. 1

딸 많은 집이 부자라는 뜻이다. 이는 제주의 가족에서 여성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만큼 고된 노동으로 가족 경제에 이바지했던 것이다.

김영돈에 따르면 물질을 열심히 치르는 마을에서 자란 조완아 할머니의 경우 열여섯(1930)에 첫 물질을 시작하여 대마도로 출가 물질을 다녀 온 후 발한 땀기를 사들였으며 김희순 할머니는 스물한 살에 일본 동경에 물질을 다녀와서 발한 땀기, 서른한 살에 발 세 땀기를 사들였다고 한다.³⁶⁾

이렇듯 해녀는 특유의 잠수 능력을 활용해 해외 출가를 하면서까지 고된 노동을 했다. 제주의 척박한 땅에서 밭농사만으로 궁핍한 삶을 면치 못하게 되자 해안가 여성들은 가정 경제를 위해 스스로 해녀가 되어 바다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

제주 여성에게 있어 노동공간이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다. 아침에 기상해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행동했고 일했다.³⁷⁾

나가 무사 물질 허래 땀기는 줄 아나? 나라고 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줄 아나? 다 너네 때문이라. 더 너 때문이라고! 알았나?

영화 <어멍>에 등장하는 숙자의 대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된 노동 속에서도 궁극적으로 그들이 바라는 것은 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이었다.

3. 가부장제와 제주 여성

가부장(家父長)제란 ‘아버지의 지배’라는 뜻으로 ‘가족의 대표인 아버지가 가족 성원에 대해 행사하는 일반적인 권위 또는 지배’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배는 남성들 간의 위계관계,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로 나타난다.³⁸⁾ 그런 의미

36) 김영돈, 『한국의 해녀』, 민속원, 1999, p. 218.

37) 참조, 김순이, 앞의 책, p. 18.

에서 본다면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사회다. 가족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최상위를 차지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어머니의 권위는 약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특히 여성의 역할은 천대받았으며 그 결과 남아선호 사상, 남녀 차별이 공고히 자리 잡는 요인이 되었다.

이미 앞서서도 살펴보았지만 제주도가 지리·역사·문화적 환경이 본토와 많이 다르다는 점은 제주도 여성의 지위 또한 한반도의 여타 지역의 여성들과 차별 점을 가져오게 된 중요한 요인이었다. 전통적인 가부장제 사회인 한반도에서 제주 여성은 어머니로서도 탈 가부장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은 제주도의 가족이 아버지 중심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어머니의 권위도 동등한 위치에 놓여있는 수평적인 구조라는 점이다.

제주도에서 여성들은 농사에서 아주 힘든 일을 제외하고는 남성과 공동적으로 또는 주로 담당하였으며 농사일에 있어서 여성의 참가율은 육지에 비해 높아 내외법도 엄격하지 않았으며, 바다에서도 해녀로서 일하면서 여성이 경제적인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여성의 권리 또한 상대적으로 평등할 수밖에 없는 제주의 고유성을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³⁹⁾

최재석에 따르면 토지가 척박하여 누구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자립정신이 전통이 되어 장남도 부모와 분가하여 핵가족의 형태가 보편화 되었으며 서로 독립적으로 산다. 그러나 가사 일은 대체로 여자가 담당하며 핵가족이기 때문에 다만 여자가 물질이나 김매기에 종사할 때는 남자가 일이 없으면 아이를 돌보았다. 또한 경제적으로 독립심이 강한 제주 여성들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지 않아 이혼율이 높았고 재혼이 육지에 서처럼 금지되지 않고 첩살이도 육지와 다른 형태를 띠면서 드물지 않았다. 제주도는 가부장제의 틀에 있기는 하였으나 유교 윤리가 육지와 같이 엄격하게 여성에게 적용되지는 않은 것이다.⁴⁰⁾

38) 이정희, 「탈가부장 사회를 지향하는 모성 리더십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 학위 논문, 2012, p. 18

39) 참조, 제주국제협의회 공편,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도서출판 오름, 2005, p. 138.

40) 위의 책, p. 138.

경제활동을 하는 직업인으로서의 모습에서 제주 여성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 질서를 거부하고 활달하고 개방적이며 자유롭고, 적극적이며 진취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으로, 어머니로 살아 왔다.⁴¹⁾ 가부장적 사회에서도 당당하게 경제활동을 하며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서 집안 살림을 이끌어가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란 남자 아이들은 함부로 여성들을 천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었다. 그만큼 어머니의 힘이 강했으며 그것은 오늘날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여성상과 맞닿아 있음을 알 수 있다.



41) 참조, 위의 책, p. 138.

제3장. 한국 영화에 나타난 제주 여성

통상 한국 영화에서 제주도는 주로 멜로영화의 환상적이고 독특한 자연 배경으로만 소비되었다. 또한 대중매체들은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과 특산물 등을 홍보하며 관광지로서의 제주도의 이미지만 부각해왔고, 그 결과로 제주도는 현재 연 1000만 관광객이 찾는 유명 관광지가 되었다.⁴²⁾ 하지만 관광지라는 제주도를 향한 불균형한 시선은 화려하고 아름다운 자연, 독특한 생활양식 같은 제주도의 한쪽 면만 강조하였고, 제주 주민들의 삶, 역사, 문화와 같은 제주도의 다른 면은 상대적으로 간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 영화 속에서도 관광지가 아닌, 제주도라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여준 영화는 드물다. 2013년도에 제작된 오명 감독의 <지슬>이 4.3 사건에 따른 트라우마의 공간으로서의 제주도를 재현하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제주도를 재조명한 것과 2018년도에 제작한 <인어전설>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 영화에서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영화는 더욱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제주도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가 한두 편 제작되었다.

이에 이 장에서는 제주 여성을 주요 소재로 한 한국 영화를 분석해보고 이 영화들이 제주도와 제주 여성을 어떤 방식으로 재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 여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가를 연구하는 것은 이 논문의 주제인 ‘제주 여성상의 영화적 재현’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비교 근거가 될 것이다.

42) 문유미, “올해 제주 찾은 관광객 1000만 돌파”, 제주일보, 2018. 9.12,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719>

제1절. 계춘할망

영화 <계춘할망>은 2016년 5월 19일 개봉한 영화로 창감독이 연출한 영화다. 줄거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2년 만에 잃어버린 손녀를 기적적으로 찾은 헤너 계춘. 손녀 혜지와 예전처럼 단둘이 제주도 집에서 함께 살면서 서로에게 적응해간다. 그러나 아침부터 밤까지 오로지 손녀 생각만 가득한 계춘과 달리 도통 그 속을 알 수 없는 다 커버린 손녀 혜지. 어딘가 수상한 혜지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커져가는 가운데, 혜지는 서울로 미술경연대회를 갔다가 사라진다. 이후 혜지에 대한 진실이 드러난다.

12년 전 계춘과 살던 6살 혜지는 친엄마가 몰래 혜지를 데리고 가버렸고 계춘은 그러한 사실도 모른 채 잃어버린 혜지에 대한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오랫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친엄마와 의붓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던 혜지는 어느 날 교통사고로 혜지가 죽게 되었고 의붓아버지는 보험사기를 치기위해 자신의 친딸인 은주를 혜지로 둔갑시켜 살아가게 했던 과거가 밝혀진다. 혜지와 의붓아버지는 사기혐의로 구속된다.

계춘은 혜지가 친손녀가 아닌 것을 알게 되며 혜지와 또다시 헤어진다. 하지만 혜지는 계춘 할머니의 사랑을 잊지 못한다. 계춘은 치매에 걸려 행방불명이 되고 혜지는 계춘을 찾는다. 계춘과 혜지는 다시 같은 집에서 살게 되고 혜지는 과오를 뉘우치며 계춘을 잘 보살핀다. 계춘은 혜지가 자신의 잃어버린 친손녀가 아님을 어느 순간 알고 있었음을 밝히며 진짜 손녀 혜지를 만나러 간다며 행복하게 눈을 감는다.

<그림 1> 영화 계춘할망 포스터



제주와 제주 여성을 재현함에 있어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춘할망>은 제주도를 주요 배경으로 하며,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한국 영화에 있어서 흔치 않은 영화다. 이에 본 연구자는 영화 <계춘할망>이 제주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 및 제주 여성을 재현하는 영화적 표현 방식과 그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제주적인 장면들

(1) 해녀

<계춘할망>에서 계춘(윤여정 분)의 직업은 해녀다. 계춘은 평생 물질만 하

면서 홀로 손녀 혜지(김고은 분)를 키워 왔다. 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신의 불이익조차도 감수해 내는 할머니다. 계춘은 자신의 핏줄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우리 모두의 할머니이자, 손녀를 입히고 먹이기 위해 어떤 경우에도 물질을 거르지 않는 강인한 제주도의 여인이다. 마치 설화 속 주모 할망이 집에서 쫓겨난 자청비를 거둬 풀어주었던 것처럼⁴³⁾ 계춘은 혜지를 자신의 품에서 성장시킨다.

표 2. 영화 <계춘할망>의 오프닝 시퀀스 주요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태약을 지고 물질을 하러 나가는 계춘
2		물질을 준비하는 혜녀들

43) 본 연구 p. 9 ‘자청비 설화’ 참조.

3		바다에서 물질하는 해녀들
---	---	---------------

오프닝 시퀀스에서부터 바다에 물질하러 나가는 해녀들과 계춘의 이미지를 재현하고 있는 이 영화는 제주도라는 공간적 배경과 해녀 문화를 보여줌으로써 제주에서만 가능한 제주적인 장면들을 구현한다.

(2) 주거 공간

주거 공간은 그 지역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공간이다. 따라서 주거 공간은 그 지역 색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되기도 한다. 영화 <계춘 할망>은 전형적인 제주도 가옥의 낮은 지붕과 마당, 돌담으로 쳐진 울타리, ‘올레’라고 불리는 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돌담길, 돼지를 키우는 화장실인 ‘똥통시’ 등을 주요한 영화적 공간으로 활용한다. 바람에 강하게 버티도록 설계된 낮은 지붕과 돌담, 자원 순환 형 화장실 등은 녹록치 않은 자연과의 싸움에서 현명하게 삶을 개척하고 살아온 제주인들의 역사이자 삶 그 자체를 반영한다.

표 3. 영화 <계춘할망>의 주거 공간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p>제주 해안가의 전형적인 가옥 형태</p>
2		<p>집으로 들어가는 좁은 돌담길 '올레'</p>
3		<p>제주의 전통적인 화장실 'dot tongsi'</p>

(3) 잠수 곳

잠수 곳은 잠수(해녀)들의 무사고와 해산물의 풍요를 기원하는 무속의례이다. 평생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물질 작업을 해야 하는 해녀들에게 잠수 곳은 정신적인 의지 치료써 물질을 나가기 전에 반드시 행해야 하는 통과 의례와도 같은 것이며, 또한 잠수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닌 의례이기도 하다.⁴⁴⁾ 그래서 잠수 곳은 해안가 마을 해녀가 있는 곳이라면 빼놓지 않고 지내는 마을의 연례행사가 되었다.

<계춘할망>에서도 잠수 곳 장면이 등장한다. 무당이 굿을 하는 장면들과 해녀들이 일 년간의 안녕을 빌며 바다에 제물을 던지는 장면 등이 그것이다.

표 4. 영화 <계춘할망>에서 잠수 곳 시퀀스의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무당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

44) 참조, 강소전, 「제주도 잠수 곳의 의례형태와 의미」, 『해녀 연구총서 2』, 학고방, 2014, pp. 71-72.

2		<p>마을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수신제를 즐기는 장면</p>
3		<p>바다에 제물을 바치고 소원을 비는 장면</p>

제주의 독특한 무속신앙이자 마을공동체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잠수 곳을 재현하고 있는 이 이미지들은 해녀가 물질을 하는 장면과 더불어 제주적인 장면을 이루는 중요한 시퀀스다.

(4) 무덤, 오름 그리고 자연 풍경들

영화 <계춘할망>은 제주의 자연과 풍광을 백분 활용하여 영화적 공간으로서의 제주를 표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춘이 아들 무덤에 음식을 올린 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장면에서 뒤로 보이는 무덤을 볼 수 있다(표5-1). 제주도의 무덤에는 돌담을 쌓아 놓았는데 이는 방목을 하는 소나 말에 의해 산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한 배경에 자주 등장하는 오름(기생화산)도 있다.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제주도에는 360여개의 오름이 있다. 오름

은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형태의 산이다(표5-4). 영화 <계춘할망>은 오름뿐 아니라 한라산(표5-2), 곳자왈(표5-3), 비자림 등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 풍경들로 여러 장면들을 구성함으로써 제주만의 정취를 표현하고 있다.

표 5. 영화 <계춘할망>에서 제주의 풍경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제주의 무덤
2		한라산

3		꽃자왈
4		오름

2. 제주도 문화의 영화적 재현과 그 한계

<계춘할망>이 여러 가지 제주적인 장면들의 구성과 제주도 배경의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여성을 영화적으로 재현한 지점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첫째, 계춘의 대사에 제주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언은 일정한 지역이나 사회계층에서 사용하는 언어체계이다. 방언은 공통어가 분화되면서 음운, 형태, 의미의 변화를 거쳐 생성되었거나 일정한 지역의 여러 특징을 기반으로 독자적으로 생성된 언어이다. 때문에 방언에는 그 지역에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다양한 문화, 전통, 역사가 살아 숨 쉬고 있고 그 지역 사람들의

독특한 정서가 깊이 배어 있다. 그러므로 방언을 통하여 그 지역의 삶과 문화를 깊이 이해 할 수 있다.⁴⁵⁾

지역 방언은 그 지역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다. 방언은 영화뿐만 아니라 문학작품에서도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고 그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담아낼 수 있으며 캐릭터를 표현하기도 한다. 방언이 없는 그 지역의 영화를 관객은 진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계춘은 제주도에서 태어나고 자라 평생을 물질만으로 살아온 여성이다. 제주 여성이 주인공인데 제주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제주 여성의 영화적 재현으로서 분명한 한계점이다.

석호 (문을 열고 하늘을 보며) 아이고 이모, 여섯시도 안됐는데 배 띄워요?

계춘 어디서 눈을 뚱그랗게 뜨고 치다봐?

석호 (눈을 손으로 집으며) 아니 그럼 눈을 갖다가 요렇게요 세모났게 떠요?

위 대사는 <계춘할망>에서 계춘과 그녀의 조카 석호와와의 대화 일부다. 계춘과 석호는 제주도를 떠나 살아본 적이 없는 제주 토박이다. 하지만 위 대화만으로는 이 두 캐릭터가 제주도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 심지어 배경이 제주도인지도 확실치가 않다. 제주 배경의, 제주 여성 주인공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주 방언을 제대로 구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 여성을 영화적으로 표현함에 있어서 그 한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억척스럽게 물질을 하며 손녀를 키워내는 모습에서 전통적인 제주 여성의 이미지를 어느 정도 읽어낼 수는 있지만, 계춘이 표준말을 쓰게 함으로써 이러한 계춘의 모습은 보편적인 여성, 어머니, 할머니의 이미지로 전환된다.

둘째, 이 영화에는 엄밀한 의미의 제주 여성이 보이지 않는다. 계춘은 분명 제주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의 2장에서 살펴본 제주 여성의 특징들이

45) 참조, 최희선, 「방언 교육의 이해와 실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p.13.

계춘에게는 없다. 영화는 자신을 희생하면서 손녀를 끄찍이 아끼는 모습만 강조해서 계춘을 표현 한다. 그녀가 물질을 하고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것도 손녀 혜지 때문이고, 땅값이 많이 올라서 집을 팔고 편하게 살라는 권유에도 끝까지 옛날 집을 지키는 것도 잃어버린 손녀 혜지 때문이다.

물론 전통적인 할머니로서 손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한다. 하지만, 제주를 배경으로 제주 여성을 담아내는 데는 모성(母性)의 부분만 강조된 점이 없지 않다. 진취적이고 적극적이며 자립성과 생활력이 강한 제주 여성이 계춘에게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자애롭고 포근하며 인자한 할머니 계춘만 드러날 뿐이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이 영화의 제주적인 장면들은 제주도라면 떠오르는 보편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제주도의 풍경들, 해녀, 주거 공간, 무속 신앙 등은 제주도의 걸모습이며 지금껏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었던 제주도의 표면일 뿐이다.

계춘이 본토의 다른 바닷가 지역 할머니라고 해도 이 영화의 스토리텔링은 성립한다. 그럼에도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이유는 제주도라는 특수한 환경과 정서 때문이다.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고 익숙한 ‘타자화’ 된 제주도를 활용한 것이다. 이 영화에서 제주도의 모습들이 타자화 된 채로 표현되고 있듯이 계춘으로 대표되는 제주의 여성 또한 타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영화는 손녀를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가는 해녀 할머니로서의 계춘만 있을 뿐 70년 넘게 제주도를 살아온 제주 여성으로서의 계춘은 표현되지 않았다.

제2절. 인어전설

영화 <인어전설>은 2018년 11월 15일 개봉한 오멸⁴⁶⁾ 감독의 작품이다.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46) 오멸 감독은 1971년 제주특별자치도 출생이며 남녕고등학교, 제주대학교 한국학과를 졸업했다.

전 싱크로나이즈 국가대표인 ‘영주’(전혜빈 분)는 술에 찌들어 살고 있다. 어느 날 영주는 제주도 해녀 싱크로나이즈 교육 강사로 추천되어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다. 제주도 해녀 대표인 ‘옥자’(문희경 분)는 물질과 조그만 횃집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가는 인물이다. 해녀를 가르치는 일에 흥미가 없는 영주와 싱크로나이즈를 하는 것이 못마땅하던 옥자는 사사건건 대립한다. 어느 날 영주는 옥자에게 숨을 참고 바닷 속에 있는 전복을 먼저 가지고 오는 시합을 제안한다. 영주가 승리를 하고 옥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싱크로나이즈 연습에 참가한다.

영주와 옥자는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가까워지고 동네 해녀들과 주민들은 좌충우돌 싱크로나이즈 연습을 한다. 하지만 영주의 슬펐던 과거가 드러나고 제주도까지 찾아온 남자친구와 아이를 데리고 새 삶을 찾아 육지로 떠나려고 한다. 옥자와 마을 사람들은 제주 해녀의 싱크로나이즈 공연 계획이 취소되었지만 정식으로 싱크로나이즈 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정한다.

결국 해녀 싱크로나이즈 팀은 대회에 출전하고 멋지게 경기를 마친다.

<그림 2> 영화 인어전설 포스터



1. 제주 감독

제주 출신인 <인어전설>의 감독은 제주에서 활동을 하며 제주적인 영화를 다수 제작한 감독이다. 그의 데뷔작은 <어이그, 저 컷컷!>(2009년)이며 대표작으로는 제주 4.3사건을 다룬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 2>(2012년)이다.

오멸 감독이 제작한 작품에서 볼 수 있듯이 감독의 영화는 주로 제주도를 배경으로 제주의 역사와 문화, 제주인들의 사실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표 6. 오멸 감독의 작품들⁴⁷⁾

제작연도	제목	주연	비고
2009	어이그, 저 컷컷!	오영순, 문석범	
2009	빵돌	김민혁, 이경준	
2011	이어도	김민혁, 최은미	
2012	지슬-끝나지 않은 세월2	이경준, 홍상표	
2014	하늘의 황금마차	문석범, 김성호	
2016	눈꺼풀	문석범, 성민철	
2016	인어전설	정혜빈, 문희경	
2017	김관홍		미개봉
2017	파미르		미개봉

해녀들의 고단하고 거친 삶의 이면에 있는 밝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래서 상업적 요소보다 제주 전통 무속, 환경 파괴, 실제 도민들의 모습을 더 부각했다.⁴⁸⁾

오멸 감독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인어전설>의 연출 의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만큼 <인어전설>은 현실적이고 내면화된 제주도의 모습을 비교적

47) 인터넷 포털 검색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2019. 11. 21

48) 한형진, “3년 만에 빛 보는 오멸 감독 ‘인어전설’ 15일 전국 개봉”, 제주의 소리, 2018. 11. 14, <http://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211767>

잘 담으려는 의도가 보이는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제주 지역 출신이 아닌 감독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제주의 문화·역사 및 환경을 표면적으로 담아 낼 수는 있지만 그 지역의 정서를 오롯이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앞에서 분석한 <계춘할망>의 경우 창감독이 제주도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 사람들은 그 영화에 몰입하기는 힘들다. 겉으로는 제주 영화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면 깊숙이 풍기는 정서까지 공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한 정서들이라는 것은 그 지역만이 가지는 공통된 문화와 환경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되는 것들이다.

<인어전설>을 보면 제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정서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제주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독특한 정서들이다.

제주 출신의 감독이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만든 영화 <인어전설>은 제주의 정서와 문화를 보다 깊이 있게 영화적으로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주적인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

2. 제주적인 정서들

(1) 제주 방언

<계춘할망> 분석에서도 설명한 바 있지만 지역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방언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육자 아이고 큰일날 뻔 해서. 아무것도 안 먹영 일곱 시간 동안 물질 해
신디 별일 어신른 그게 이상헌겨주게. 아이고, 오늘은양 나도 막
힘들영 죽어지쿠다게...

춘자모 니 덕분에 살았져.

옥자 그건 아니고예. 아직은 용왕님한테 갈 때가 아니우다.
 춘자모 우리 춘자헌티랑 끝지 말라이. 가이 요새 막 컷고랜 존다니가 어
 평사 심헌지...
 옥자 언니, 경 독허게 살지 마.
 춘자모 아이고, 독한걸로 치면 우리 동네에서 만수 어명이 일둥이주게. 만
 수 낭 사흘 만에 물에 들지 안 해시냐. 경헌디 니 무시거 호썰 잡
 아져냐?
 옥자 제우 전복 호나 잡아수다.
 춘자모 게매이, 나도 쪼끌락헌 물구럭 멧개빼끼 못 잡았저게. 회한지게 물
 건이 없다.
 옥자 게매마씨. 저 짝 편에 아직 작업도 안 해신디.. 참 이상 허네...

위의 대사는 <인어전설>에 등장하는 옥자와 춘자모의 대사 중 일부이다. 해녀인 옥자와 춘자모는 제주 사람이 들어도 어색하지 않는 어투와 어감으로 대화를 하고, 그 내용 또한 해녀들이 현실에서 주고받는 사실적인 이야기들이다. 위의 제주 방언 대사들은 제주 사람이 아니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상영 본에서는 표준어 자막을 달아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스크린 상에서 연기를 펼치는 배우들의 사실적인 제주 방언을 들으면서 그날 그 자리에 있는 것과 같은 현재성을 체험하게 된다. 제주 지역 사람이 아닌 경우에도 제주 방언을 쓰는 배우의 말을 귀로 듣고 자막으로 이해를 하면서 제주 사람과 동일한 체험을 할 수 있다. 이처럼 영화상에서 배우들이 제대로 구사하는 제주 방언을 쓰는 것은 제주의 특색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볼 수 있다.

(2) 제주 지역 문화 반영

각 지역마다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있다. 한 지역에 오랫동안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편입했을 때 느끼는 문화적 이질감이던가 반대로 타 지역에서 동향의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동질감 같은 감정들이 그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다. 사람이 살면서 자신도 모르게 체득해 온 지역 문화는 그 지역을 영화라는 매체로 표현하는데도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지역 문화를 표현하는 영화를 깊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문화를 충분히 이해해야 가능한 일이다. <인어전설>에서도 제주 지역의 사람들이라면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등장한다.

본 논문의 4장에서 영화 <어멍>을 연구하면서 다루겠지만, 생활력이 강한 여성이 등장하며 그와 반대로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무능력한 인물로 표현된다.

표 7. 영화 <인어전설>에서 표현된 여성과 남성의 모습 비교

구분	쇼트	내용
1		바닷 속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녀
2		물질을 마치고 대화하는 해녀들

3		<p>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옥자와 사고뭉치 아들</p>
4		<p>부둣가에서 술을 마시는 남성들</p>
5		<p>마을회관에서 장기를 두는 남성들</p>
6		<p>술을 마시는 아버지와 아들</p>

표 7-1에서 7-3의 장면을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주로 일을 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는 여성으로 표현된다. 반면에 표 7-4에서 7-6의 장면들처럼 남성들은 주로 술을 마시거나 한가롭게 장기를 두고 있다. 마치 생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표현된다. 이러한 장면들은 영화의 재미를 위해 설정한 장면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제주적 정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의 제 2절의 2 가정 경제활동과 제주 여성에서 보았듯이⁴⁹⁾ 적극적으로 생계를 책임지며 역척같이 일하고, 남성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여성들은 제주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 아니다. 그러한 제주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은 특정한 여성의 캐릭터를 창조했다기보다는 제주 사람이 느끼는 제주의 문화, 제주 여성의 모습을 보편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무능력하고 여성에게 기를 꺾지 못하는 남성들의 모습은 제주의 마을공동체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모습이다. 또한, 제주 설화 중 백주또나 자청비 설화⁵⁰⁾에서처럼 남성은 주로 사고를 치거나 답답한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사건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모습과도 닮아 있다. 오래전 제주 설화에서부터 내려왔던 제주 여성의 모습들이 제주 여성을 담은 이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들은 영화적 재미를 위해 과장된 측면도 없진 않지만 제주 지역의 여성과 남성의 모습을 통해 제주적인 정서를 표현한 장면들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의 문화를 반영한 장면들 중에는 제주 전통 무속 장면도 포함된다. 앞서 1장에서도 언급한 것처럼⁵¹⁾ 제주는 현재까지도 무속 문화가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다.

49) 본 연구 pp. 16-18 참조.

50) 본 연구 pp. 5-10 '백주또 설화', '자청비 설화' 참조.

51) 본 연구 pp. 1-2 '서론' 참조.

표 8. 영화 <인어전설>에서 제주 무속 문화가 표현 된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신을 모신 당의 모습 쇼트
2		바다에서 신을 향해 기도를 하는 쇼트
3		바다에 있는 당에서 기도를 하는 쇼트

4		무당이 처방해 준 물을 마시는 쇼트
---	---	------------------------

표 8-1에서 8-3의 장면들은 제주의 무속 신앙을 표현한 쇼트들이다. 아직까지도 제주 어촌 지역에서는 신을 모신 당이 많이 남아 있으며 실제로 무당과 해녀들이 자신과 가족의 안녕을 위해 수시로 굿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러한 것은 제주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정서들이다. 표8-4의 장면은 병에 걸린 ‘영주’에게 무당이 신성한 물을 처방해주고 그 물을 마시는 장면이다. 그 물을 마신 ‘영주’는 기운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간다. 제주 사람들은 무속의 힘을 많이 믿는 경향이 있는데 현대 의학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노년층들은 병에 걸렸을 때 굿을 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영화 <인어전설>은 현존하고 있는 제주의 보편적인 문화를 섬세하게 재현하고 있다.

제4장.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 : 장편영화 <어명> 연출 분석

제1절. 작품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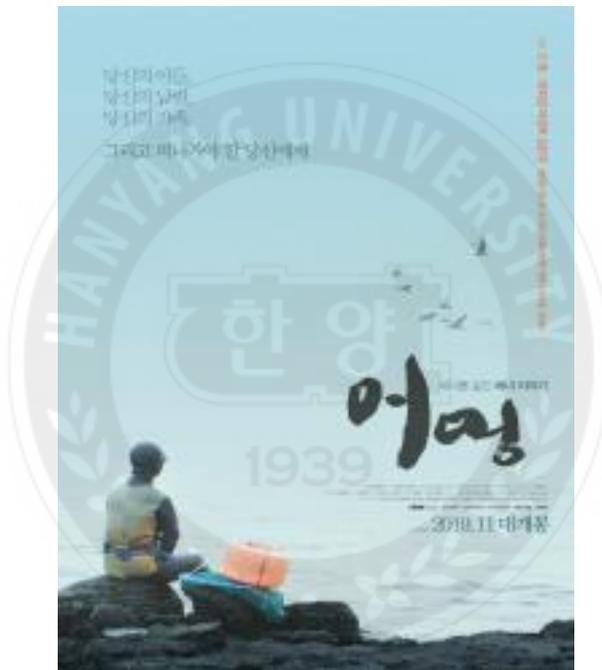
1. 작품 주요 정보

표 9. 영화 <어명> 작품 주요 정보

제목	어명(영문: My mother)
촬영 포맷	HD
화면 비율	2.35:1
길이	96분
제작 년도	2018년
개봉 일자	2019년 11월 21일
장르	드라마
주요 스탭	각본, 연출 : 고훈 촬영 : 서기원 조명 : 윤지원 동시녹음 : 정재율 미술 : 황인준 음악 : 김명중 편집 : 박곡지 사운드 믹싱 : 김용주(영화진흥위원회) DI : 김열희(더 컬러)

주요 배우	김숙자 역 : 문희경 고을 역 : 어성욱 양애란 역 : 김은주 양지훈 역 : 엄정훈
-------	---

<그림 3> 영화 <어명> 포스터



2. 기획 의도

제주라는 섬은 독특하다. 한라산을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는 오름과 남태평양을 끼안는 넓은 바다가 공존하는 자연환경과 섬이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만들어진 독특한 제주어와 전통문화들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과 문화 환경은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환상의 섬이라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그것은 제주를 반만 알고 있는 것이다. 감독이 나고 자란 제주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섬이 아니라 보리쌀 조차 제대로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고, 에메랄드빛 바다를 가진 섬이 아니라 추운겨울에도 눈보라 맞아가며 물질을 해야 하는 우리 어머니의 일터였다.

감독의 첫 장편 영화는 본인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관객들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독이 잘 알고, 잘 할 수 있는, 감독 주변의 이야기를 <어멍>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다.

<어멍>은 제주에서 살아가는 고집 세고 억척같은 해녀 엄마와 철없는 아들의 이야기다. 엄마와 아들의 이야기는 다소 식상한 소재일 수 있다. 그러나 바꾸어 생각하면 그만큼 오랜 기간 동안 사랑받아 온 보편적인 소재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만들어질 이야기일 것이다. 감독은 이러한 보편적인 소재에 제주라는 독특한 자연과 문화를 담아보고자 했다.

거기에 더해 제주 해녀들의 삶과 죽음, 죽음을 담담하게 삶의 한 부분으로 바라보는 제주 사람들의 세계관, 이러한 세계관들이 응축되어 있는 제주 해녀 노래와 장례문화를 보여줌으로써 겉으로만 알고 있는 제주를 더 깊숙이 다가가고자 했다.

3. 시놉시스

울의 아버지 제삿날. 가족들은 음복을 하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다. 자식들에게 아버지는 술과 책을 좋아하셨던, 낭만적인 로맨티스트였지만 숙자에게는 능력 없는 한량 남편일 뿐이었다. 숙자는 그런 남편을 닮은 울이 걱정이다. 숙자는 울이 농협에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동생 내외처럼 살기를 원한다. 숙자에게 울은 되도 않는 시나리오를 쓴답시고 설쳐대지만 실상

은 술 먹고 음주운전하며 사고나 치는, 철이 덜 든 아들 일뿐이다.

어느 날, 율은 숙자가 말기 암이며 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를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숙자는 율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해녀민속춤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운전기사를 해달라고 부탁한다. 율은 숙자와 같이 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숙자의 마음을 바꾸려고 한다. 하지만 숙자는 병원에서 죽기는 싫다며 평소처럼 물질을 나가고 해녀할머니들과 놀러 다닌다.

해녀 할머니의 장례식에 참석하고 돌아온 그날, 숙자는 자신의 장례식에 쓰라며 율에게 통장을 내준다. 그러면서 율이 안정된 직장을 잡고 결혼하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한다. 율은 자기도 열심히 하고 있다며, 내가 쓴 시나리오로 영화가 나올 때까지 살아 있어야 할 것 아니냐며 화를 내고는 밖으로 나간다. 하지만 율이 보냈던 시나리오를 구입하지 않겠다는 영화사 대표의 전화를 받는다. 율은 지금까지 꼭 참았던 술을 마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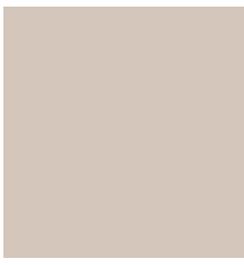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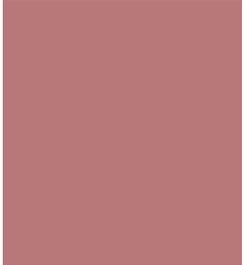
그날 밤, 숙자는 피를 흘리며 율의 방에 찾아온다. 율은 숙자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한다. 하지만, 가는 도중 음주단속에 걸리고 만다. 율은 경찰에게 잡히고 숙자는 경찰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다. 율은 경찰에 사정을 해 면허 취소 시작 기간을 뒤로 늦추고 숙자가 마지막 공연을 마칠 수 있도록 공연장에 데려다준다. 그날 율은 처음으로 숙자의 공연을 지켜본다. 다음날 율은 농협으로 매제를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한다.

숙자와 율은 아버지 산소에 별초를 하고 돌아온다. 내려오면서 숙자는 율이 쓴 시나리오가 영화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말한다. 숙자는 평소처럼 해녀들과 물질을 나간다. 그날은 유난히 바다가 잔잔하고 햇빛에 물결이 반짝 거린다. 그 반짝이는 물결 속으로 숙자가 천천히 헤엄쳐 들어간다.

4. 캐릭터

<어멍>의 주요 캐릭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표 10. 영화 <어멍>의 주요 캐릭터 및 배우

			
김숙자 역 : 배우 문희경	고울 역 : 배우 어성욱	양애란 역 : 배우 김은주	양지훈 역 : 가수 염정훈

김숙자(여, 50대 후반)

억척스럽게 해녀 일을 하며 남편 없이 홀로 자식들을 키워 온 울의 어머니이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지만 치료를 거부한다. 죽기 전 그녀의 유일한 바람은 하나뿐인 아들 울이 안정된 직장을 잡고 좋은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울은 그녀의 바람과는 달리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숙자가 보기에 울이 하는 일이란 고작 예로 영화 시나리오를 쓰며 이루지 못할 영화감독이라는 허황된 꿈을 꾸는 것이다.

숙자는 울이 영화감독의 꿈을 버리고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재발한 암을 치료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남은 삶보다 아들의 살아가야 할 삶을 걱정하는 숙자는 그녀의 투박한 제주 여성의 표현 방식 때문에 사사건건 아들과 대립한다.

고울(남, 30대 초반)

고품격 에로티시즘 영화감독으로 성공하는 것을 꿈꾸지만 정작 현실은 예로 영화 시나리오를 써주며 밥벌이를 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다. 자신의 꿈과 재능을 몰라주는 엄마와 세상을 한탄하며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이나 하는 철부지 아들이기도 하다. 그러던 어느 날 숙자가 암이 재발하고 치료를 거부한

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치료는커녕 바다에 물질을 나가고, 해녀 할머니들과 놀러 나가는 ‘어멍’을 이해할 수 없다. 율은 그런 숙자의 행동들이 아들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해 더욱 거칠게 숙자를 대한다.

그렇지만 숙자의 해녀 공연이 끝날 때까지 운전을 해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숙자가 암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 따로 살던 살림을 정리해 숙자의 집으로 들어온다.

양애란(여, 30대 초반)

고율의 초·중학교 동창. 서울에서 살다가 제주도 고향에 정착해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남편은 죽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 율이 숙자를 해녀 공연장에 데려다주고 기다리면서 시나리오나 쓰려고 들른 카페가 우연하게도 그녀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율이 시나리오 작가라는 사실을 알고 관심을 가지며 적극적으로 응원해 준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은 공부는 안하고 만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며, 커서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까봐 걱정한다.

양지훈(남, 30대 초반)

고율의 초·중학교 후배이자 양애란의 친동생. 변변한 직장도 없이 음악을 하며 살고 있는 무명가수다. 매일 애란이 하는 카페에 들러 돈도 내지 않고 맥주를 먹으며 누나에게 구박을 받는다. 하지만 초 긍정 마인드로 당당하게 맥주를 마시며 노래를 부른다. 같은 예술의 길을 걷는 율을 좋아하며 자신의 신곡을 들려주기도 한다.

5. 연출의도

제주도를 있는 그대로 그리고 싶었다. 제주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인간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주도의 모습을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

하고 싶었다. 관객들이 생각하고, 보고 싶어 하는 제주도는 분명 아름다운 해변과 독특한 자연, 행복을 주는 사람들일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이전에 오랫동안 척박한 환경을 이기고 살아온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영화를 통해 제주도 토박이가 바라본 제주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를 보는 관객들에게는 독특하고 특별한 경험이 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제주도의 언어, 집, 바다, 해녀의 모습들을 포장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관찰자의 시점으로 그리고자 한다. 최대한 주관적인 감정이나 시점을 배제하고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제주의 삶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다. 그럼으로써 이 영화를 경험하는 관객들에게 오히려 신선한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이 연출의 목표다.

더불어 제주의 자연과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이 관객들에게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제주인들의 삶의 공간으로서 인식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목표다. 이를 통해 관객들이 상상하고 예상 가능한 것으로서의 제주가 아닌 보다 사실적이고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장으로서의 제주를 경험하게 하고 싶다.

영화 <어멍>의 주인공 ‘숙자’는 제주 여성을 표상하는 상징적 존재다. 이에 그녀의 삶과 죽음은 숙자 개인을 넘어 보편적인 제주 여성의 삶과 죽음을 표현한다. 영화 <어멍>은 제주여성을 주인공으로 하여 제주여성의 삶을 심도 깊게 관찰하고 공감하려고 시도함으로써 지금까지와는 다른 제주에 대한 그리고 제주 여성에 대한 영화가 되리라 생각한다.

제2절. 제주 여성의 상징적 재현으로서의 ‘숙자’

1. 제주 여성 캐릭터 ‘숙자’

(1) 제주 배우와 제주어

지역 방언은 어감과 어투에서 표현되는 독특한 정서가 있게 마련인데 특히 제주 방언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제주 출신 배우가 아니면 제주의 언어적 정서를 섬세하게 표현하기 힘들다.

이에 <어멍>의 시나리오에는 현재 제주도에서 사용하는 제주 방언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주인공인 김숙자 역과 고을 역은 제주 출신의 배우로 캐스팅을 했다.(표 10 참조)

아무리 서울 사람이 제주 언어를 배워서 한다고 해도 그 맛을 못 낸다. 그래서 제주 출신 배우 어성욱을 추천했다.⁵²⁾

문희경 배우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어멍> 출연 계기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희경 배우는 시나리오를 접했을 때부터 <어멍>이라는 영화가 어떤 방향으로 제작될지 공감하고 출연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 정서의 교감과 공감은 제주 여성 캐릭터의 사실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낮인데도 어두운 방안.
창문으로 빛은 보이지만 누워있는 박할망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졌다.
이불 속에 누워 있는 박할망.
한눈에 봐도 많이 아파 보이는 박할망의 안색.

박할망 (힘없이) 아방 식게라시냐?

숙자가, 차롱에 싸온 제사 음식들을 꺼낸다.

52) 오형준, “문희경 영화 ‘어멍’ 아들役に 제주출신 어성욱 직접 추천, 모자 연기 케미 좋아”, International bnt NEW KOREA, 2019. 1. 2, <http://bntnews.hankyung.com/>.

박할망 뭐 허래 이런 거 싸오나? 나뉘 봤자 먹지도 못 한다.

박할망. 침대 위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만진다.

박할망 지금 바당은 보라시냐?

숙자 ...

박할망 지금 한창 고등 들일텐디... 나 바당 안 나가난 너만 돈 하영 벌업지?

숙자 (피식 웃으며) 나만 벌기 미안 허난 빨리 나상 바당에 나오서.

박할망 나도 가고 싶으다. 물질 허는 잠녀가 죽어도 바당에 강 죽어사주.

숙자 무신 죽는 소리 햄수과? 지금은 편안허게 집에서 쉬멍 병이나 고칩써.

박할망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나한텐 바당이 제일 편안헌디여.

숙자, 박할망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위의 장면은 영화 <어멍>에서 숙자가 몸이 아파서 바다에 일을 나가지 못하고 홀로 살고 있는 박 할망에게 제사 음식을 갖다 주면서 나누는 대화들이다. 이 대화들뿐만 아니라 이 영화의 대부분이 순수 제주어로 구성되었으며, 숙자를 연기한 문희경 배우는 제주어의 어감이나 어투, 감정까지 제주 여성을 사실적으로 연기하고 있다. 그것은 문희경 배우가 제주 출신의 배우로서 제주어의 정서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제주 배우의 제주어 연기는 제주 여성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2) 제주여성의 구체적 형상화로서의 ‘숙자’

사실적인 제주 여성으로서의 숙자를 재현하기 위해 어감, 어투, 대사를 통한 캐릭터 구축과 동시에 숙자의 외형 또한 캐릭터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표 11. 영화 <어명>에서 ‘숙자’의 외형적 캐릭터 구축 모습들

구분	쇼트	내용
1		외출 시 숙자
2		병원 상담 후 숙자
3		도 일주 관광 시 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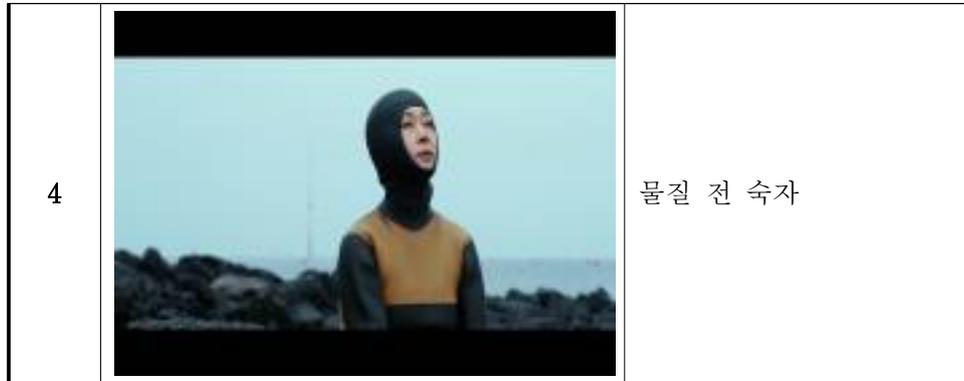


표 11-1에서 표11-3까지의 장면에서 보듯 숙자는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숙자는 주로 붉은색 계통의 의상을 착용 하는데 이는 삶에 대한 그녀의 애착과 피(즉 죽음)를 상징하는 미장센으로 작용한다.

숙자가 입는 화려한 색깔의 옷과 화장은 그녀의 밝고 강인한 생명력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아이러니를 이미지화한다. 이러한 역설적인 캐릭터 구축은 제주 여성의 역설적인 삶을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 아름답고자 하는 여성의 본능적이고 이상적 욕망과 거친 삶을 헤쳐가야만 하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처참함이 충돌하는 제주여성의 삶이 숙자라는 캐릭터를 통해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표 11-4에서처럼 숙자는 물질하기 전에도 화장을 한다. 숙자 캐릭터에 영향을 준 모델들은 감독의 어머니를 비롯한 감독이 살고 있는 제주 지역의 해녀들이다. 감독이 오랫동안 지켜봐 왔던 해녀들의 모습은 ‘숙자’와 그다지 다르지 않다. 본인이 보아온 바로는 나이가 많이 든 해녀들도 대부분 간단하게라도 화장을 하고 물에 들어간다. 눈썹 문신을 하는 것도 일상화되어 있다. 그녀들은 삶이 팍팍하고 고되다 하여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애쓰며 산다. 본인의 어머니가 그러셨고 주변에서 보아왔던 이웃 해녀들이 그러했고 <어멍>의 숙자가 그러하다. 이러한 감독의 경험은 숙자 캐릭터의 사실성을 구축함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였으며, 숙자의 캐릭터 구성은 영화 <어멍>을 좀 더 사실적으로 재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2. 영화 <어명>의 가족서사와 제주 여성으로서의 ‘숙자’

(1) 영화 <어명>의 가족 서사

영화 <어명>은 전형적인 가족드라마의 외형을 갖추고 있다. 내러티브 또한 특별한 사건 없이 가족의 일상과 가족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어명>의 핵심 갈등은 해녀인 엄마 ‘숙자’의 암이 재발하면서 시작된다. 숙자는 더 이상의 암 치료를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며 평소처럼 살다가 죽겠다고 선언한다. 치료를 거부한 채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숙자와 그러한 그녀와 싸우고, 그녀를 설득하고, 급기야 자신의 꿈과 엄마의 생명을 바꾸려는 아들의 절실함이 이 영화의 플롯을 구성한다.

<어명>의 가족은 ‘따로 또 같이’의 가족이다. 엄마는 남편과 사별하여 혼자 살고 있고, 아들은 도시로 독립해서 살고 있으며, 딸은 시집을 가서 다른 가정을 이루었다. 현대사회의 가족이란 대부분 이런 형태를 보이지만 특히 제주도는 전통적으로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보인다. 본 논문의 2장 제주여성에 대한 고찰에서 밝힌 바⁵³⁾와 같이 제주도에서는 각자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 객체의 삶을 인정해주는 문화가 지배적이다. 이에 한 집에서도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화다. 엄마는 엄마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딸은 딸대로 각자 스스로 살아간다.

영화 <어명>에서는 전형적인 제주의 독립적인 가족 형태로부터 시작하여, 엄마의 병과 고집 때문에 모자가 한집에 같이 살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즉 <어명>이 숙자와 율이라는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통해 그리고 있는 가족 서사는 한편으로는 보편적인 의미로서의 가족서사의 틀을 가지지만,

53) 본 연구 pp. 4-20 참조.

다른 한편으로는 제주 사람들의 삶의 형태와 그 이야기를 보다 근접하여 관찰하고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어멍>이 특히 가족서사를 풀어가기 위해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장면이 ‘식사 장면’이다. 식사는 가족들의 생활에 빼 놓을 수 없는 요소다. 너무나 당연해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이 요소를 <어멍>에서는 중요하게 다루면서 ‘숙자’와 ‘울’의 갈등을 표면화하기도 하고(표 12-4~12-6), 제주 특유의 음식문화를 나타내기도 한다(표 12-1~12-2).

표 12. 영화 <어멍>에 나타난 음식과 식사 장면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제주의 제사음식
2		이웃과 나눠 먹기 위해 가지고 온 제사음식

3	 <p>I think it's great we changed this to 11pm, mother.</p>	제사 후 식사
4	 <p>When are you going to stop that writing business?</p>	숙자의 병을 알기 전 숙자와 율의 식사
5	 <p>Hey, look at this again.</p>	숙자와 같이 살기 시작 한 후 숙자와 율의 식사
6	 <p>A person shouldn't go through this. I never want to die like that.</p>	숙자를 설득하는 자리에서 가족들의 식사

아버지의 제사임에도 아들 ‘율’이 참석하지 않은 식사 자리(표12-3)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율과 숙자간의 오해와 갈등이 있었음을 드러낸다.

율에게 있어 아버지는 의지 처이자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이러한 아버지 죽음의 원인 일부가 엄마 ‘숙자’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숙자에게 있어 남편은 그의 죽음으로 인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는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일상적으로 하는 식사 장면에서는 모자간의 특별한 관계와 서로에 대한 바람과 걱정을 표현하기도 한다(표12-4, 12-5). 여기서 숙자는 율이 시나리오 작가 일을 그만두고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율은 끝까지 자신의 일로 성공하겠다고 자신만만해 한다. 그리고 숙자는 죽은 아버지 버릇을 똑같이 하는 율을 타박하고, 율은 일부러 숙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 여기서 카메라는 거리를 둔 채 한 지점에 고정해 놓고 촬영하며 숙자와 율의 대화를 관찰하는데, 이러한 미장센은 두 사람 사이에 좁혀질 수 없는 갈등관계를 이미지화한다.

또한 숙자가 가족들의 설득에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갈등을 겪는 모습도 식사 장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표12-6).

너넨, 너네만큼 살라. 다 자기만큼씩만 살당 가는 거여. 며칠 더 살아보젠 호흡기 끼는 거 보기 송허다.

이 식사 장면에서 숙자는 병원치료를 설득하는 가족들에게 이같이 대답하며 죽음과 삶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을 보여준다. 이렇듯 식사 장면은 <어멍>에서 가족 서사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본인은 이러한 가족서사를 식사장면을 통해 이미지화하는데 있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과 허 샤오시엔 감독의 영화를 주로 참조하였는데, 특히 두 감독의 영화에서 식사 장면이 가족 간의 문제를 주제화하고 그들 사이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는데 주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감독의 영화들에서 식사 장면은 가족 내에 갈등의 원인이 내재되어 있거

나 갈등이 발생할 때, 또는 모든 갈등이 지나가고 새로운 일상을 시작할 때, 불완전하거나 해체될 운명을 지닌 가족들의 삶을 묘사할 때 핵심적인 중심공간으로 작동한다.

가족의 일상은 평범하다. 아기를 낳고, 갈등도 겪고, 결혼도 하고, 죽음도 맞이한다. 이러한 가족의 일대기에서 식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가족 식사’의 의미는 평범한 일상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면서, 동시에 가족 간에 존재하는 내적 갈등을 다양한 표정으로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2) 자립적이고 진취적이며 생활력 강한 제주 어머니 ‘숙자’

<어멍>에서 문희경 배우가 분한 ‘숙자’라는 캐릭터는 사실적인 제주 여성상이자 어머니상을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의 2장 제주 여성에 대한 고찰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제주 여성은 제주의 역사와 문화에 영향을 받아 독특한 여성상을 형성해 왔다.⁵⁴⁾

<어멍>에서 숙자는 대사, 어감, 어투에서도 나타나지만 그녀의 생활 방식에서도 생활력이 강한 제주 여성의 특성이 사실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숙자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본다.

을 물질 허지 맙서.
숙자 무사?
을 아픈 사람이 남들 허는 거 다 허젠 햄 수과?
숙자 아픈 사람은 남들 허는 거 다 못 허느냐?
을 어멍 생각만 말앙 아들 생각 좀 험써.

54) 본 연구 pp. 4-20 참조.

숙자, 율을 쳐다본다.

율 계나제나 바당, 일, 바당, 일! 어명은 험 줄 아는데 그거밖에 어
수과?

숙자 어, 기여. 어명 무식해 부난 바당 물질 밖에 모른다.

율, 숙자를 바라본다.

율 경 허난 아방 죽을 때도 바당에 강 물질 험디가?

숙자 무사, 아방 제초제 나가 먹여시냐? 지가 농약 먹영 죽은 아방,
무사 그것도 나 잘못이나?

율 어명이 맨날 돈 돈 허명 아방 못살게 굴어수게.

숙자 어명은 능력어신 아방 먹영 살린 죄 밖에 없져.

율, 숙자를 바라보며 서 있다.

숙자 비키라!

숙자, 율을 지나쳐 간다.

숙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능력 없는 남편과 가족을 부양하는 생활력 강한 여성이었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좌절하거나 다른 남성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그녀 스스로 가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는 본 논문에서 다룬 바 있는 제주 설화에서도 등장하는 여러 여성신의 모습을 닮았다.⁵⁵⁾ 숙자는 능력 없는 남편과 헤어지고 스스로 삶을 개척해서 자식들을 키워낸 백주또와 같은 제주 어머니의 특징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영화 <어명>에 등장하는 ‘숙자’는 제주의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많은 여성

55) 본 연구 제 2장 1절 ‘제주 설화와 제주 여성’, pp. 4-12 참조.

들에서처럼 힘든 현실에도 참고 인내하며,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으며, 강한 생활력으로 가족들을 지켜내면서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준다. 이러한 숙자의 모습은 자립적이고 진취적이며, 생활력 강한 제주여성이자 어머니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숙자’는 단순한 영화의 캐릭터를 넘어 제주 여성의 특징들을 담지하고 있는 상징적이고 역사적인 인물로 존재한다.

(3)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하는 제주 여성 ‘숙자’

본 논문의 제2장 1절에서 다룬 바 있는 ‘자청비’와 ‘가쁜장아기’ 설화에 등장하는 제주 여성은 적극적인 자아실현을 하는 여성으로 그려졌다. 자청비는 자신이 사랑하는 연인을 쟁취하기 위해 남장을 하기도 하고 서천꽃밭에 가서 생명의 꽃들을 가지고 오기도 하는 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제주 여성상을 대표한다.⁵⁶⁾ 제주 설화에 등장하는 자청비처럼 <어멍>에서 숙자 또한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숙자의 꿈은 트로트 가수가 되는 것이었다. 숙자의 꿈이 영화 표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영화 전반에 걸쳐 숙자의 꿈을 암시하는 장면들이 곳곳에 배치된다. 영화 도입부에 숙자가 거울 앞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장면(표13-1)과 항상 TV 트로트 방송을 틀어 놓고 흥얼대는 숙자의 모습들이 그것이다(표13-2, 13-3).

56) 본 연구 pp. 8-10, 제2장 제1절 2 ‘적극적인 자아실현’ 참조.

표 13. 영화 <어멍>에서 숙자의 꿈을 암시하는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p>영화 도입부 숙자가 드레스를 입고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장면</p>
2		<p>TV 트로트 방송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숙자</p>
3		<p>아들과의 갈등 후에 TV 트로트 방송을 보는 숙자</p>

하지만 숙자는 자신의 꿈을 가슴에 묻어 둔 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억척같은 삶을 살아왔다.

나가 무사 물질허래 댕기는 줄 아나? 나라고 뭐 편하게 살고 싶지 않은 줄 아나? 다 너네 때문이라. 더 너 때문이라고! 알았나? 물질 허명 돈 벌어서 아방 빛도 갓고 너네 먹영 살리고 교육도 시키고 헐거 아니냐! 아방은 죽어도 너넨 살아사지.

아들 율의 대출금을 갚기 위해 숙자가 집을 팔았다는 얘기를 들은 율이 화를 내며 따지자 숙자는 위와 같이 말을 한다. 남아 있는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숙자는 편안한 생활과 자신의 꿈을 포기하고 대신 강인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아야하는 제주 여성들의 삶과도 닮아있다. 진취적이고 생활력 강한 제주 여성의 삶 이면에는 진짜 살아보고 싶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이 놓여있는 것이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숙자는 마을 노래자랑에서 남편이 프리포즈할 때 불러줬다는 ‘동백 아가씨’를 부르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 시킨다(표 14).

표 14. 영화 <어멍>에서 숙자가 마을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부르는 쇼트

구분	쇼트	내용
1		마을 노래자랑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숙자

2		<p>마을 노래자랑에서 노래를 마친 숙자의 모습</p>
---	---	------------------------------------

‘자청비’와 ‘가문장아기’가 온갖 역경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했던 것처럼 <어명>에서 숙자 또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꿈을 실현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자아실현을 하는 모습이 담겨진 제주 여성으로서 숙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절. 영화 <어명>의 형식미학 분석

1. 관찰자적 시선과 거리두기

격동의 1960년대 미국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로 시작된 다이렉트 시네마(direct cinema)는 카메라가 마치 ‘벽에 앉은 파리’처럼 관찰적으로 촬영하는 방식이다.⁵⁷⁾

다이렉트 시네마식 촬영 기법은 영화를 지켜보는 관객들에게 보다 현장감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⁵⁸⁾ 프랑스의 저명한 사회학자 에드가 모랭은 다이렉트

57) 참조, 데이브 손더스, 『다이렉트 시네마 : 관찰적 다큐멘터리와 1960년대 정치』, 김상균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p. 5.

58) 참조, 박희태, 「픽션으로 다큐멘터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클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허구와 실재의 경계」, 『영상문화』 제20호, 2012, p. 211.

시네마의 의미를 간결하고도 정확한 표현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현실을 인식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첫 번째는 현실을 보여주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실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⁵⁹⁾

즉 다이렉트 시네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현실의 외관 뒤에 존재하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영화적 시도라고 할 수 있다.⁶⁰⁾

영화 <어멍>에서 감독은 이러한 다이렉트 시네마의 관찰자적 시점을 차용하여 숙자의 삶을 섬세하고 집요한 시선으로 잡아낸다. <어멍>에서 카메라는 거리를 둔 곳에서 숙자와 그녀의 가족들을 바라본다. 카메라는 적극적인 스토리텔러의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숙자의 삶을 관찰하는 시선을 유지하면서 감정을 강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숙자를 응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5. 영화 <어멍>에서 숙자의 감정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1		제사상 위 남편 영정자신을 바라보는 숙자

59) 위의 글, p. 212.

60) 위의 글, p. 212.

2		<p>아들의 방에서 나오는 신음 소리를 듣는 숙자</p>
3		<p>의사 면담 후 망연자실 서 있는 숙자</p>
4		<p>울에게 한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 숙자</p>

5		<p>설득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숙자</p>
6		<p>죽은 해녀 삼촌의 방을 찾은 숙자</p>
7		<p>해녀 삼촌의 장례식에서 숙자</p>
8		<p>아들과 싸운 후 앉아 있는 숙자</p>

<어멍>에 사용된 인물 감정의 표현 방식은 클로즈업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며 인물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숙자는 울이 에로 영화를 연구하는 컴퓨터에서 문 밖으로 흘러나오는 신음 소리를 들으며 참는다(표 15-2). 숙자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고 있지만 카메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지켜보기만 한다.

친하게 지내던 해녀 삼촌이 바다에서 죽었을 때(표 15-6)와 장례식 때(표 15-7)처럼 슬픔이나 안타까움 같은 감정을 보여주어야 할 장면에서도 카메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숙자가 가족들의 설득에도 암 치료를 거부하고(표 15-5), 아들과 갈등할 때(표 15-4, 15-8)조차도 숙자의 클로즈업은 배제된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숙자의 감정을 관객에게 강요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 <어멍>은 관객들에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숙자의 삶을 관찰하게 함으로써 감정이입을 시도한다.

<어멍>에서 카메라의 시선은 숙자와 울의 삶을 지켜보는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시선에 더 가깝다. 이러한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카메라는 울과 숙자의 행동과 대화만으로 그들의 삶을 옆에서 지켜본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발생하게 하려는 분명한 의도가 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그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기쁨·슬픔·안타까움 같은 감정들이 생긴다. <어멍>은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숙자와 울의 삶을 지켜본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서 감정을 느끼도록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이러한 거리두기는 숙자의 삶과 그녀의 가족을 관조하는 시선이다.

<어멍>을 보는 관객들은 제주 해녀로서, 제주 어머니로서, 살아가는 숙자의 삶을 이웃으로서 지켜보는 경험을 한다. 그것은 타자화 된 제주 여성의 삶이 아닌 같은 ‘이웃’으로서 지켜보는 새로운 경험이다. <어멍>에서 사용된 이러한 표현 방법은 제주 여성의 삶을 현실적이고 사실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2. 사실적 시간과 공간의 재현으로서의 롱 테이크

영화 <어멍>에서 롱 테이크는 숙자의 삶을 관찰하고, 그녀의 내적 정서를 드러내며, 제주의 문화와 풍광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기 위해 사용한 중심적인 영상언어이다.

표 16. 영화 <어멍>에서 롱 테이크 방식으로 촬영 된 숙자의 쇼트들

구분	쇼트	내용	길이
1		남편의 제사를 지내는 장면	38초 (원 씬 원 컷)
2		올에게 해녀 공연 끝날 때 까지 운전부탁을 하는 장면	1분 53초 (원 씬 원 컷)

3		치료를 설득하는 가족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숙자	1분 43초 (원 씬 원 컷)
4		남편 제사 후 음복 장면	1분 06초 (원 씬 원 컷)
5		율에게 시나리오 작가 일을 하지 말라고 대화하는 장면	1분 50초 (원 씬 원 컷)
6		율과 혜녀 공연장 가는 차 안에서 옛날이야기를 하는 장면	2분 30초 (원 씬 원 컷)

7		동네 노래자랑에서 마지막 노래를 부르는 숙자	2분 00초
8		아버지 산소 별초 후 읍과 대화하는 장면	1분 00초
9		숙자의 마지막 물질 장면	57초 (원 씬 원 컷)

영화는 제주의 문화와 정서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컷이 구분 되는 장면 보다 사실적인 표현 방법으로써 롱 테이크 장면이 중요하게 사용된다.

제주의 제사 장면(표 16-1)에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도 철없이 절을 하는 손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숙자를 길게 보여줌으로써 현장감과 사실감을 살리고 있다.

가족들이 숙자에게 암 치료를 받을 것을 설득하는 장면(표 16-3)에서 또한 심각한 대화가 오고가고 서로의 감정이 충돌하고 있지만 카메라는 담담히 거리를 두고 바라본다. 그리고 컷 구분 없이 이들의 대화 장면을 길게 지켜본다. 그러는 중에 손자들이 장난을 치며 방으로 들어오고 당황한 사위는 아이들을 밖으로 내몬다. 할머니의 죽음이 다가오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아랑곳하지 않는 어린 아이들의 천진함은 이 영화에서 아이러니한 웃음을 선사한다.

표 16-1과 2, 4의 장면에서 사용된 롱 테이크 장면은 앞에서 설명한 ‘가까운 이웃’으로서 거리두기 방식과 동일선상에 있다. 숙자의 상황을 약간의 거리를 둔과 동시에 끊임 없이 길게 지켜보는 것은 관객에게 숙자와 이들 가족의 삶을 지켜보는 ‘이웃’으로서 현장 상황에 동참하게 한다.

관객들을 숙자의 ‘이웃’으로써 지켜보게 하려는 감독의 일관된 의도는 나머지 롱 테이크의 장면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율이 숙자를 해녀 공연장으로 데려다 주는 차 안에서 옛날이야기를 한다(표 16-6). 율이 초등학교 입학식 때 여자 아이 코를 물어버렸던 일, 율의 아버지가 숙자에게 꽃을 선물했던 기억, 율이 받았던 상자 이야기 등을 하며 공연장으로 간다.

관객은 율과 숙자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그저 뒷좌석에 앉은 이웃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을 뿐이다. 실제로 관객은 달리는 차 앞에 위치해서 운전하는 사람과 그 옆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다. 오히려 뒷좌석에 앉아서 앞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사실적이며 현실적이다.

카메라는 뒷좌석에 앉아 있는 만큼의 거리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끊임 없이 가만히 지켜본다. 관객은 대화 하는 숙자와 율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이야기 내용에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차 유리 앞으로 보이는 제주의 풍광들을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장면들과 숙자의 노래자랑을 지켜보는 장면(표 16-7)은 실제 노래 자랑 행사 관객석 자리에서 지켜볼 수 있을만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숙자와 율이 아버지 산소 별초를 다녀오는 무발 장면(표 16-8)과 숙자가 마지막 물질을 하는 장면(표 16-9) 또한 보통의 사람이 그 자리에서 지켜볼

만한 위치에 자리 잡은 채 커트의 구분 없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이들을 바라보게 만든다. <어명>에서의 이러한 현실적인 카메라 위치와 길게 바라보기는 관객들에게 현장감을 줄 수 있는 장치다.

타르코프스키는 쇼트 안에 흐르는 시간의 리듬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쇼트의 충돌에 의한 새로운 의미 생성에 중점을 둔 몽타주 이론에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었다. 이미 시간의 흐름과 리듬을 내포한 쇼트를 잘라내어 다른 리듬의 시간과 접붙이는 몽타주가 마치 직경이 다른 파이프를 연결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영화의 본질에 어긋난 것으로써 그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미학적 해법이였다. 오히려 한 단위의 화면, 즉 쇼트 내에 흐르는 농축된 시간의 흐름과 리듬을 통해 의미가 전달 되어야한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농축된 시간의 리듬을 미장센에 충분히 담기 위한 타르코프스키만의 미학적 해법이 바로 롱 테이크의 사용이다.⁶¹⁾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대부분은 다수의 롱 테이크 쇼트를 지니고 있다. 특히 <향수>에서는 장장 8분 30초에 이르는 롱 테이크가 사용된다. 주인공 ‘고르차코프’가 바람에 꺼지려는 촛불을 가슴에 품고 온천의 끝과 끝을 오가는 시퀀스는 타르코프스키가 롱 테이크 형식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미학의 전형이다. 관객은 ‘고르차코프’가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며 결국 촛불을 꺼트리 지 않고 온천의 양끝을 관통할 수 있을지 숨을 고르며 쇼트에 빠져들고 마침내 손끝으로 벽을 짚으며 심장마비로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이 8분간의 구원 의식에서 함께 해방된다.⁶²⁾

61) 참조, 하준수,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미장센에 내재된 회화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권 1호, 2018, pp. 589-590.

62) 참조, 위의 글, p. 590.

표 17. 타르코프스키의 영화 <향수>의 롱 테이크 시퀀스 쇼트

구분	쇼트	내용
1		8분 30초로 가장 긴 롱 테이크 쇼트
2		8분 30초로 가장 긴 롱 테이크 쇼트

만일 이 시퀀스가 몽타주 이론에 의한 연속편집으로 제시되었다면 사건의 이해는 가능하겠지만 의식이 진행되는 농축된 심리적·물리적 압박감은 소실될 수밖에 없다. 결국 타르코프스키에게 있어 롱 테이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미학적 수사법이다. 첫째 쇼트가 길면 길수록 사건 속에 흐르는 시간을 단절 없이 전달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사건(인물의 행위, 공간의 기록, 사물의 포착 등)을 연결하여 다층적 의미로 충전된 시퀀스를 만들 수 있다. 둘째 타르코프스키 자신에게 있어 영화예술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순수한 현실의 순간을 영화 매체 속에 봉인하여 디제시스의 실질 시간을 관객으로 하여금 생생하게 경험케 하는 효과가 있다.⁶³⁾

<어멍>은 이러한 롱 테이크 방식의 촬영 기법을 주로 사용함으로써 사실적인 장면을 구현하고자 한다. 사실적인 장면의 구현은 제주를 보다 현장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제주 여성의 진실 된 삶에 다가갈 수 있다.

3. 사운드와 이미지의 대위법적 사용

움직이는 이미지들과 소리(사운드)들을 가지고 하는 글쓰기⁶⁴⁾

로베르 브레송은 자신이 저술한 시네마토그래프라는 책에서 영화, 즉 시네마(cinema)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시네마토그래프(cinématographe)라는 개념을 창시하고 그 개념을 위와 같이 정의했다.

위의 말에서처럼 브레송은 이미지들과 더불어 ‘소리(사운드)’가 영화예술에 있어서 본질적인 요소라고 생각했다. 브레송에게 사운드는 덜 직접적이면서도 보다 풍부하게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는 도구였다. 브레송은 일상에서 들을 수 있는 평범한 소리들이 몽타주 된 이미지와의 결합을 통해 낯설고 새로운 의미로 변형 시키는 시도를 했다.⁶⁵⁾

브레송이 사운드의 일부로서 현실의 소리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했던 이유는 생활 속 소리가 갖는 자연스러움 때문이다. 배우가 내뱉은 대사에 비해 일상의 소리들은 우연적이고 가치중립적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라든지 개가 짖는 소리, 차가 지나가는 소리 같은 일상의 소리들이 영화 사운드의 주재료로 사용되었을 때 영화의 청각적인 느낌이 인위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브레송은 일상의 소리들이 주는 자연스러움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역설적으로 그러한 소리들을 장면의 의도에 맞게 재배치했다. 일상적 소리가 주는 자연스러움

63) 참조, 위의 글, p. 590.

64) 로베르 브레송,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단상』, 오일환·김경은 옮김, 동문선, 2003, p. 20.

65) 참조, 민용근, 「브레송의 시네마토그래프적인 연출에 대한 실천적 연구-단편영화 <자전거 도둑>과 <고양이 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p. 53.

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리를 통해 리듬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런 리듬의 창조는 이미지와의 조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브레송은 이미지와 사운드가 서로 방해받지 않고 각기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⁶⁶⁾

영화 <어명> 또한 제주의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담아내는 것과 동시에 사운드를 중요한 요소로 사용하고 있다.

<어명>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죽음’이다. 숙자는 암이 재발해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숙자의 남편은 오래 전에 자살 했으며, 숙자와 사이가 좋았던 헤너삼촌은 바다에서 물질 하다가 죽는다.

표 18. 영화 <어명>에 등장하는 죽음의 이미지들

구분	쇼트	내용
1		숙자의 남편 제사상
2		애란이 수집하는 죽은 나뭇가지

66) 위의 글, p. 54.

3		해녀 삼촌의 무덤
---	---	-----------

영화는 숙자의 죽음을 향해 흘러가고 영화 곳곳에 죽음을 의미하는 이미지들(표 18)이 자주 등장한다. <어멍>은 죽음을 다루는 영화이지만 죽음의 비극을 암울하게 다루지 않는다. 죽음을 강조하지 않고 슬픔을 강요하지 않는다.

감독은 관객이 숙자의 죽음을 예견하지만 슬퍼하지 않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숙자의 삶에 연민을 가지지 않기를 의도한다. 그저 삶의 일부, 일상으로서의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하고자하는 의도가 깔려있다.

그것은 제주 여성들, 특히 해녀들의 삶과 죽음에 대한 철학과도 연관이 있다. 해녀들은 하루에도 수 십 번 물질을 하면서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 일을 하다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직업을 가진 여성의 숙명인양, 해녀들은 죽음을 비극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멍>은 이러한 제주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를 대위법적 사운드의 활용을 통해 그려내고자 했다. 이미지에서 전달하려는 내용과 사운드가 부합하는 경우를 ‘화성법’,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대위법’이라고 한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지와 사운드가 부합하여 자연스럽게 내러티브를 이끌어간다고 볼 수 있으나 극적인 반전, 강렬한 인상 등을 위해 ‘대위법’이 쓰이기도 한다. 이 경우 사운드와 이미지간의 몽타주가 일어남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⁶⁷⁾ 본 연구자는 이러한 대위법적 특징을 이미지와 사운드의 충돌로 표현한다.

67) 참조, 김정선, 「이미지와 사운드의 대위법적 재현-음성공학 프로그램 프랏(pratt)의한 계량적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3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pp. 7-8.

(1) 희극적 사운드

영화 <어멍>에서 감독은 죽음을 암시하는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들에 의도적으로 희극적인 사운드를 배치하였다. 희극적인 사운드가 비극적인 내러티브와의 배치가 부조화스럽지 않은 것은 숙자의 일상이 비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숙자는 죽음을 받아들이고 암 치료를 포기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일을 놓지 않는다. 물질을 나가고 해녀 동료들과 놀러가고 해녀 공연을 끝마치려고 한다. 즉, 그녀가 암에 걸렸다고 해서 일상이 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율과 가족들에게, 혹은 관객들에게는 고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그녀만의 철학이다. 그러한 숙자의 삶과 죽음에 대한 태도는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영화적 아이러니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한다.

암이 재발한 상황에서도 숙자는 해녀 공연을 가겠다고 고집을 피운다. 아들 율은 그녀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차로 공연장까지 데려다 준다. 차 안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숙자는 당당하게 방귀를 똥다. 방귀소리와 냄새에 놀란 율은 차 창문을 내린다(표 19-1). 병 때문에 자주 방귀가 나오는 상황에서도 숙자는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는다. 숙자가 차 안에서 방귀를 똥자 짜증을 내는 아들에게 “난 너 얘기 때 네 똥도 먹었다”며 오히려 아들을 혼낸다. 방귀는 숙자의 병 때문에 생기는 아픔의 소리지만 심각하고 어두운 상황에서 예기치 않게 들리는 희극적인 방귀소리로 인해 대위법적 충돌이 일어나고 관객들에게는 아이러니한 웃음을 유발한다.

이 외에도 암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숙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한 아들 율이 자신의 직업이자 꿈인 에로티시즘 감독에 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노트북을 들여다보는 장면에서 섹스를 하는 남녀의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거나(표 19-2), 죽음을 앞둔 숙자의 마지막 해녀 공연을 보러간 율이 숙자의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도 활기차고 밝은 민요가 흘러나온다(표 19-3).

이렇듯 어둡고, 죽음을 암시하는 이미지에서 사용되는 희극적 사운드들은 영화 전반에 걸쳐 곳곳에 배치되고 있다.

표 19. 영화 <어멍>에서 어두운 이미지와 희극적 사운드의 충돌 시퀀스들

구분	화면	장면설명	사운드	비고
1		윤이 숙자를 해녀 공연장에 데려다 준다. 병 때문에 방귀가 자주 나온다고 말하는 숙자.	숙자의 방귀 소리 차 창문을 내리는 소리	음악 미사용
2		숙자 설득에 실패한 윤이 일을 하려고 하지만 집중하지 못 한다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예로 영화 신음 소리	음악 미사용
3		숙자의 마지막 해녀 공연	제주 전통 민요 '멜 후리는 소리'	음악 미사용

		숙자의 마지막 해녀 공연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율	제주 전통 민요 '멜 후리는 소리'	음악 미사용
--	---	--------------------------------------	------------------------------	-----------

(2) 트로트 음악

숙자는 트로트를 좋아하는 캐릭터다. 젊을 때 가수를 꿈꿨으나 현실적인 삶에 부딪쳐 꿈을 포기하고 해녀로서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다. 힘겨운 물질을 하며 한량인 남편과 철없는 아들을 키웠다. 그녀의 유일한 즐거움은 트로트 방송을 보며 노래를 흥얼거리는 것이다.

율과 병원에 같이 다녀 온 후 암 치료를 거부한다는 소식을 처음 접한 율에게 해녀 공연 끝날 때까지 운전을 해달라고 천연덕스럽게 부탁을 한다. 이런 미묘하고 심각한 상황에서도 숙자와 율은 트로트 가수의 흥겨운 공연을 보고 있다(표 20-3). 그리고 숙자가 율이 사기 맞은 돈을 메꾸기 위해 집을 팔아버린 후 화를 내는 율에게 자신이 살아온 삶이 전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는 말을 하는 상황에서도 TV에서는 희화된 트로트 소리가 흘러나온다(표 20-1).

심각한 상황에서 흘러나오는 자칫 경박하고 민망하게 들릴 수도 있는 트로트 노래 소리는 영화적 아이러니를 형성함으로써 비극적 톤을 완화 시킨다. 비극적 상황과 이질적 사운드의 배치를 통해 숙자의 일관된 캐릭터를 부여함과 동시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아무 일 없이 일상을 살아가는 숙자의 삶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 결국 트로트는 영화 후반 숙자가 '동백 아가

씨'를 무대에서 직접 부름으로써 가수로서의 꿈을 이루고 그녀의 삶을 완성한다(표 20-2).

표 20. 영화 <어명>에서 사용된 트로트 음악 사운드 쇼트들

구분	화면	장면설명	사운드	비고
1		숙자가 집을 팔아 버리고 울과 숙자는 아버지 죽음을 얘기하며 크게 싸운다.	TV에서 나오는 트로트 노래 소리	음악 미사용
2		마을 노래자랑에서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숙자	동백 아가씨 노래 소리	음악 미사용
3		암 치료 거부한 숙자와 울이 멍하니 TV를 본다.	트로트 방송 여가수의 흥겨운 트롯 노래 소리	음악 미사용

(3)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명>에서 사용된 비극적 내러티브 속의 사운드 중 또 다른 하나는 아이들의 소리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죽음의 반대편에 있는 존재로서 기능한다. 영화에서 엄숙한 제사 시간임에도 어린 손자들은 웃고 떠들기 바쁘고(표 21-1, 21-2), 숙자의 죽음을 동생 가족에게 전달하는 상황에서도 누이는 울지만 그것을 모르는 아이들은 해맑게 깃발을 휘두르며 길을 건넌다(표 21-3). 그리고 숙자의 고집 때문에 괴로워하는 율과 매제의 대화 장면에서는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소리가 나오며(표 21-4) 암 치료를 거부하는 숙자를 설득하는 가족들의 모임자리에서도 어린 손자들은 웃고 뛰어 논다(표 21-2).

<어명>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개연성과 현실성을 부과한다. 동시에 죽음이라는 심각하고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행동과 소리를 배치함으로써 영화적 아이러니를 연출하고 있다.

표 21. 영화 <어명>에서 사용된 아이들의 웃음소리 시퀀스들

구분	화면	장면설명	사운드	비고
1		숙자의 남편 제사 장면	(off sound) 아이들 웃음소리	음악 미사용

2		아이들이 철없이 절을 한다.	아이들의 소리	음악 미사용
2		암 치료를 거 부하는 숙자를 설득하며 갈등 하는 가족	아이들이 웃음소리 장난치는 소리	음악 미사용
3		울이 숙자의 암 재발 소식 을동생과 매제 에게 전하는 장면	아이들이 떠들며 지나가는 소리	음악 미사용
4		울이 사기를 당하고 돈을 빌려준 매제가 난감해 한다	놀이터에서 시끄럽게 웃으며 떠드는 아이들 소리	음악 미사용

<어멍>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죽음을 이야기하며 감정을 불러 일으켜야 하는 장면들에서도 음악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음악을 최대한 자제하고 일상의 소리들을 활용함으로써 비극 속에서 희극적인 소리들로 화학작용을 일으키고 그것이 영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한다.

일상의 소리들은 상황이 비극적이라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가족끼리 심한 말을 하며 싸우고 있는 상황이라도 TV에서는 흥겨운 트로트가 흘러나오는 것이 현실적인 삶이다. <어멍>은 그런 사실적인 삶을 사운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음악을 통해 현실을 가공하지 않은 것이 영화의 사실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운드의 활용은 제주 여성의 삶과 죽음의 희·비극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는데도 주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및 정리

제주도는 독특한 자연환경만큼이나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설화에서부터 생활양식이나 언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독특한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한 제주도의 자연·문화 환경에 영향을 받은 제주 여성은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여성상을 형성해 왔다.

본 연구는 제주도 여성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 될 수 있는지를 독립 장편 영화 <어명>을 통해 알아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각종 문헌과 자료를 통해 제주 여성의 특징이 무엇인지 고찰해보고 그러한 특징들이 제주 여성을 다룬 한국 영화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는지 사례를 연구했다. 이러한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독립 장편 영화 <어명>의 제주 여성상에 대한 영화적 재현방식을 연구하며, 그러한 영화적 재현 방식이 향후 제주도를 포함한 지역 여성들을 영화화 할 때 적용할 수 있게 하자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주도 여성의 특성은 제주 설화에서도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신화 중에 하나는 설문대 할망 신화다. 설문대 할망은 한반도에서 찾아볼 수 없는 형태의 창조 여신이다. 여성이 주인공인 신화 자체가 드물 뿐더러 창조 신화의 주인공이 여성인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만큼 설문대 할망 신화는 제주 여성이 남성의 조력자 역할이 아닌, 주연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제주 여성상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자청비는 농경의 여신으로써 사랑을 찾아 적극적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 여인이다. 이러한 자청비, 가문장아기 설화에서 등장하는 여성들은 자아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도 남성에 의존적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백주또 신화에 잘 나타난다. 이렇듯 제주도에서는 여신이 많이 등장하고 그 여신의 역할은 남신 못지않은 동등한 위치로 표현된다. 그만큼 제주도에서 여성의 역할이 남성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남성보다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제주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상을 탈피하고 주체적·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제주 여성만의 여성상을 구축한 점은 여러 가지 문헌에서도 살펴 볼 수 있다. 1920년대 제주도를 찾은 한 일본인의 기록한 글에서는 제주 여성이 육지의 여성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고 있다. 외국인이 보기에도 한국의 여성들은 유교 사상에 영향을 받아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태도를 보이지만 제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녀들만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고 인식한 것이다.

또한 역사에 기록된 제주 여성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남성과 동등하게 지역방위를 책임진다거나 제주 주민이 굶주림에 허덕일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구휼을 하는 김만덕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전문직 여성 집단인 해녀들이 항일 투쟁을 했던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제주 여성은 생존을 위한 노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국가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했다.

제주도는 농사를 짓기 척박한 땅이었기에 생존을 위해서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다. 남녀의 역할을 확연하게 구분했던 전통적인 도덕 체계 하에서는 제주도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이다. 제주 여성은 남성과 동등하게 농사일을 하고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한 환경에서 남성은 여성을 무시할 수 없었다. 동등한 경제 주체자로서 여성의 역할이 인정되었다.

그러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제주 여성은 남성에 의존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 전통적인 유교사상에서의 여성은 남성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고 남성에 종속된 삶을 살았다.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제주 여성은 남성이 멀어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다른 지역의 여성들과는 달랐다. 제주 여성은 가부장적 질서를 거부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성상의 모습을 만들어 갈 수 있었다.

제주의 설화와 각종 문헌을 종합해보면 제주의 여성상은 남성에 종속되지

않는, 주체적·능동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사는 여성으로 규정 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제주 여성상이 한국 영화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표현되었는가는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다.

한국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 자체가 드물지만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영화는 더욱 드물다. 그 중에서 사례를 연구할 대상은 창 감독의 <계춘할망>과 오멸 감독의 <인어전설>이다.

<계춘할망>은 제주 해녀 할머니가 주인공이며 제주도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한 영화다. 이 영화에서는 제주의 전통 가옥과 돛 통시라고 불리는 제주 전통의 화장실, 올레길, 제주 전통 무덤 방식, 잠수 곳 장면, 해녀 물질, 오름 장면 등 제주적인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 영화는 제주 여성을 주연으로 내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 방언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제주 여성상을 재현하는데 있어 사실적인 면에서 한계를 보인다.

<인어전설>은 제주 출신 감독이 제주 여성의 삶을 영화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제주적인 로컬 영화라고 할 수 있다. 오멸 감독은 전작에서도 제주의 리얼한 삶을 사실적이고 유쾌하게 구현해 낸 감독이다. 그것은 감독이 제주 출신으로서 제주의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 영화 또한 제주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장면들이 많이 등장한다. 주·조연 대부분을 제주 배우들로 구성함으로써 사실적인 제주 방언을 사용할 수 있었고 그것은 제주 지역의 리얼리티를 형성 할 수 있었다. 그리고 한량한 남성들의 모습, 생활력 강한 제주 여성의 모습들을 묘사하거나 제주 무속 장면을 표현함으로써 현실적인 제주의 보편적인 문화들을 영화적으로 담아냈다.

독립 장편 영화 <어명>은 본 연구자의 작품으로써 2017년 제주도 로케이션으로 촬영을 한 작품이다. 본 연구자는 <어명>이 제주 여성을 주인공으로 해서 제주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관객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목표였다. 그래서 제주 출신 배우인 문희경씨와 여성옥을 주인공으로 캐스팅했으며 영화의 사실성을 확보함으로써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제주 여성상의 모습을 재현하고자 했다.

첫째, 주인공 ‘숙자’ 캐릭터의 사실성을 위해 현실적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입히고자 했다. 남성에게 의존적이지 않으며 주체적·능동적인 제주 여성상으로서의 숙자는 <어명>의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표현된다. 한량 남편과 가족을 부양하는 여성으로서, 남편이 죽었지만 역세계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여성으로서의 모습 등이 숙자의 캐릭터를 형성한다. 또한 항상 밝은 옷을 입고 물질할 때도 화장을 하는 등 숙자의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도 제주 여성다운 모습을 구현한다.

둘째, 사실적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카메라는 관조적 시선을 유지한다. 이것은 거리두기의 기법으로써 격한 감정이나 갈등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도 클로즈업의 사용을 배제하고 일관되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재현 방식은 관객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의 체험을 제공한다. 숙자의 이웃으로서 숙자의 삶을 지켜보는 관객은 현실적·사실적인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이 영화의 사실성을 확보한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셋째, 롱 테이크 방식의 촬영으로 사실성을 구현한다. <어명>의 많은 시퀀스들이 롱 테이크 방식으로 촬영 되었다. 롱 테이크는 컷을 구분하는 방식에 비해 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이는 거리두기 방식과 함께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제주 여성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목표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넷째, <어명>은 비극적인 내러티브 속에서도 희극적인 사운드를 접목함으로써 독특한 영화적 톤을 만들어낸다. 숙자와 울의 갈등 장면에서의 트로트 노래의 활용, 죽음을 이야기 하는 심각한 장면에서 흘러나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무거운 내적 갈등 상황에서 나오는 에로 영화 장면 소리 등 내러티브에 어긋난 이질적인 사운드의 의도적인 결합으로 <어명>만의 독특한 영화 톤을 형성한다. 이러한 사운드는 숙자의 캐릭터와 연결되기도 하며,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사운드로 활용하기 때문에 숙자의 삶이 더욱 사실적으로 표현된다.

제2절. 제언

감독은 제주에서 살아온 남성으로서 바라본 제주 여성의 모습을 <어멍>을 통해 영화적 언어로 표현하고자 했다. 하지만 <어멍>을 제작함에 있어서 ‘왜 지금 제주 여성의 이야기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현실과도 연관이 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젠더 이슈가 사회적 문제화 되고 있다. 여성혐오, 남성혐오가 범죄로 이어지고 온·오프라인에서 남·녀가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사회를 오랫동안 지배해온 남성중심의 이데올로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다. 시대가 변하면서 잠재되어왔던 여성들의 욕망이 현실로 분출되고 그것을 막는 남성들 간의 권력투쟁으로 변질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제주 여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남성 중심 이데올로기 사회에서도 남성과 동등한 위치에서 살아왔다. 제주 여성의 삶은 이 시대 여성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닮아 있다. 제주 여성은 그만큼 앞서 간 삶을 살았던 것이다.

이 시대에 제주 여성의 삶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감독에게 의미 있는 작업이었고 한명의 영화인으로서 의무로도 느껴졌다. <어멍>은 제주의 진짜 모습과 제주 여성을 영화적으로 재현하고자 시도했고 그 방식 또한 사실성에 기반 한 고민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물론 모든 영화들이 사실성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지는 영화들은 지역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 지리, 방언 등 지역의 특징들 더 많이 연구하고 그것을 영화적으로 표현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한다.

<어멍>은 제주 출신의 감독과 배우들, 제주도 올 로케이션, 제주 지역 프로덕션 자본으로 이루어진 토종 지역 영화다. 하지만 지역 영화라는 개념 자체가 영화적 장르로서 구분이 모호한 지점이 있다. 지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지역 영화라고 할 수도 없고 지역에서만 촬영했다고 해서 지역 영화라고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지역 영화에 대한 장르적 모호성 때문만이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 지역 영화를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 지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

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어멍>을 지역 영화라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제작·연구를 진행한 것은 한국 영화계에서 지역 영화 제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하는 데 있다.

제주도라는 독특한 환경 때문인지 타 지역 여성들과는 다른 매력을 가진 제주 여성은 영화적 소재로 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제주 여성을 소재로 한 영화는 드물다. 있다고 하더라도 제주 여성을 피상적으로 그리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제주 지역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세상에 알려진 만큼으로만 표현 될 뿐 깊은 고민과 연구로 만들어진 캐릭터는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 표현되는 제주 여성 캐릭터에 공감하지 못하고 표피적으로 소비되고 사라지는 것이다.

<어멍>은 다른 영화에 비해 제주 여성에 대해 좀 더 깊이 다가가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어멍>은 제주 여성을 신기한 직업을 가진 해녀로써만 단순하게 소비하지 않는다. 제주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속자라는 캐릭터에 적용하고 제주 여성의 삶과 죽음에 대한 담론을 영화적 틀 속으로 집어넣기를 시도한다. 그러한 시도가 가능했던 이유는 감독과 배우, 조력자들이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이를 제주도라는 지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국으로 확장해본다면 우리나라 지역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들에도 충분히 영화적 소재나 주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어멍>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제작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어멍>이 지역 여성을 영상 언어로 표현하는데 교과서가 될 수는 없겠지만, 하나의 사례로서 <어멍>이 제주의 여성을 다루고 있는 방식을 참고하면서 지역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다룰 때 좀 더 확장하고 깊이 다룰 수 있는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영화 제작인들은 지역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는 당사자들이므로 지역의 다양하고 깊은 문화적 담론들을 영화로 제작하여 관객들과 소통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중앙에서 영화를 제작하는 영화인들의 관심을 지역으로 돌린다면 지역 영화인과의 협업을 통해 진정성 있고 참신한 영화적 소재들을 찾을 수도 있다. 지역 영화

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과 중앙의 자본·인프라가 결합된다면 지역에서도 충분히 참신하면서도 깊이 있는 영화를 제작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앙에만 집중되어 있는 영화 인력들을 지역으로 분산 시킬 수 있는 방안과 지역에 숨겨져 있는 영화적 소재 발굴을 독려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역 영화 제작이 활성화 된다면 지역 정치·경제·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단행본>

김순이, 『제주여성의 삶과 공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특별위원회, 2007.

김정숙, 『자청비 가문장 아기 백주또-제주신화 그리고 여성』, 2002.

김태희, 『영화 이론과 연출-뤼미에르에서 미국드라마까지-』, 도서출판 만남, 2008

데이브 손더스, 『다이렉트 시네마 : 관찰적 다큐멘터리와 1960년대 정치』, 김상균 옮김,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로베르 브레송, 『시네마토그래프에 대한 단상』, 오일환·김경은 옮김, 동문선, 2003.

문순덕, 『제주 여성 속담의 미학』, 민속원, 2012.

미셸 메닐, 『미조구찌 겐지의 영화세계』, 김태원·박경사 옮김, 현대미학사, 1998

이영권, 『새로 쓰는 제주사』, 휴머니스트, 2005.

제주국제협의회 공편, 『21세기 제주 사회와 여성』, 도서출판 오름, 2005.

제주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제주도, 2001.

제주여성특별위원회, 『제주여성 무형문화재의 생애 전통맥향』, 제주도, 2007.

<논문>

- 강소전, 「제주도 감수굿의 의례형태와 의미」, 『해녀 연구총서 2』, 학교방, 2014.
- 고희주, 「제주 설화의 교육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 김경애, 「김만덕 삶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 『21세기 제주사회와 여성』, 도서출판 오름, 2005.
- 김경희, 「제주 지역 여성 이미지의 탐독-대안적 페니스트 지리학의 모색」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7.
- 김기창, 「국어과 교육에서의 구비문학 제재 수용 양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1.
- 김영순, 「‘강인한 제주 여성’ 담론에 관한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 NGO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3.
- 김은정, 「자청비 설화의 스토리텔링 연구-이명인과 김달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정선, 「이미지와 사운드의 대위법적 재현-음성공학 프로그램 프랏(pratt)의한 계량적 분석」, 『미디어, 젠더&문화』 제31호,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 김정숙, 「제주도 신화 속의 여성 원형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희경, 「미조구치 겐지의 여성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 문정미, 「가족 서사와 공간 재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집』,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2019.
- 민용근, 「브레송의 시네마토그래프적인 연출에 대한 실천적 연구-단편영화 <자전거 도둑>과 <고양이 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박희태, 「픽션으로 다큐멘터리를 넘어서기 위한 시도-〈클라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허구와 실재의 경계」, 『영상문화』 제20호, 2012.
- 이재숙, 「제주 당신본풀이 백주또 신화의 공동창작 연극 스토리텔링」,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이정희, 「탈가부장 사회를 지향하는 모성 리더십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2012.
- 장덕순, 「한국 설화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71.
- 최희선, 「방언 교육의 이해와 실제」,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6.
- 하준수, 「타르코프스키 영화의 미장센에 내재된 회화성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19권 1호, 2018

<언론>

제주일보, '올해 제주 찾은 관광객 1000만 돌파', 2018. 9.12일자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719>

제주의 소리, 2018년 11월 14일자, <http://www.jejusori.net>

International bnt NEW KOREA, 문희경 “영화 ‘어머’ 아들役に 제주출신 어성욱 직접
추천, 모자 연기 케미 좋아”, 2019. 1. 2, <http://bntnews.hankyung.com/>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nso.go.kr>)



부록 : <어멍> 시나리오

프롤로그. 숙자의 집_방안 / 낮

블랙화면에서_

숙자가 트로트를 흥얼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숙자 (소리) 헤에에일 수 없이 수 많은 바암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
에 겨어어워 어얼마나 울어있더언가... 도옹배액 아! 가아아씨이
이...

화면이 밝아지면,

트로트 가수를 흉내 낸 어설픈 화장과 반짝이 드레스를 입은 숙자.

숙자가 거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숙자 (과도한 감정)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갱게 멍이
들었소..

1. 바다 / 낮

인서트 > 화사하게 핀 동백꽃들.

휘이익-

숨비소리가 들려온다.

CUT TO >

자맥질을 하는 해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숙자, 물속에서 나와 길게 휘파람을 분다.

2. 울의 원룸 / 밤

조그마한 소반 위에 올려진 핸드폰 사진.

핸드폰 사진은 율의 아버지 영정사진을 찍은 사진이다.
사진 앞에는 양념반 후라이드반 치킨이 올려져 있다.
율, 술을 따라 사진 앞에 올려놓고, 두 번 절을 한다.

CUT TO >

친구가 소반 앞에서 절을 한다.

3. 숙자의 집_방안 / 밤

고기적갈, 옥돔구이, 동태전, 버섯전, 상에떡, 한라봉, 고사리나물, 소라꼬치 구이, 성계국, 흰쌀밥...
층층이 정성스럽게 쌓은 음식 접시들이 제사상 위에 올려지고.
상 중간에 올려놓은 율의 아버지 영정사진.
혁수와 은희가 절을 한다.
혁수가 어린 아이들을 억지로 끌고 와 절을 시킨다.
아이들이 배를 바닥에 깔며 절을 한다.

4-A. (3썸 연결) 율의 원룸 / 밤

율의 아버지 영정사진이 뜬 핸드폰 사진이 소반 위에 있다.
술과 치킨을 먹으며 앉아 있는 율과 친구.

율 (진지하게) 에로티시즘...

친구, 진지한 표정으로 율의 이야기를 듣는다.

율 (진지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바로 섹스.. 이 기본적인 욕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멸종되지 않고 살아왔다는 거지.

친구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율 근데, 왜! 사람들은 왜! 섹스라는 말만 꺼내도 더럽다, 변태다, 징그럽다..왜? 왜 피하냐고!

친구 (진지하게 닭다리를 뜯어먹는다)

울 난, 포르노를 하는게 아니다! 에로티시즘 예술이란 말이다.

친구, 진지하게 울의 말을 들으며 입안에서 우물우물 닭뼈를 발라낸다.

울 알겠냐? 이 위대한 에로티시즘 거장의 말을?

하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한 것 같은 친구가 닭뼈를 뱉어낸다.

4. 숙자의 집_거실 / 밤

제사상에 있던 음식들이 상 위 다른 접시에 놓여 있다.

혁수 헤헤...열시에 제사허난 좋다예? 장모님 생각 잘해수다.
요즘 열두시에 제사허는디 어수다. 열시에 제사 허니까 얼마나
좋으파?

은희 요즘은 다 아홉시에 허는 추세라.
직장 있는 사람 출근도 해야하는디 변하는게 당연한 거주.

혁수 헤헤..그렇지, 맞아. 맞아.

혁수, 말을 하면서도 계속 숙자의 심기를 살핀다.
숙자는 표정 변화 없이 밥을 먹고 있다.

혁수 (고기적을 먹으며) 이거 숯불에 구운 거파?

숙자

혁수 아버님이 고기적은 정말 잘 해신디예? 참기름 발라가명...

숙자, 자리에서 일어나 상을 치우기 시작한다.

숙자 (괜히 접시를 치우며) 다 먹어져시믄 혼저 가라. 내일 출근 안 헐
거냐?

은희 우리가 알양 갈꺼난, 저들지 맙서.

혁수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장모님 앓읍써.

일년에 한번 이신 제산디 같이 앓양 아버님 얘기도 허고 해사주.

혁수가 일어나 숙자를 끌어안고 온다.

혁수 장모님... 병원에는 이제 안 가시는 거지예?

(소리) 어영차 어영차 배를 저어라...우리 어멍 무사 날 낳앙 이어 사나 이어 사나..

5. 해녀 박물관_공연장 / 낮

누군가가 선창을 하면 해녀들의 메기는 소리 이어지고.

해녀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전통 해녀 복장을 입은 아녀자들이 표주박을 두드리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른다.

숙자가 그녀들 가운데서 공연을 하고 있다.

6. 숙자의 집_밖거리 방안 / 낮

노트북에서 흘러나오는 남녀의 신음소리.

화면을 유심히 바라보는 율.

CUT TO >

율, 전화 통화를 한다.

(염감독) ... 언제까지 쓸 수 있어?

율 빨리 써야 되는 거예요?

(염감독) 투자자가 성격이 급해.

율 그럼.. 뭐 빨리 써야죠.

(염감독) 어머니 집에서 쓸거야?

율 지금도 촌집이에요.

(염감독) 어머니가 뭐라 안그래?

율 제가 알아서 해요.

(염감독) 일단 이번 거 하고 나서 고작가 작품 들어가면 되니까..

율

(염감독) 감독 데뷔한다고 생각하고 잘 써봐.. 알았지?

7. 돌집_방안 / 낮

낮인데도 어두운 방안.

창문으로 빛은 보이지만 누워있는 박할망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졌다.

이불 속에 누워 있는 박할망.

한눈에 봐도 많이 아파 보이는 박할망의 안색.

박할망 (힘없이) 아방 식게라시냐?

숙자가, 차롱에 싸온 제사 음식들을 꺼낸다.

박할망 뭐허래 이런 거 싸오나? 나뉘 봤자 먹지도 못헌다.

박할망. 침대 위에서 내려와 옷매무새를 만진다.

박할망 지금 바당은 보라시냐?

숙자 ...

박할망 지금 한창 고등 들일땐디... 나 바당 안 나가난 너만 돈 하영 벌
엄지?

숙자 (피식 웃으며) 나만 벌기 미안허난 빨리 나상 바당에 나옵서.

박할망 나도 가고 싶으디... 물질허는 잠녀가 죽어도 바당에 강 죽어사주.

숙자 무신 죽는 소리 험수과? 지금은 편안허게 집에서 쉬멍 병이나 고
칩써.

박할망 (멍하니 밖을 바라보며) 나한텐 바당이 제일 편안헌디여..

숙자, 박할망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인서트 > 차롱에 싸온 상에떡과 옥돔구이.

(O.S) 목탁소리가 은은하게 들린다.

8. 절 입구 / 낮

숙자가 양산을 쓰고 계단을 걸어 내려온다.
말끔하게 차려 입은 숙자.
바다가 보이고, 숙자는 절을 빠져 나와 걸어간다.

9. 팽나무 / 낮

늪은 팽나무 아래 앉아서 담배를 피우는 숙자.

10. 숙자의 집_밖거리 / 낮

조용한 풍경.
고즈넉한 숙자의 슬레이트 집이 보인다.
카메라가 밖거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며 이동한다.
(OS) 남녀의 신음소리가 들려온다.

11. 숙자의 집_밖거리 방안 / 낮

신음소리가 노트북 화면에서 들려온다.
울은 화면을 보며 진지하게 노트에 뭔가를 필기하고 있다.
울, 노트북 화면을 보며 자세를 잡는다.
마치 요가를 하듯 다리를 들어올리더니 허리를 움직인다.
카마수트라를 보든 듯.
우스꽝스러운 자세를 잡으며 성적 채위를 시도해보는 울.
시종일관 진지하고 열정적이다.

12. 숙자의 집 앞_길옆 / 낮

숙자가 양산을 쓰고 걸어온다.
숙자, 마당으로 들어간다.

13. 숙자의 집_밖거리 마루 / 낮

남녀의 신음소리가 방문 안에서 새어나온다.
숙자, 못마땅한 표정으로 방문을 바라본다.

14. 숙자의 집 밖거리_방안 / 낮

숙자가 방문으로 들어와 열려 있는 창문을 닫는다.
울,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는 창문을 닫고 바로 나간다.
울, 멍하니 숙자를 바라보고, 노트북에서는 여전히 신음소리가 흘러나온다.

15. 숙자의 집_방안 / 저녁

마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숙자와 울.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는다.

숙자 글 쓰는 거 그거 언제까지 헐거냐?
울 (아랑곳 않고 밥을 씹어 먹는다) ...

다시 말없이 밥을 먹는 두 사람.

숙자 너, 그거 안허믄 안되나?
울 ...
숙자 그런 글 쓰는 거... 꼭 해사크냐?
울 (밥을 먹으며) 줌만 이서봐. 앞으로 아들 텔레비전에도 나오곡해
 감시믄 아들 얼굴 보기도 힘들어.
숙자 놈들 보기 쪽팔리지 않으나?
울 난 어멍 물질허는거 놈한테 쪽팔려본적 혼번도 어서이!
숙자 글쓰고 감독허커들랑 제대로 된 걸 허든가!
울 모르는 소리마랑 밥이나 먹읍써.
숙자 ...
울 어멍이 아맹 뭐랜 고라도 나가 허고중헌건 포기 안헐거난 어멍이
 나 포기협써.

울, 밥을 먹고 숙자는 울을 바라본다.

숙자 김서방헌티 농협에 자리 이시냐 알아보라.
 율 아이, 진짜...
 숙자 아뿔 생각해도 너 장개도 가곡 아기도 키우곡 허젠 허른 번듯한
 직장 이서야 헐거 아니냐?
 율 어떻 눈엔 농협만 직장 닻으파?
 숙자 어!

율, 능글거리며 웃음을 지으며 밥을 먹는다.

율 아들 걱정허지 맙서. 난 아방 고추록 죽진 았을 거난...

숙자, 율을 노려본다.
 율은 그러거나 말거나 밥을 먹고.

16. 숙자의 집_마당 / 낮

율,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율 아, 씨발... 진짜 죽은 거 맞아?
 (소리) 어떡하냐... 너 말고도 좃된 사람 많아.
 율 아, 씨발...
 (소리) (뜬금없이) 궁극의 오르가즘은 찾았냐?
 율 (버럭) 씨발 지금 그런 소리가 왜 나와?
 (소리) 그러게 궁극의 오르가즘이나 연구하지 돈을 왜 갖다 바치냐고..
 내가 그 새끼 사기꾼이라고 했냐 안했냐...
 율 (듣기 괴롭다)..
 (소리) 너처럼 데뷔하고 싶어서 똥줄 타는 사람 이용해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율 (괴로워하며) 하... 씨발...
 (소리) 사람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돼.. 안되는 거 죽자고 잡고 있어봤
 자....
 숙자 (불쑥) 뭐햐나?

숙자, 불쑥 얼굴을 들이민다.

을 아, 깜짝이야!
숙자 뭐 허냐고..
을 보른 모르쿠과? 전화 햄수게..

숙자, 방귀를 쐬다.

을 아이..씨..

숙자, 어슬렁대며 뒤를 돌아간다.

숙자 (배를 만지며 혼잣말로) 요새 무사 배가 영 아프지...?

을, 답답한 듯 머리를 부여잡고.

17. 숙자의 집_마당 / 낮

을, 손에 노트북을 들고 마당으로 나온다.

을, 돌아보면 숙자가 한심한 표정으로 을을 바라보고 있다.

숙자 (한숨을 쉬며) 그 옷 입은 꼬락서니 좀 보라. 집에 옷 그거 밖에
 어시냐?
 어이구, 사람들이 뭐랜 안 허느냐? 쫓쫓...

을, 무릎 튀어 나온 낡은 츄리닝 차림에 양말도 신지 않은 삼선 슬리퍼 차림.
머리는 자다가 금방 일어난 듯 헝클어져 있다.

을 (짜증) 갑자기 안허던 잔소리를 하네..거참..
혁수 장모님!

혁수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혁수 어? 처남... 완?

을, 꾸벅 인사한다.

혁수는 끄덕거리더니 숙자에게 불일이 있는 듯 다가온다.

숙자, 혁수와 을을 번갈아 쳐다본다.

깔끔한 양복을 입은 혁수의 윗도리 옷깃에 붙어 있는 농협 뱃지가 반짝거린다.

숙자 농협에 자리 난 거 어시냐?

혁수 네? 무사 마썸?

숙자 자이 농협 자리 좀 알아보라.

을 아, 진짜... 저 어명..

혁수 (을을 슬쩍 쳐다보다가) 농협에 자리 딱 차수다. 경허고 처남 잘 허는 일이 이신디 뭐허래 농협 땡깁니까? 시나리오 쓰는 거 그거 아무나 허는 거짜? 나도 처남만큼 똑똑해서든 농협 같은딘 쳐다도 안볼거우다.

을, 슬리퍼를 질질 끌며 마당을 나간다.

혁수, 슬쩍 을을 바라보고는 숙자를 향해 걸어간다.

혁수 그건 그렇고, 장모님, 저번에 신청 현 농약 있잖아예?

혁수, 살갑게 숙자의 어깨를 안으며 집 쪽으로 걸어간다.

18. 제주시내_술집 앞 / 밤

술집에서 나오는 을과 친구.

을, 술에 취했는지 나오다가 넘어진다.

멋쩍게 웃으며 다시 일어난다.

친구 택시 탕 가게.

을 난 팬찮아. 먼저 가라.

친구 먼저 간다. (뒤돌아보며) 운전 허지 말라이.

을 (건성으로 손을 흔들며) 어, 어...

친구, 도로 쪽으로 달려간다.

19. 제주시내_차 안 / 밤

울이 운전을 하고 있다.
핸드폰 벨이 울린다.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던 울, 어쩔수 없이 받는다.

울 네...
숙자 (소리) 어디고?
울 (짜증을 참으며) 왜?
숙자 (소리) 또 술 먹었 땡겨나?
울 아, 왜?
숙자 (소리) 내일 집에 좀 오라.
울 왜?
숙자 (소리) 병원에 같이 가야 되켜.
울 왜?
숙자 (소리) 오랜 허믄 오라. 잔소리 말앙.
울
숙자 (소리) 술 먹었 운전 하지 말라이!

20. 병원_주차장_차 안 / 낮

지저분한 차 실내.
오래된 연식의 중고차가 내는 소리가 시끄럽다.
울이 후진을 하려는데 기어가 킁킁거리며 잘 들어가지 않는다.
울, 다시 한 번 힘을 주며 기어를 움직여 보지만 말을 듣지 않는 기어.

울 (마음을 다스리며) 말 좀 들어라... 말 좀.. 제발...

울, 기어를 다시 집어넣는다. 킁, 하며 제대로 들어가는 기어.

울 (중얼대며) 기여... 이제 너도 갈 때가 다 되감구나...어휴...

울이 후진을 하며 주차를 한다.

낮은 차에서 내려 병원 쪽으로 걸어간다.

21. 병원_진료실 / 낮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율.

의사와 눈이 마주치고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인다.

꼳꼳하게 앉아 있는 숙자의 뒷모습.

율, 미안한 얼굴로 반쯤 허리를 숙이며 들어와 숙자 옆에 앉는다.

숙자의 얼굴은 정면을 향해 있다.

의사 (서류를 밀며) 이거 읽어보시고 보호자란에 싸인 하시면 됩니다.

율 (서류를 눈으로 보며) 이게 뭐니까?

의사 (숙자를 슬쩍 보고) 어머님께서 항암치료를 포기하겠다는 확인섭니다.

율 네?

율,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는 여전히 꼳꼳한 자세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율이 의사를 쳐다본다.

의사 어머님이 모든 치료를 거부하시겠습니다.

율 (당황해서 말을 못하는) 이게.. 갑자기.. 무슨...

율, 숙자를 바라본다.

율 (의사를 보며) 암 치료 그거 끝난 아니었어요?

의사 재발한지 오래됐는데...못 들으셨어요?

율, 고개를 돌려 숙자를 쳐다본다.

의사 솔직히 지금 좀 심각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정면을 향해 있는 숙자의 단호한 시선.

고개를 내려 앞에 놓여 있는 서류를 바라보는 율.

22. 병원_진료실 앞 / 낮

숙자가 문 앞에 우두커니 서 있다.

진료실 안에서는 율과 의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쪽창문으로 보인다.

율의 뭔가 희망을 가져보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의사는 방법이 없다는 반응의 표정과 동작들.

23. 병원_외부 / 낮

숙자가 걸어가고 있다.

간격을 둔 채 숙자의 등을 쳐다보며 따라가는 율.

율, 갑자기 화가 치미는지 자리에 서서 숙자의 등을 노려본다.

율	대체.. 갑자기.. 이게 뭐 난린데?
숙자	...
율	치료는 무사 안 받으켄 허는거짜?
숙자	...
율	(따지듯이) 뭐랜 말해봅써! 이게 어떻 된거짜? 왜 영 된건데! 어? 왜!

숙자, 멈춰선다.

율, 숙자의 등을 바라본다.

숙자, 뒤를 돌아본다.

숙자 그게 나 잘못이까?

율, 멍해진다.

간격을 둔 채 마주보고 서 있는 율과 숙자.

24. 숙자의 집_방 안 / 낮

텔레비전에서 뽕짝 가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다.

반짝이 차림의 옷을 입은 가수가 무대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른다.

숙자와 율이 화면을 멍하니 보고 앉아 있다.
서로 말이 없는 두 사람.
옆에서 조그맣게 흥얼대는 소리가 들린다.
숙자, 가요 프로그램에 눈을 고정한 채 입술만 달싹거리며 흥얼대고 있다.
율이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 (율을 돌아보며) 율아... 나 부탁 하나 들어 줄래?
율 ...
숙자 한 달만 운전 해 주면 안될까?
율 (뜬금없다는 듯) 운전?
숙자 박물관에 공연 못 할거잖던 애긴 했거든?
근데 후임 뽑을 때까지만 해달랜 해가지고.
율 지금 하루가 급한 마당에 그게 뭘 소리파? 당장 그만둬써.
숙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운전해 주면 된다게.
율 나가 운전허기 싫엉 그게 아니라,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잖우파.
숙자 버스 탕 가당 쓰러지기라도 허민 그거 남헌티 민폐 아니냐?

숙자를 바라보던 율, 자리에서 일어난다.

율 자기 몸 살릴 생각은 안 허고, 남 생각헐때파, 지금?
어머은 그나저나 남 생각, 남이 어떻 바라볼까, 남이 어떻 생각헐
까, 맨날 그 생각만 허주.
숙자 ...
율 몰라, 몰라! 버스 탕 댕기당 쓰러지든 자빠지든, 알양 해. 나 모
르크라.

율, 밖으로 나간다.
숙자, 텔레비전 화면을 쳐다본다.
뽕짝 가수가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25. 숙자의 집_마당 / 낮

율, 쪼그리고 앉아 담배를 피운다.
창문으로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온다.

숙자의 노래 소리가 섞여 나온다.
울, 한숨을 크게 쉬며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는다.

26. 해안도로_울의 차안 / 낮

운전을 하고 있는 울.
옆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
서로 말도 없이 어색한 공기.
잠시 후, 방구 소리.
진하게 올라오는 방구 냄새.

숙자 의사가 방구 참지 말랬 하드라. 방구 자주 나올거랜.
울 (숨을 참으며 인상을 쓴다)
숙자 야, 나, 너 얘기땀 너 똥도 먹었져. 무신 인상을 그렇게 쓰나?

울, 창문을 내린다.

울 아이 추워!

다시 창문을 올린다.
또다시 울리는 방구소리.
다시 창문을 내리는 울.

[인서트] 창문을 다 내리고 해안도로를 달려가는 울의 낡은 자동차.

27. 울의 원룸 / 낮

침대 위에 골아 떨어져 있는 울.
방 안 벽에는 잘만킹, 턴토브라스, 베르톨루치의 예술적인 에로티시즘 영화 포스터가 붙어 있다. 예술인가 외설인가..포스터에는 그런 문구들도 들어 있고.
핸드폰이 울린다.
울이 벌떡 일어나 어디서 울리는지도 모르는 핸드폰을 비몽사몽간에 찾는다.
겨우 찾아 핸드폰을 든다.

을 네.. 감독님...(짜증을 참으며) 쓰고 있습니다. 네... 안 넣겠습니다.
(커지려는 소리) 안 넣는다니까요...네..여배우 두명 들어갔고요.
한명당 세 씩씩 넣었습니다. ...네..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28. 숙자의 집_길 옆 / 낮

을이 길 옆에 주차를 한다.
저쪽에서 소란이 벌어지고 있다.

숙자 개똥 좀 어떻 험서. 내가 이놈의 개똥 냄새 때문에 살지를 못허
쿠다게...

개 목줄을 잡고 서 있는 교양 있어 보이는 아줌마.

교양녀 맨날 개 쫓아다니면서 똥 쓸때마다 치울 수도 없는거잖아요.
숙자 외지인들 들어와 살기 시작한 후부터 동네가 말이 아니라.
교양녀 우린 뭐 팬찮은 줄 알아요? 아줌마 마당에서 쓰레기 태우는 거
그거 불법인 거 몰라서 그래요? 신고하려다가 몇 번이나 참았는데...

숙자 신고 험씨, 신고 해.

을, 차 안에서 숙자와 교양녀가 싸우는 걸 물끄러미 바라본다.

29. 해녀 박물관_주차장 / 낮

을의 차가 주차장에 선다.
숙자가 내리고 건물 쪽으로 걸어간다.
운전석에 앉아 있는 을, 걸어가는 숙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한숨을 내쉬며 멍하니 앉아 있는 을.

30. 편의점 안 / 낮

[인서트] 냉장고 안. 수많은 종류의 맥주와 소주들이 정렬되어 있는 모습.

울이 주류가 들어 있는 냉장고 앞에 서 있다.
냉장고 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울.
(O.S) 칙- 시원한 탄산소리

31. 해안도로_방파제 / 낮

[인서트] 캔뚜껑이 따지는 칠성사이다.

꿀꺽꿀꺽 시원하게 들이키는 울.
꺼억- 시원하게 트림을 하고.
방파제 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본다.

32. 카페 안 / 낮

울이 노트북 가방을 들고 카페 안으로 들어온다.
아무도 없이 조용한 카페 안.
주인도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울 계세요?

울, 이리저리 고개를 돌리며 살펴보다가 자리에 앉는다.
노트북을 꺼내 전원을 켜다.

CUT TO >

울, 빠르게 타자를 치고 있다.

애란 어? 손님 왔네?

애란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가득 안고 들어온다.

애란 아, 잠깐만요. 이것 좀 정리하고요.

애란이 마른 나뭇가지들을 바닥에다가 내려놓는다.

애란 이게요. 태풍 한 번 불면 바다를 떠다니다가 밀려오거든요.
저절로 염분처리 되고 건조되면 절대 썩지 않아요. 나한테 완전
고마운거죠. 중간 과정 싹 생략하고 주워오기만 하면 되는 거니
까. 커피 드릴까요?

울 차 같은 건 없어요?

애란, 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본다.

울, 민망한 상황에 난감하다.

애란 너... 울이 아냐?

울, 애란을 자세히 보며 생각한다.

울 누...구?

애란 나 몰라?

울, 기억이 나지 않는 듯 애란을 바라본다.

애란, 손가락으로 자신의 코를 가리킨다.

애란 너, 코 물어본 아이!

울 .. 양애란?

애란 어떻게 날 몰라볼 수 있냐? 섭섭하게..

울 얼마만이나... (카페를 둘러보며) 너, 카페 했냐?

애란 나, 서울에서 내려온지 얼마 안됐어. 뭐 마실래?
청귤차 먹어라. 내가 직접 담근건데..

울 어, 그래...

애란, 주방에 들어간다.

애란 너 하나도 안 변했다. 한번에 딱 알아보겠더라.

애란이 차를 들고 나온다.

차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울이 차를 한모금 마신다.

울 이거 청귤차 맞아? 맛이 좀 다른데...색깔도 좀 그렇고...
애란 응?

애란, 울의 찻잔을 들어 훌쩍 마신다.

애란 어? 이거 한라봉찬데?
(배시시 웃으며) 내가 이런다. 나이 먹으니까 정신이 없어져.

울, 어색하게 웃으며 차를 마신다.

오랜만에 만나서 그다지 할 말이 없는 두 사람. 어색하다.

애란 뭐해?
울 응?
애란 뭐 하면서 살고 있냐고.
울 아... 그냥 글 써.
애란 글? 소설 이런거?
울 아니, 영화 시나리오.
애란 (놀라워하며) 와, 그럼 작가님이네? 뭐, 어떤 거 썼어?
 내가 본 영화가 있나?
울 아직...그런 단계는 아니고..
애란 멋지다... 다음에 영화 나오면 꼭 초대권 보내줘야 돼.
울 흐흐..그래.
애란 여기 자주 와서 시나리오 쓰고 그래. 작가들 카페에서 글 잘 쓰
 잖아.
울 어...
애란 너 나중에 영화 나오면 포스터 카페에 걸고 홍보해줄게.

애란, 마치 자기 일처럼 좋아한다.

울, 그런 애란의 반응에 고무된 듯 입꼬리가 올라간다.

애란 지금 글 쓰던 중?

울 (머뭇거리며) 어? ...어..
애란 내가 방해했네. 일 해...나도 일 해야겠다.

애란, 일어나서 주방쪽으로 간다.

울, 애란을 바라본다.

애란은 마른 가지들을 가지고 와 뭔가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

노트북을 바라보던 울, 애란 눈치를 살피며 노트북을 덮는다.

33. 해녀박물관 주차장_울의 차안 / 저녁

운전석에 앉아 있는 울.

옆좌석으로 숙자가 올라탄다.

타자마자 울에게 다가가 쿵쿵 대며 냄새를 맡아 보는 숙자.

숙자 (입을 벌리는 시늉을 하며) 카! 해봐.

울 안 먹어수다. (능청스럽게) 운전 기사가 술 먹었습니까?

숙자, 입을 삐죽거리며 등을 기대 앉는다.

울, 차를 출발 시킨다.

울 오늘부터 집에서 자쿠다.

숙자 왜? 자기 집 났두고? 어땜 고생시키젠?

울 집이 조용하니, 마음이 편안허영 글 잘 써질거 다향.

숙자 어땜 생각행 같이 살켄 말은 절대 안 해여.

울 어땜? 같이 살아 말아?

숙자, 운전하는 울을 쳐다본다.

숙자 (무심히) 그러던가.

34. 울의 원룸 건물 앞 / 낮

울, 박스에 담겨진 짐을 들고 나와 차에 싣는다.

CUT TO >

자동차 안.
통화를 하는 율.

율 어, 입금 했으니까 그걸로 일단 막아봐.... 그런건 묻지 말고...(버
릭) 아, 씨발 보증금 뺏다. 뺏냐?

35. 숙자집_ 율의 방안 / 낮

율, 가져온 짐을 정리한다.
상자에서 시나리오를 꺼내 책상에 올려놓는 율.
'유토피아' 제목의 시나리오 종이 뭉치.
율, 시나리오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36. 숙자의 집_방안 / 저녁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뽕짝 노래 소리.
밥상 앞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 숙자와 율.
밥을 다 먹은 율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본다.

숙자 (율의 밥그릇을 보며) 이거 뭐냐?

숙자, 밥그릇을 들어보며 화를 낸다.

숙자 한 숟갈씩 남기는 버릇 허지 말랜 경 해봐도 말을 지독시리 안
들어.

숙자, 율이 남긴 밥 한 숟가락을 박박 긁어 먹는다.

숙자 게나제나 아방 허는 짓 똑 같이 해보젠.

숙자의 시작되는 잔소리에 율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간다.
바닥에 퍼져 있는 이불 위를 밟고 나가는 율.

숙자 (소리치며) 야! 이불 뚫고 다니지 말라!

을, 후다닥 밖으로 나간다.

숙자 (한탄조로) 아이구, 아이구! 어떤 여자가 저걸 대령 살거니...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37. 숙자의 집_마당 / 저녁

쫓그려 앉아 담배를 피우는 을.

담배를 피우다가 생각이 났는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다.

창문에서는 뽕짝 소리가 흘러나오고.

을, 담배를 땅바닥에 비벼 끄고는 일어나서 창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간다.

을, 핸드폰 전화번호를 꼭 누른다.

을, 집 쪽을 살짝 쳐다보고는 긴장한 듯 고개를 살짝 꺾는다.

을 (공손하게) 아, 여보세요? 저 고을입니다. (살짝 당황한) 저번에 탐라로 간 변강쇠 보내드렸던... 예, 예... 그럼요. 대표님, (자신감 있게) 이 제주의 원초적 자연과 그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에로티시즘의 미학...좌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다시 공손해지며) 네.. 아, 영화 촬영 들어갔구나...네..하하.. 그럼요. 기다려야죠. 네... 잘 지내시구요. 연락 주십시오. (꾸벅꾸벅 고개를 숙이며) 네..네...

핸드폰을 끊은 을, 굼뻐던 허리를 편다.

집 창문 쪽을 바라본다.

38. 농협 뒤편 / 낮

농협 유니폼을 입은 은희가 쫓그려 앉아 울고 있다.

은희 (울며)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으어어영.. 우리 엄마 불쌍해서..

망연자실 서 있는 혁수는 여동생의 등을 툭툭 두드려준다.
으이이...은희, 어깨를 털며 더욱 크게 운다.
울이 먼 하늘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운다.

CUT TO >

혁수 확실한 거 아니라난?
울 확실한 줄 알았주마씀.
혁수 (난감해하며) 미치겠네... 그거 담보없이 해준 거 걸리든 나도 곤란
 해지는데..
울 죄송허우다.
혁수 그건 그렇고, 장모님은 진짜 치료 안 받으캔?
울 아들 나쁜 놈 만들젠 작정헌거 닳수다.
혁수 에이, 그건 아니지.
울 어멍 설득해 보젠 같이 살았수다마는 말을 들어서 말이우다.
혁수 집에 완? 잘했져. 장모님 마음 돌리젠 허믄 같이 살아하주.

39. 숙자의 집_마당 / 낮

숙자가 환한 원색의 아웃도어를 입고 밖으로 나온다.
크로스백을 매고 빨간 운동화를 신었다.

울 뭐야? 어디 가?
숙자 오늘 할망들이영 도일주 놀래 가는 날.

울, 일어나서 숙자 앞을 막는다.

울 뭘 일주?
숙자 도일주.
울 무서워서 혼자 버스도 못타는 사람이 도일주?
숙자 어뎡 헐거니? 이미 예약된 거고, 할망들 나 어시민 안가켄 허는
 디.
울 엄마 아픈 사람이라. 어디 함부로 나가지 말앙, 집에 딱 붙어 이

십씨.
 숙자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혼나질 버스 탕 땡기명 밥이나 먹고 올
 건디 뭐.
 율 엄마!
 숙자 집에 이시른 없던 병도 생긴다. 혹시 아나? 놀다 보른 낮을지...

율, 어이없다는 듯 숙자를 쳐다본다.

할망들 율이 어멍! 뭐햐디, 혼저 가게.

숙자보다 더 화려한 원색의 아웃도어를 입은 해녀 할망들이 숙자를 부른다.
 숙자, 웃으며 할망들에게 뛰어간다.
 할망들과 숙자, 소녀처럼 웃으며 사라지고.
 멍하니 서 있는 율.

40. 섬지코지_승마장 / 낮

[인서트 : 멀리 성산일출봉이 보이고 초원에서 풀을 뜯어먹는 조랑말]

어린 관광객을 조랑말에 태우고 한바퀴를 돌고 있는 외삼촌.
 율이 멀리서 바라보고 앉아 있다.

CUT TO >

외삼촌과 율이 마주 앉았다.
 외삼촌이 할 말을 잃고 먼 풍경만 멍하니 바라본다.

외삼촌 참..알다가도 모르는게 사람 인생이라더니만...니 외할아버지도 똑
 같은 병으로 돌아갔잖아.
 율 삼촌이 엄마 만나서 얘기 좀 잘 해줍써.
 외삼촌 내 말은 개똥으로도 안 듣는 사람이여.
 율
 외삼촌 고집이..고집이 니네 어멍 성질이 외할아버지랑 어멍 똑 같은지...
 지 아방 딸 아니랄까봐 병도 똑 같은 거 걸려, 치료 안 받으켤

히는 것까지 닳으니...참...

외삼촌, 크게 한숨을 쉬며 말을 쳐다본다.

외삼촌 매형 그렇게 허망하게 보내고 20년 동안 다른 데 눈길 한번 안
 주고 고집스럽게 산 사람여. 니 어명이...

 율 ...
외삼촌 갈 때도 어명답게 갈테주.

가족 관광객이 다가오자 말을 끌고 가는 외삼촌.

말에 어린 관광객을 태우고 돌기 시작한다.

그 광경을 무심히 바라보는 율.

41. 숙자의 집_숙자의 방 / 아침

율의 방문을 열어본다.

숙자가 없다.

텔레비전도 꺼져 있다.

율, 불길한 생각에 표정이 어두워진다.

42. 숙자의 집_마당 / 아침

율,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간다.

슬리퍼가 질질 끌리면서도 힘을 내서 달려가는 율.

43. 바다_해녀의 집 앞 / 아침

율의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다.

해녀들은 이미 채비를 마치고 물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한발 늦은 율, 숨을 몰아쉬며 멀리 해녀들을 바라본다.

[인서트 : 숙자가 물안경을 끼고 물 속으로 들어간다. 저기 멀리 율이 보인다.]

CUT TO > 시간 경과

더 없이 맑은 하늘.

하늘빛을 닮은 바다가 햇빛에 반짝거린다.

먼 바다에는 주황색 테왁이 풍경화의 한 장면처럼 펼쳐져 있다.

해녀의 집 앞에서 앉아서 그 풍경을 보며 사이다를 빨대로 빨아대는 율의 착잡한 표정.

44. 숙자의 집_마당 / 저녁

숙자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율,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본다.

율 물질 허지 맙서.
숙자 무사?
율 아픈 사람이 남들 허는 거 다허젠 햄수과?
숙자 아픈 사람은 남들 허는 거 다 못허느냐?
율 어떻 생각만 말앙 아들 생각 좀 험씨.

숙자, 율을 쳐다본다.

율 게나제나 바당, 일, 바당, 일! 어떻게 험 줄 아는게 그거밖에 어수과?
숙자 어, 기여. 어떻게 무식해부난 바당 물질 밖에 모른다.

율, 숙자를 바라본다.

율 경허난 아방 죽을 때도 바당에 강 물질 험디가?
숙자 무사, 아방 제조제 나가 먹여시냐? 지가 농약 먹영 죽은 아방, 무사 그것도 나 잘못이냐?
율 어떻이 맨날 돈 돈 허명 아방 못살게 굴어수게.
숙자 어떻은 능력어신 아방 먹영 살린 죄 밖에 없져.

율, 숙자를 바라보며 서 있다.

숙자 비키라!

숙자, 율을 지나쳐 간다.

45. 해안도로_율의 차 안 / 낮

차 문을 열어 놓고 운전은 하는 율.

숙자 너 국민학교 입학식때 코 물어본 아이 어땜 되시고, 이?

율 무사.. 궁금허파?

숙자 기냥 잠깐 안보는 사이에 모르는 아이 코 물어부난...정말 세계 물어서.

피도 막 나고..그때 너 학교 못다닐뻔 해서. 여자 아이 시집 못 가게 해볼엇던 얼마나 욱덕엇는지 아나?

율 하이고...또 그 얘기...

잠시 침묵.

숙자가 율 옆으로 다가온다.

숙자 그때 무사 물언? 개새끼도 아니고.

율 아이 진짜... 몰라!

숙자 갑자기 궁금허네 그 아이 지금 뭐햐신고... 시집은 가신가?

율, 뭔가 대답을 하려다가 만다.

그냥 조용히 운전은 하는 율.

율 나 옛날에 상장 받아난 건 다 어디 간?

숙자 너가 뭇 상장을 받았단 말이나? 공분 안 허고 놀래만 땡긴 놈이..

율 아, 왜? 독서 대회 강 상 많이 받아 왔네. 독후감 대회 상장도 있고.

숙자 그런 것도 상이나?

그런 거 백개 받아와 봐도 우등상장 하나만큼 가치도 어신거..

율 아버진 상 받아 오른 나 대령 강 짜장면 사주고 동네 삼촌들헌터 막 자랑하고 햐신디...어땜은 상 받아 오른 칭찬 한 번 안 햐줘서.

숙자 그거 아방이 너 칭찬 행 그거냐? 또 건수 잡앙 술 먹젠 그거지?
 율 경해도 우리 아방고추룩 어멍 아껴준 사람 어디서수과?
 꽃도 꺾어당 어멍 갖다준 아방아니꽈? 그만한 로맨티스트가 어디
 서?
 숙자 (코웃음을 치며) 무신 얼얼죽을 로맨티스트? 어디서 막 자라는
 검질꽃 꺾엉 온게 로맨티스트냐?

율, 피식 웃는다.
 숙자, 창밖 먼 바다를 바라본다.

숙자 (타령조로 혼자 중얼대는) 실양 이실때도 하나 도움 안 되는 인간
 이.. 죽을 때도 뭐 하나 자식들한테 남기지도 안 하고 가버린 인
 간... 너네 아방이 그런 인간이여..허이고..

46. 카페 안 / 낮

[인서트] 비틀어진 모양의 마른 나뭇가지, 벽에 걸려있는 나무 악세사리들.

애란이 자른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다.
 차를 마시며 애란이 하는 것을 지켜보는 율.

율 살아 있는 나무 잘라서 만드는 건 봤어도, 죽어 말라비틀어진 나
 뭇가지로 뭔가 만든다는 거 참 독특하긴 하다.
 애란 애네들도 한때는 다 살아 있었어.
 태풍 불 때 떨어져 나와서 바다를 떠돌다가 바닷가에 밀려들어오
 고 날 만나고...다시 이렇게 태어나고.

애란, 만들어진 나무 조각품을 들여보이며 웃는다.
 율이 마주보며 미소를 짓는다.

애란 근데, 너 정말 착한 거 같애.
 율 응?
 애란 매주 어머니 공연장에 모셔다 드리고, 모시고 가고..
 율 (애매한 미소를 짓는다)

애란 완전 효자잖아.
울 남아도는 게 시간인데 뭘. 남들처럼 직장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애란 프리랜서잖아.
울 프리랜서..?
애란 근데, 어머니 별로 안 좋아하시겠다.
울 ...
애란 보통 어머니들은 자식들 안정된 직장 다니길 바라잖아.
 그게 어머니들 평생에 사명인 것처럼 아등바등 공부시키고, 잔소리하고..

썩쓸하게 미소를 짓는 울.

애란 너, 어머니 공연하는 거 봤어?
울 아니.
애란 왜? 모셔다 드리기만 하고 보지 않은 거야?
울 이상해.. 웬지 기분 이상할 것 같애. 괜히 부끄럽기도 하고...

애란, 작업을 하다가 잠시 멈춘다.

애란 ...기억난다.. 그때... 옛날에 네가 나 코 물었을 때..
울 ...
애란 너네 어머니가 우리 집 찾아와서 엄청 빌었는데.. 우리 엄마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어렸을때에도 생생하게 기억해.
울 ... 그랬어? ... 몰랐네..
애란 (울을 쳐다보며) 엄마한테 잘 해드려.
울 (장난스럽게 허세) 나만큼 잘 하는 아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울, 잠시 생각에 빠지며 애란을 바라본다.

애란, 다시 작업에 열중하고..

울, 주변을 돌아본다.

텅빈 카페 안.

울 근데, 손님이 하나도 없냐? 이래가지고 먹고 살 수 있겠어?
애란 (피식 웃으며) 고맙네. 걱정해줘서.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지훈.
어깨에 우크렐레를 매고 있다.

애란 (슬쩍 보며) 손님 왔네.

지훈, 냉장고 앞으로 가서 문을 열고 맥주를 꺼내 마신다.

애란 (무심하게) 돈 안 되는 손님.

아무렇지 않게 맥주를 들이키는 지훈을 쳐다보는 율.

애란 어이! 돈 내고 마셔라.
지훈 (무시하며) 췌...
애란 넌, 형 봤으면 인사도 안 하나? 싸가지 없게..
지훈 (그제서야 율을 바라보고) 형?
애란 너 중학교 선배잖아. 고율!

지훈, 천천히 걸어와 율을 쳐다본다.
율을 빤히 바라보던 지훈, 그제서야 기억이 난다는 듯 환하게 웃는다.

지훈 율이 형? 나 지훈이에요.
율 아...지훈이..

서로 악수를 한다.

지훈 진짜 오랜만이다.
율 ...
지훈 기억나죠? 저 형한테 엄청 맞았는데..
애란 애가 너 때렸어?
지훈 남자들 세계는 원래 그래. 줄빠따라고..
안 맞으면 괜히 소외되는 것 같고, 때리고 맞으면서 뭔가 끈끈해
지는...그렇죠 형?
율 내가 그랬나...

애란 치, 때리고 맞으면서 끈끈해지면 너랑 나는 왜 이러냐?
지훈 그건 누나가 일방적으로 때려서 그렇지.
 나도 누나를 좀 때렸으면 좀 끈끈해지지 않았을까?
애란 (장난스레 때리려하며) 그냥 더 맞아라. 일루와. 더 끈끈해지게...

애란과 지훈이 사이좋게 장난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는 율.

지훈 (율을 쳐다보며) 형, 오늘 시간되면 한 잔 해요.
 율 응?

지훈이 맥주병을 들어보이며 눈짓을 한다.
율, 시계를 쳐다본다.

 율 아, 늦었다. (서둘러 짐을 챙기며) 다음에 먹자. 미안...

율, 가볍게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애란 응, 가.

율, 밖으로 나간다.

47. 숙자의 집_숙자의 방 안 / 저녁

방 안에 상이 퍼져 있고, 외삼촌이 술을 마시고 있다.
무거운 분위기에 도 혁수의 아이들은 방안을 휘젓고 다니며 깔깔거린다
혁수가 혼내는 동작을 하고 아이들은 밖으로 나간다.

숙자 아버지 병원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어 하시니?
 (외삼촌을 보며) 너도 다 봤잖아? 그게 사람헌티 할 짓이라냐?
 난, 죽어도 경 못 죽는다.

상 앞에 둘러앉은 율과 매제, 여동생 표정이 침울하다.

외삼촌 누나 생각만 험하게 아니라 아들 생각도 해야주.

외삼촌이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무심히 술을 들이킨다.

숙자 아들 때문에 영 허는 거여. 나가 생각 어신 사람 님으냐?
이미 죽은거나 다름없는 사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게 뭘 의미
가?

외삼촌 그게 사람의 도리 아니짜.
혈 도리는 다 하게 해줘야 살아있는 사람 마음도 편한거라.

숙자 도리 안해도 된다. 남한테 도리만 하다가 지 삶은 못 살고 죽
는거여.

(울과 매제, 여동생을 돌아보며) 너넨, 너네만큼 살라. 다 자기
만큼씩만 살당 가는 거여. 며칠 더 살아보젠 호흡기 끼는 거
보기 송허다.

외삼촌 경해도 해보는 데까진 해 봐사주.

숙자 쓸데없이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인생까지 날리는 거여.

외삼촌이 속상하고 답답한 듯 술을 들이킨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은희가 울고 있다.

당황한 혁수가 은희를 일으켜 세우려고 한다.

은희가 어깨를 흔들며 버티고 운다.

혁수, 난감한 눈빛으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살핀다.

숙자, 한숨을 쉬며 돌아앉는다.

외삼촌은 말없이 술을 들이킨다.

다시 아이들이 들어와 깔깔거리며 논다.

혁수가 아이들을 혼내며 데리고 나간다.

숙자 (냉정하고 단호하게) 혼저들 일어남 가라.

내일 출근 할 사람들이 오래 있지 마랑.

울, 물끄러미 숙자의 등을 쳐다본다.

48. 숙자의 집_울의 방 / 밤

을, 노트북 앞에 앉아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본다.
신음소리가 나오는 노트북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을.
머리를 감싸며 한숨을 쉬던 을,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49. 숙자의 집_마당 / 밤

을, 담배를 피운다.
바깥채 숙자의 방에서 텔레비전 불빛만 창문으로 새어 나오고 있다.
뽕짝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고.
을, 물끄러미 숙자의 창문을 바라본다.
을, 담배를 끄고 핸드폰을 꺼낸다.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까 고민한다.

[인서트 : 핸드폰 화면에 떠있는 이름 ‘좋은영화 채성종 대표님’]

핸드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는 을.

50. 카페_외경 / 밤

[인서트 : 칠흑같이 캄캄한 바다. 수평선에 떠있는 오징어잡이 불빛]

인서트 화면 위로 지훈의 노랫소리가 오버랩 된다.
카페 창문으로 지훈이 우크렐레를 치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보인다.
차 안에서 카페를 바라보는 을.
룸미러를 보며 머리를 매만진다.
셔츠를 입은 모습이 조금 깔끔해졌다.

51. 카페 안 / 밤

지훈이 우크렐레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을과 애란이 지훈의 노래를 들으며 앉아 있다.
지훈, 마지막 소절을 끝내고 천천히 눈을 뜬다.
반응을 살피려는 듯 을을 쳐다보는 지훈.

울 (진지하고 무덤덤하게) 좋다. 팬찮은데?
지훈 (무덤덤하게) 진짜요?
울 (무덤덤한) 응. 진짜 팬찮아.

지훈,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울의 옆에 앉아 맥주를 마신다.

지훈 (애란 들으라는 듯) 역시 같은 예술을 하는 사람끼리는 통하는게
있다니까.
울 음반 아직 안 냈어?
지훈 준비하고 있어요.
애란 (한심한 듯) 음반 수십 장 내면 뭘 합니까, 들어 주는 사람이 없
는데.
지훈 왜 그래? 나, 이래봬도 팬클럽도 있는 사람이야,
애란 딸랑 여섯 명 있는 게 무슨 팬클럽이냐?
게다가 두 명은 이지훈이랑 이름 헛갈려서 들어왔다며?
지훈 그래도 개네들 안 나가고 계속 활동하고 있다고.
이 양지훈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지, 카카카!
애란 아이구, 그래. 그 팬클럽이랑 폭 빠져서 영원히 헤어 나오지 말거
라.

울, 사이좋게 티격태격하는 지훈과 애란을 바라본다.
애란이 맥주를 들이킨다.
울, 애란의 옆모습을 쳐다본다.
애란이 고개를 돌리자 울의 시선과 마주친다.
애란, 울을 보며 씩 웃는다.

지훈 형, 그러지 말고 한 잔 해요. 술 깨고 운전하면 되잖아요.
울 (맥주를 바라보다가) 아니...그냥 음료수 마실래.
지훈 이 형 보기보다 은근 고집 있네. 내 노래 듣고 술이 안 땡긴단
말야?
애란 그럼 술 엄청 땡기지.
지훈 고집도 집안 내력이라던데, 최씨 고집, 강씨 고집...형은 고씨라서
고집있나?
애란 뭘 소리야?

지훈의 실없는 소리에 율, 피식 웃는다.
이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초등학교 아이.

동혁 다녀왔습니다.
애란 왔어? (율을 가리키며) 인사해, 엄마 친구.
동혁 (무표정으로 꾸벅 인사하며) 안녕하세요.

율이 누구지, 하는 표정으로 동혁과 애란을 쳐다본다.

애란 아, 우리 아들. 넌, 낮에만 와 있어서 못 봤겠구나.
율 (동혁을 바라보며) 아들이 있었구나..
애란 잘 생겼지?
율 어? ...어.. 잘 생겼네.
애란 들어가서 씻고 숙제하고 있어.

동혁, 무표정으로 힘없이 꾸벅 인사하고는 주방 쪽으로 들어간다.

애란 (들어가는 동혁을 향해) 초코파이는 손 씻고 먹어, 양말은 빨래통
 에 넣고!
 스마트폰은 숙제 다 끝난 다음에 하고, 알았어?

동혁, 대답도 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잔소리하는 애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율.

애란 (맥주를 마시며) 씨도독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지 아빠랑 똑 같
 애.
지훈 누나 닮은 것도 있네. 싸가지 없는 거.
애란 (흘겨보며) 죽을래? 곱게 쳐 먹어라.
지훈 (온순해지는) 넵. 곱게 쳐 먹겠습니다.

지훈, 공손히 맥주를 들이킨다.

율 애가 푹푹하게 생겼더라.

애란 (표정이 굳어지는) 애가 공부에 관심이 없어. 만화에 완전 빠져가
지고는
하루 종일 웹툰만 들여다보고 있고, (한숨을 쉬는) 에휴...재를 어
떡해야할지..참...

울 애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는 건 좋은 거지.
애란 그 관심이 공부면 오죽 좋아? 만화나 웹툰에 관심 뒤봤자 뭐가
되겠어?
관사, 검사, 의사 이런 건 바라지도 않아. 자기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직장이라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에휴...

애란, 한숨을 내쉬며 맥주를 들이킨다.

울 남편은?

애란, 순간 멍칫하며 표정이 굳어지더니 웃으면서 맥주를 마신다.

울 남편은 뭐해?
애란 ... 뭐...그냥..
지훈 형, 노래 하나 더 들어볼래요?

지훈, 노래를 시작하려한다.

52. 숙자의 집 앞 올레 / 낮

울이 걸어온다.
돌담 옆에 서 있는 고급 렌터카.
울, 렌터카를 바라보며 걸어온다.

53. 숙자의 집_마당 / 낮

울이 집 마당으로 들어온다.
숙자가 감귤껍질을 마당에 널고 있다.
숙자 옆에서 감귤을 까고 있는 염감독.
울, 염감독을 발견하고는 인상을 쓴다.

염감독, 율을 발견하고 웃으며 손을 흔든다.

CUT TO >

율과 염감독 마루턱에 앉아 있다.

염감독 어떻게 되가?
율 쓰고 있습니다.
염감독 언제까지 쓰기만 할거야?
율 그거 때문에 오신거예요? 서울에서?
염감독 그럼 그거 때문에 왔지, 고작가랑 연애하러 왔겠냐?
율 ...

염감독, 장난스럽게 웃으며 율을 바라본다.

염감독 투자자랑 골프 치러 왔어. 시간이 좀 나서 고작가 보러 온거야.
율 아, 네...
염감독 빨리 써... 나도 미치겠다. 그걸로 투자 받아야 다음 작품도 할 거
 아냐? 이제 이 바닥도 힘들어진다...언제까지 떡치는 영화만 할
 순 없잖아? 고작가랑 나랑 좋은 작품 해야지.. 안 그래?
율 ...

염감독, 일어나서 숙자 옆으로 간다.

염감독 어머님, 고작가가 앞으로 완전 뜰 사람입니다. 고작가 글 잘 쓰거
 든요.
 감각이 좋아요. 고작가가 쓰고, 제가 감독하면 대한민국 완전 뒤
 집어질 겁니다. 그때 어머님 VVVIP자리로 딱 모시겠습니다.
숙자 (건성으로) 기짜? 잘 되면 좋지 마썸.

숙자, 허리를 편다.

율의 인상이 굳어진다.

54. 숙자의 집 앞 올레 / 낮

렌트카 운전석에 타고 있는 염감독.

염감독 빨리 써. 빨리 써야 고작가 감독 데뷔도 빨라지는 거야.

을, 어색하게 웃으며 끄덕인다.

염감독, 손을 흔들어 보이고는 출발한다.

을이 인사를 한다.

을, 뒤를 돌아 일을 하고 있는 숙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O.S) 무언가 수색을 하고 있는 듯한 무전기 소리가 들린다.

55. 바다 / 저녁

해양 경찰 순시선이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무전기 소리 계속 들려오고.

해녀할망1 할망 노망 났주. 아광 다 죽어가는 할망이 바당엔 뭐허래 들어?

숙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순시선을 바라보고 있다.

잠시 시간이 흐르고,

무전기에서 ‘찾았습니다’ 소리가 흘러나온다.

56. 돌집_ 방안 / 저녁

숙자, 멍한 표정으로 침대를 바라본다.

깨끗하게 정돈된 침대.

싸늘한 집 안.

57. 중산간_ 도로 / 아침

도로 옆으로 오름들이 서 있다.

울의 차가 오름들 사이 도로를 달린다.

CUT TO >

차는 중산간 밭 사이 시멘트 포장길을 가고 있다.
차는 구불구불 밭 사잇길을 달려간다.

58. 공동묘지 / 아침

공동묘지터 안에 천막이 쳐져 있고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몇몇 서 있다.
박할머니 영정사진을 든 한 해녀할망.
울, 멀리 선 채 영정사진을 바라본다.

CUT TO >

포크레인이 땅을 파고 있고 일꾼들이 무덤을 만들기 위해 네모로 자른 잔디를
옮기고 있다.
숙자가 모여 있는 해녀할망들 사이에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
울은 구석 쪽으로 자리를 옮겨 담배를 피운다.

CUT TO >

관이 옮겨지고 숙자와 해녀할망들이 관을 따라 간다.
관은 땅속으로 들어간다.
몇몇 해녀할망들은 눈물을 흘린다.
숙자는 묵묵히 땅 속을 지켜보고 있다.

CUT TO >

무덤 봉분이 만들어졌다.

O.L

59. 중산간_도로 / 오후

앞의 무덤 봉분이 오름으로 오버랩 된다.
울의 차가 왔던 길을 내려가고 있다.

60. 중산간_차안 / 오후

운전하고 있는 울과 옆자리에 앉은 숙자 둘 다 말이 없다.
차는 중산간 도로를 지난다.
멀리 바다가 보이고 풍력 발전기 날개가 씩씩이 돌고 있다.

61. 숙자의 집_마당 / 오후

울과 숙자가 마당으로 들어온다.

숙자 울아, 잠깐 좀 들어와 보라.

울, 숙자를 쳐다본다.

62. 숙자의 집_숙자의 방 / 오후

울과 숙자가 마주 앉아 있다.
숙자, 통장과 도장을 울에게 내민다.
울, 통장을 바라본다.

숙자 그냥 어명이 허는 말 듣기만 허라이.

울 ...

숙자 이건 어명이 물질 허멍 모아둔 거여. 장례비용 허꼭 남으면 너
가지라.

더 하영 주고 싶어도 가진 게 이것 밖에 없져.

울, 표정이 굳어진다.

숙자 나 죽으면 화장 허라. 땅에는 절대로 묻지 말라. 그 작은 디.. 답답
행 못 들어가크라라.

을 ...

숙자, 을을 바라본다. 눈빛에 측은함이 숨겨져 있다.

숙자 빨리 장가가라. 하루 이틀 미루당 금방 할아방 되는 거여.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얼마나 보기 싫으니?

을 ...
숙자 어머은 그저 너 하나 걱정이여.
 그저 너 하나 잘 살아시믄 현 바람밖에 없고, 너만 잘 되믄 이
 세상 아무 미련 없다.

을, 아랫입술을 깨문다.

을 지금 뭐 하는 거짜?
숙자 ...
을 아들 앞이 앉혀 놓앙 헐 말이짜, 지금?
 이 통장 주면, 아 예 고맙수다, 이걸로 장례허고 화장 잘 허쿠다,
 영 해야될꺼? 경해야 착한 아들, 효자 아들 되는 거?

숙자, 말없이 을을 가만히 바라본다.

을 나가 지금까지 어머한테 잘 현것도 없고, 실망만 시키고 뭐, 제대
 로 성공한 영화 보여준 것도 없주만, 나도 열심히 험서. (울컥거
 리며) 나도 어머한테 잘 보여보젠 죽을등 살등 한다고!
숙자 보여봐봐! 그런 글 써서 뭘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 되는지 보여봐
 보라고!
을 기다려! ... 좀 기다려 보라고...
숙자 ...
을 (숙자를 바라보다가) 그러니까, 병원 강 치료받고... 좀 오래 살아
 사 볼 거 아니라. 아들 영화도 보고, 장가가는 것도 볼 거 아니라!

을,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간다.

나간 을의 자리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숙자.

63. 숙자의 집_마당 / 저녁

울, 담배를 피워 문다.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는다.

이때, 핸드폰벨 소리가 들린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발신자를 확인한 울. 순간, 긴장한다.

급하게 입에서 담배를 빼내어 끈다.

울 (공손하게) 아, 예 대표님. ...아하하..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니요, 대표님 바쁘신거 다 알죠. 영화 들어간 건 어떻게..?아, 예.. 그렇구나...대박 기원하겠습니다. 아하하..

숙자의 방 창문으로 뿡작 소리가 흘러나온다.

울, 숙자의 방을 흘깃 쳐다본다.

울 아, 예...

핸드폰 저쪽 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가만히 듣고 있는 울의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애써 마음을 다스리려는 울.

울 예... 알겠습니다. ... 괜찮습니다. 제가 더 잘 써야죠. 뭐. 제 역량이 아직 부족할 걸 어찌겠습니까? 네... 잘 지내시구요.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네...

울, 핸드폰을 끊고 멍하니 서 있다.

숙자의 방에선 신나는 뿡작소리가 계속 흘러나온다.

64. 방과제 / 저녁

등대가 서 있는 방과제.

멀리 수평선 위로 오렌지색 노을이 지고 있다.

방과제 위에 앉아 있는 울.

맥주캔을 따서 술을 마신다.

멀리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는 울.
맥주캔을 또 따서 술을 들이킨다.
노을이 지며 어둠이 점점 주변을 감싸고 있다.

65. 숙자의 집_마당 / 저녁

혁수, 담배를 피우며 핸드폰 통화를 하고 있다.

혁수 ...그 잘난 영화 헌답시고 그거 아니냐!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 누가 알아주거나 헌텐? (큰소리로) 몰라...몰라.. 나가 쪽팔럼 뭐랜 말허지도 못허켜. 뭘 이상한 영화라.. 예로..그런거 있잖아..맞아 야동야동.. 지는 그런거 아니랜 박박 우견게 마는... 맞다게.. 지도 영화헌답시고 술먹영 땡기명 폼 잡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마당 입구 돌담 뒤에 가만히 서 있는 숙자.
굳어지는 표정.

(혁수) 어, 나 장모님만 잠깐 만났 가크매 거기서 기다렘시라. 금방 가마. 어...

숙자, 심호흡을 하며 마당으로 들어선다.
혁수가 살갑게 웃으며 숙자가 들고 있는 짐을 든다.

숙자 뭐허래 왔나? 농약 신청 다 해신디..
혁수 장모님... 그게 아니고...저기... 처남 때문에 와신디예...

66. 단란주점 안 / 밤

읍내 단란주점 안.
알록달록 촌스러운 조명이 무대에서 돌고 있다.
도우미 아가씨를 옆에 낀 채 노래를 부르는 울.
술에 취한 친구가 다리를 비틀거리면서 박수를 친다.

CUT TO >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율.
친구는 옆에서 잠이 들었다.
한 손님이 무대 위에서 트로트를 부르고 있다.
율, 트로트를 가만히 들으며 바라본다.
흥에 겨운 손님은 엉덩이춤을 추며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율, 무대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같이 노래를 부른다.
손님은 뜬금없이 나타난 율을 쳐다본다.
율은 화면을 보며 트로트를 부른다.
엉덩이를 쉴럭 거리며 추는 춤.
명하니 있던 손님도 흥겹게 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67. 읍내_단란주점 앞 / 밤

촌스런 단란주점 네온사인이 반짝인다.
문이 열리고 술에 취한 율이 나온다.
친구와 손을 흔들며 헤어지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율.

68. 율의 차 안 / 밤

율, 술에 취한 눈을 가늘게 뜨며 전방을 바라본다.
시동을 켜는 율.

[인서트 : 비틀거리면서 출발하는 율의 차]

전조등이 거리를 비추고 있다.
술에 취해 눈이 감기는 율.
핸들을 놓치자 갑자기 차가 비틀거린다.
위험한 상황.
다시 정신 차리고 핸들을 잡는 율.

69. 숙자의 집_길옆 / 밤

율의 낡은 차가 돌담을 향해 돌진 하다가 멈춘 듯 위태롭게 주차 되어 있다.

70. 숙자의 집_울의 방 / 밤

어두운 방안.
울,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파도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문이 열리고, 검은 그림자가 들어온다.
천천히 걸어와 누워있는 울 앞에 선다.

숙자 울아...

울, 깨지 못하고 뒤척인다.

숙자 울아... 울아...

울, 흠칫 놀라며 눈을 뜬다.
어둠속에 희미하게 보이는 숙자의 모습.
울, 정신을 차리려 애쓰며 자리에서 일어난다.
비틀거리며 걸어가 불을 켜다.
숙자의 양손과 발바닥에 온통 피가 묻어 있다.
숙자가 걸어온 자리에도 핏자국이 길게 그려져 있다.
울, 상황파악을 하느라 눈이 커진다.
숙자, 힘없는 눈빛으로 울을 쳐다본다.

71. 도로_울의 차 안 / 밤

어두운 밤 도로를 달리는 차.
핸들을 짊 쥐고 운전하는 울의 숨이 거칠어진다.
뒷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가 힘없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린다.

CUT TO >

도로를 막고 서 있는 경찰들이 보인다.
경찰차가 도로 옆에 서 있고, 순경들이 경광봉을 천천히 흔들고 있다.

울 아이씨... 뭐야..

순경이 울의 차로 다가온다.

울이 차 창문을 연다.

순경 (사무적인 말투) 부세요.

울 저기요, 어머니가 지금 많이 아프시거든요.

순경, 뒷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를 쳐다본다.

순경 그럼 빨리 불고 가세요.

울 지금 빨리 가야된다니까요.

순경 그러니까 빨리 불고 가시라고요.

울, 난감하다.

숙자, 울을 쳐다본다.

순경, 빨리 불라는 눈짓을 한다.

숙자 뭐 햄디, 빨리 불라.

울, 눈을 감고 측정기에 입바람을 분다.

삐-소리가 나며 측정기에 불이 들어온다.

순경 어? 음주하셨네요.

울 저기요, 보면 모르세요? 응급상황이잖아요. 상황이 급한데 어떡합니까?

순경, 울과 숙자를 번갈아 쳐다본다.

순경 일단 내리세요. 음주운전하고 가면 더 위험합니다.

울 아저씨! 제발..

순경 (운전석 문을 열며) 일단 내리시구요.

어머니는 저희들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72. 도로 검문소 / 밤

울, 차에서 내린다.
순경이 차 뒤로 돌아가 숙자를 부축하며 내린다.
순경, 숙자를 경찰차가 있는 쪽으로 데리고 간다.
멍하니 걸어가는 숙자를 바라보는 울.
숙자, 경찰차에 올라타고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발한다.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의 상황을 망연자실 바라보는 울.

73. 숙자의 집_거실/숙자방 / 밤

현관문을 열고 울과 숙자가 들어온다.
힘든 표정의 숙자는 방으로 들어간다.
숙자, 힘이 든 듯 바닥에 눕는다
작고 늙어 보이는 숙자의 뒷모습.
울, 물끄러미 숙자의 뒷모습을 바라본다

74. 숙자의 집_울의 방 / 밤

방바닥에 묻은 숙자의 피묻은 발자국.
울, 멍하니 방바닥을 바라본다.
책상 앞에 앉아 ‘탐라로 간 변강쇠’ 시나리오를 바라본다.

75. 숙자의 집_마당 / 아침

울, 마당으로 들어온다.
숙자, 마당에 앉아 테왁을 손질하고 있다.
숙자, 울이 들어온 것을 알고도 외면하며 일을 한다.

울	엄마...
숙자	(냉랭하게) 지금까지 어땠 기사 노릇 허젠허난 고생했져.
울	...

숙자 앞으로 버스 탕 갈거난 신경쓰지 말앙 너 헐 일이나 허라.

을, 미안한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본다.

숙자 냉랭하게 할 일을 하고 있고.

숙자 술 쳐 먹엉 운전 허는 아들헌티 운전 해주랜 헐 내가 바보 멍청
이다.

아이구! 아이구!

을 파출소 갔다 와수다. 면허 정지 기간 일주일만 연기해 달랜.

숙자, 화가 가지지 않은 눈빛으로 을을 바라본다.

을, 숙자의 시선을 애써 외면한다.

을 어멍 버스 탕 땡기믄 위험허카부덴 파출소 강 막 빌어서.

숙자 허이구! 효자 나셨네. 효자 났어.

을 (손을 내밀며) 이거 봅써. 지문 다 없어져수게.

숙자 어이구! 서방복 없는 년이 아들복은 이시크냐?

허이구..뵤 팔자가 이리도 기구헌지..어이구.. 어이구..

을 ...

숙자 년 차 몰앙 땡기믄 안되는 놈이여. 자전거나 탕 땡기라.

숙자, 그물 손질을 계속한다.

을, 숙자를 바라본다.

을 엄마..

숙자 (무심하게) 무사?

을 (숙자를 바라보다가) 나 농협 들어가까?

숙자 농협에서 너 받아주긴 헌덴? 요즘 농협도 들어가기 힘들어.

을 마트나 주유소부터 해야지.

숙자 그 나이 잘도 허켜.

숙자, 코웃음을 치며 그물을 손질한다.

을, 숙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울 엄마...
숙자 (귀찮은) 무사 계속 말 시킴시니? 딱 바쁘디..
울 나 농협 들어가면 병원에 가젠?
숙자 ...

말없이 그물을 손질하던 숙자, 자리에서 일어난다.

숙자 (허리를 펴며) 아이구...허리야. 이젠 이 짓도 허리 아팠 못 허켜.
어이구.

숙자, 태왁을 들고 창고 쪽으로 걸어간다.
울, 물끄러미 숙자가 사라진 쪽을 바라본다.

76. 숙자의 집 마당 / 낮

마당 구석.
숙자가 쓰레기를 가지고 온다
쓰레기에 불을 피우려고 하는데, 숙자의 눈에 무언가 보인다.
쓰레기 더미 위에 있는 ‘탐라로 간 변강쇠’ 시나리오 종이뭉치.
숙자, 시나리오 종이뭉치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CUT TO >

연기가 피어오르고,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숙자의 뒷모습.

77. 카페 앞 / 낮

차에서 내린 울, 사이드미러를 보며 머리를 매만진다.
카페 문이 열려있고, 울,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78. 카페 안 / 낮

동혁이 혼자 핸드폰을 하고 있다.

울, 동혁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울 엄마는?
동혁 (핸드폰을 하며) 바닷가예요.
울 재밌냐?
동혁 뒤, 그냥 하는 거죠.

울, 벽에 걸려진 죽은 나뭇가지들을 바라본다.
동혁은 핸드폰을 하고 있고, 울은 어색하게 서 있다.

울 (바라보다가) 근데...아빠는 뭐해?
동혁 (핸드폰을 하며 심드렁하게) 죽었는데, 아빠..
울 ...
동혁 나 이학년때 돌아가셨어요.
울 ...
지훈 어, 형 왔어요?

지훈이 우크렐레를 메고 들어온다.
지훈이 동혁의 머리를 톡치고 들어가고, 동혁은 쩌려보고 핸드폰을 한다.
지훈, 맥주를 들고 나와 울을 바라본다.

지훈 형, 이번 주말에 뭐해요?
울 주말? 뭐...없는데?
지훈 저 마을 노래 자랑 때 공연해요. 보러 오세요.
울 어...그래..

지훈, 우크렐레를 꺼내 칠 준비를 한다.
우두커니 서 있는 울.

지훈 누나 지금 바닷가에 있을텐데...

79. 신양리_해변 벤치 / 낮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는 울과 애란

애란, 주변 풍경을 둘러본다.

줄줄이 늘어선 카페며, 식당들... 오고가는 자동차들과 관광객들..

애란 우리 초등학교때 여기 소풍 자주 왔었는데..

울 그랬지..

애란 옛날 모습이 하나도 안남았네.

울 많이 변했지. 개발도 많이 되고...

말이 없는 두 사람.

애란 글 쓰는 건 잘 돼?

울 으..응? 어... 그럭저럭..

애란 너, 초등학교때도 글 잘 썼는데... 상도 많이 받고..

울 ...

애란 짚꿇은 장난칠 때 너랑 글 쓸 때 너랑 같은 아이 맞나 싶기도 하
고..(장난스럽게) 어째 매치가 안돼.

울, 피식 웃는다.

바다를 바라보는 애란.

애란 너, 나 코 물었을 때...

울 (애란을 쳐다본다)

애란 너...(울을 바라보고) 나한테 뽀뽀하려고 했던 거지?

울 (강하게) 아니야. (애란을 바라보다가) 아니야!

애란 맞잖아!

울 아니라니까!

울, 일부러 애란의 시선을 피해 먼 바다를 바라보고.

애란 시나리오 잘 되면 여기 뜨는 거지?

울 ...

애란 잘 돼서 큰 영화사에도 들어가고 그러려는 거 아냐?

울 뭐... 아무래도 그래야겠지.

애란, 율을 쳐다본다.

율 (어렵게 말을 꺼내며) 근데... 나...
애란 응?
율 (애란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니야.

애란, 미소를 짓는다.

애란 가야겠다.

애란, 옆에 있는 나뭇가지들을 들고 일어나려한다

율 내가 들게.

율, 애란이 들려던 나뭇가지들을 주우려한다.
그때, 애란의 손과 율의 손이 스친다.
율, 민망한 듯 그렇지만 아무렇지 않게 나뭇가지들을 주워 가슴에 안는다.
먼저 걸어가는 율.
애란이 살짝 미소를 짓는다.

80. 해안도로_율의 차 안 / 낮

율의 말없이 운전하고 있다.
옆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도 조용히 창밖만 응시하고 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지나간다.

81. 농협 감귤 선과장_율의 차 안 / 낮

차 안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선과장 쪽을 바라보는 율.
선과장 안에서 혁수가 걸어 나온다.
율, 담배를 끄고 차에서 내려 혁수가 걸어오는 쪽으로 걸어간다.
율과 혁수가 만나고 얘기하는 모습이 차 안에서 보인다.
혁수, 뒷머리를 긁적이며 곤란한 듯한 표정을 짓는다.
율, 혁수에게 좀 더 강한 동작으로 얘기를 하고,

혁수는 진짜 결심한거냐는 듯 확인하는 투로 말을 건넨다.
 율은 단호한 표정으로 혁수를 바라본다.
 혁수는 한번 알아보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선과장 쪽으로 들어간다.
 율, 차가 있는 쪽으로 걸어와 운전석에 올라탄다.
 차에 시동을 거는 율.
 혁수가 차가 있는 쪽으로 다가온다.
 율, 창문을 내린다.

혁수 처남... 저기...
 율 ?
 혁수 처남 대출헌거 있잖아? ... 그거 해결됐져.
 율 예? ... 어땜..?
 혁수 그계...
 율 빨리 말해봅써.
 혁수 장모님이 집 팔았져.

율, 굳어지는 표정.

82. 숙자의 집_방안 / 저녁

율 무사 어땜 마음대로 험수과?
 숙자 앞 집 여자가 돈 하영 주켄허난 팔았져. 개 팬션인지 개 카펜지
 허켄 허난.. 땅값 하영 올랐덴 헨게마는 진짜 하영 올라서라.
 율 이 집, 어땜이영 아방이영 살아난 집이라.
 숙자 잘 됐져. 개똥이영 개소리영 딱 듣기 싫어신디...

율, 숙자를 노려본다.

율 나가 알앙 혈건디 무사 어땜이 나섬수과?
 숙자 그러게 사기를 왜 당해? 어? 허이구, 능력 어신 아방 닳은 건 탓
 허지도 안허고..기자 어땜 탓이주.
 율 ... 잘 해보젠 허난 그거 아니파..
 숙자 돈 벌어보젠 허는 놈이 그 따위냐? 어? 그따위로 행 돈 잘도 벌
 켜 어이구!

울 그놈의 돈돈돈! 어머은 돈 잘 벌엉 잘 살아점수과?
숙자 너 아방 왜 죽었는지 아나? 그 잘난 친구 빚보증 섰당 도망가부
 난 열받앙 죽은 거여.
울 그때 팔지, 그때 이 집 팔아시른 아방 죽지도 았아실거 아니파!

숙자, 울을 노려본다.

숙자 기여. 아방이 이 집 팔겐 경해도 나가 막았져.
울 ...
숙자 그때 이 집 팔아시른 너영 동생이영 살아져실거 았으나? 어?
울 ...
숙자 나가 무사 물질허래 댕기는 줄 아나? 나라고 뭐 편하게 살고 싶
 지 았은 줄 아나? 다 너네 때문이라. 더 너 때문이라고! 알았나?
울 ...
숙자 물질 허명 돈 벌어사 아방 빚도 갚고 너네 먹영 살리고 교육도 시
 키고 혈거 아니냐!
울 ...
숙자 (울먹이는) 아방은 죽어도 넌 살아살거 아니냐!

울, 물끄러미 숙자의 등을 바라본다.

숙자 가라!

숙자, 리모콘을 누른다.

텔레비전이 켜지며 뽕짝 가수의 노래가 나온다.

83. 해안도로_울의 차 안 / 낮

울이 말없이 운전하고 있다.

옆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도 조용히 창밖만 응시하고 있다.

차창 밖으로 푸른 바다가 그림처럼 지나간다.

84. 해녀 박물관_주차장 / 낮

숙자가 해녀 박물관 쪽으로 걸어간다.
울, 운전석에 앉아 숙자의 걸어가는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숙자, 해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간다.

(O.S) 시끄러운 공연 소리.

85. 야외 공연장 / 낮

지훈이 우크렐레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구경을 하는 사람들은 동네 어르신 몇 명과 아이들 몇 명 뿐.
그나마 아이들은 노래를 듣지도 않고 뛰어 다니고 있다.
울과 애란이 잔디밭에 앉아서 지훈의 노래를 듣고 있다.
지훈의 노래가 끝나고, 심드렁하게 박수를 치는 동네 어르신들.

사회자 네, 초청가수 양지훈씨의 노래 잘 들었습니다. 그럼 제15회 우리
 마을 노래자랑 다음 참가자를 모시겠습니다.

울과, 애란 자리를 털고 일어나려 한다.

사회자 다음 참가자는 태흥리에서 오신 김숙자 어머님!

울, 걸어가다가 멈춰선다.
서서히 뒤를 돌아보는 울.
무대 위에 반짝이 드레스를 입은 숙자가 올라와 서 있다.
울,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숙자를 바라본다.

애란 너네 어머니 아냐?
울 ...
애란 우와... 너네 어머니도 하나도 안 늙으셨네. 그대로야.
울 에이, 저 어땜 진짜...

울, 숙자를 바라본다.

사회자 어머니 부르실 노래는요?

숙자 이미자의 동백아가씨요.
 사회자 이 노래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숙자 죽기 전에 한번 불러보고 싶어수다.
 사회자 (웃으며) 하하하...그렇게 소원이셨습니까? 어떤 노래길래 그렇게
 불러보고 싶었습니까?
 숙자 아방이 나한테 프로포즈 할 때 불러준 노래우다.

울, 가만히 숙자를 바라본다.

사회자 와... 아버님이 정말 로맨티스트네요. 아버님 어디계십니까? 여기
 오셨나요?
 숙자 죽어수다.
 사회자 (당황한) 아, 예... 그럼 노래 들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고 숙자, 감정을 잡는다.

숙자 헤에일수없이 수많은 바아암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어어
 워... 얼마나.. 울었더언가 도옹배액 아가아아씨이...

숙자, 감정을 잡으며 노래를 하고 울은 물끄러미 숙자를 바라본다.
 숙자에게 고정되어 있는 울의 시선.

O.L

울의 얼굴 위로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가 오버랩 된다.
 예초기 소리가 들려온다.

86. 무덤 앞 / 낮

무덤 봉분 위에 피어 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
 울이 예초기로 봉분의 풀들을 깎고 있다.
 숙자는 봉분 옆에서 호미로 풀들을 매고 있다.
 풀을 깎던 울, 하던 일을 멈춘다.
 야생화를 물끄러미 바라보는 울.

을, 손을 뻗어 야생화를 뜯으려고 한다.

숙자 그거 뽑지 말앙 그냥 놔두라.

을, 숙자를 돌아본다.

숙자, 호미질을 하면서 무심히 야생화를 쳐다본다.

숙자 옛날에 아방이 꺾어 온 꽃이 그 꽃이여. 나한티 욱은 빠삭 먹었
주마는.

을 ...

숙자 그냥 놔두라.

을, 야생화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숙자, 무심히 호미질만 하고 있다.

야생화가 바람에 흔들린다.

87. 묘지터 길 / 낮

을이 예초기를 쪼개지고 옆에서 숙자가 나란히 걸어온다.

숙자 너, 김서방한티 갔었나?

을,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 무심히 앞만 보며 걸어간다.

숙자 (무심히 툭툭 던지는) 나이 쳐 먹영 농협에서 뭇 일을 헌다고 그
런 부탁을 해?

을 어멍 아들 아직 몸 하나는 짱짱해수다.

숙자 쳇, 경허난 짱짱한 몸 믿고 경 술 쳐먹고 운전 행 땡기는 거구나,
이?

을 아이, 진짜... 이제 안한다고!

숙자 글만 읽고 글만 쓰던 사람이 농협일 해지카부텐?

을 왜 못해? 나 아직 젊어수다.

율과 숙자 잠시 더 걸어간다.

숙자 (무심한 투로) 너가 만든 영화 보여 줄 때까지 기다리마.

율, 자리에 우뚝 선다.

숙자 너 허고 싶은 일이나 열심히 잘 허라.

율 ...

숙자 경허고, 어멍 운전 기사 좀 더 해줘야켜.

숙자, 돌아서서 율을 바라본다.

숙자 다음 주에 어멍 입원할 때 운전 해 주곡. 매주 한 번씩 병원 데려다 줘야 돼여.

율 (물끄러미 숙자를 바라보고 서 있다)

숙자 알아 들업다?

율 ...

숙자 (무심하게 툭 던지는) 근디, 너가 허는 영화...

율 ...

숙자 재미는 이신거냐?

숙자, 무심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 걸어간다.

숙자 한번 보고중 허다.

걸어가는 숙자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는 율.

멀리서 숙자의 잔소리가 들려온다.

(숙자) 혼저 오라. 거기 가만히 성 뭐 햄나? 어이구...

허여튼 느릿느릿! 저 병은 죽어도 못 고치는 건가? 어이구, 어이구!

88. 숙자의 집_율의 방

울이 물끄러미 책상 위를 바라보고 서 있다
책상위에 놓여진 '유토피아' 시나리오 뭉치.
젓가루가 묻어서 번져 있다.
바라보고 있는 울의 얼굴 위로 해녀 노랫소리가 오버랩된다.

(OS) 이어 사나...이어 사나... 어멍 무사 날 낳아.. 어이 어이..
해녀 노래 소리가 흘러나오고.

89. 해녀 박물관_공연장 / 낮

전통 해녀 복장을 입고 표주박 태왁을 어깨에 메고 해녀 퍼포먼스를 하며 노래를 부르는 공연단의 모습이 무대에서 펼쳐진다.
울, 조용히 들어와 관객석 구석자리에 앉는다.
가만히 공연을 지켜보는 울.
숙자의 몸짓과 목소리들이 울이 시선에 들어온다.
진중하고 정성이 담긴 숙자의 모든 동작들.
울, 숙자가 하는 모든 동작들을 가만히 지켜본다.
해녀들의 고단한 삶을 표현하는 노래가락이 계속 울려 퍼지고,
무대 위에 고정되어 있는 울의 시선.
해녀의 노래가 울의 시선에서 계속 울린다.

90. 해안도로_차 안 / 저녁

해녀의 노래가 점점 사그라들고.
말없이 운전을 하고 있는 울.
뒷좌석에 앉아 있는 숙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울	엄마..
숙자	(무뚝뚝하게) 무사?
울	뽕장어 먹으래 가카?
숙자	무사 갑자기?
울	아니, 어멍 공연 성공적으로 잘 끝낸 기념으로...
숙자	돈 없다. 집이나 가라.
울	나가 사크라. 글 쓴거 돈도 받아서.

숙자, 울을 물끄러미 쳐다본다.

울 어떻? 먹으래 가, 말아?
숙자 (무심히) 그러던가.

울, 미소를 짓는다.
뽕- 방구소리가 들리고.
울, 창문을 내린다.
시원한 바람이 울의 얼굴을 스친다.

창문 열린 울의 낡은 자동차가 해안도로를 달려간다.

91. 바닷가 / 낮

숙자가 해녀 고무옷을 입고 물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다.
옆에 다른 해녀 할망들도 물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고.
숙자, 물안경을 쓰려고 고개를 든다.
눈이 부신 듯 가늘게 뜨는 눈.
해녀 할망들이 물속으로 들어간다.
숙자, 물안경을 쓰고 물속으로 들어간다.
반짝 거리는 물결.
숙자, 테왁을 밀며 천천히 해엄을 쳐 나간다.
반짝 거리는 물결 속으로 천천히 사라지는 숙자.

[인서트 : 숙자의 시점으로 보이는 바닷속 풍경들]

F.O

92. 숙자의 집_숙자의 방 / 낮

(울) 어... 장롱? 알았어.

F.I

검은색 상복을 입은 율이 핸드폰을 하며 들어온다.

율 미리미리 했어야지... 쓸만한 사진이 있는지 모르겠다..

방안에는 숙자가 누워있던 그대로 이불이 방바닥에 펼쳐 있다.

고요한 방안.

율, 이불을 밟고 장롱 쪽으로 걸어간다.

장롱을 연다.

반짝이 드레스가 걸려있다.

율, 물끄러미 드레스를 바라본다.

율, 장롱문을 닫고 장롱 위를 살펴본다.

장롱 위에 쌓여 있는 앨범.

율 여기 있네.

율, 손을 뻗어 앨범을 꺼낸다.

오래된 촌스러운 앨범.

먼지를 털어내고 앨범을 들쳐본다.

어릴적 율의 사진이 보이고, 율은 한 장씩 넘겨본다.

입가에 살며시 미소가 지어지고.

넘기던 앨범에서 종이 여러 장이 후두둑 떨어진다.

율,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 든다.

생각지도 못한 듯 율의 눈빛이 흔들린다.

낡고 오래된 종이에 '독후감 최우수상 고율'이라고 적혀있다.

다음 장을 넘기자 독서 토론 최우수, 다음 장에는 백일장 장려상, 다음 장에는 전국 글짓기 동상...

상장을 바라보던 율에 눈물이 차오른다.

격해진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우는 율.

CUT TO >

[인서트 : 독후감 상장들, 오래 된 숙자의 가구들, 창문 밖으로 흔들리는 나무들]

울이 이불을 밟고 걸어가는데, 무언가 밟에 밟힌다.
울의 발밑에 리모컨이 있다.
띠리링_하며 텔레비전이 켜진다.
뽕짝이 흘러나온다.
텔레비전 화면이 밝아지면 뽕짝가수가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울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하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다.
그러거나 말거나 뽕짝 가수는 신나게 노래를 부른다.

F.O

93. 해안도로 / 낮

F.I

맑고 푸른 하늘, 하늘색을 닮은 잔잔한 바다가 햇빛에 반짝이며 출렁인다.
해안도로를 힘차게 달러가는 자전거.
노트북 가방을 맨 울이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다.

94. 카페 앞 / 낮

울이 자전거를 세운다.
카페 안에서 들려오는 지훈의 노랫소리.
창문 안으로 지훈이 노래하는 모습과 그 옆에서 나뭇가지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애란의 모습이 보인다.
울, 우두커니 서서 물끄러미 지훈과 애란의 모습을 지켜본다.
애란이 울을 발견하고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든다.
울, 살짝 손을 들어 인사를 한다.
애란이 들어오라는 손짓을 한다.
울, 살짝 미소를 짓는다.
카페 안으로 걸음을 옮기는 울.
울, 카페 안으로 들어간다.
울, 노트북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다.

창문 안에는 이제 세 사람이 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는 모습이 오랫동안 보이며 천천히 화면이 어두워진다.

F.O

-끝-



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 film <Eomeong> as a Cinematic Representation of the Women of Jeju Island in Korea

Koh, Hoon
Dept. of Theatre & Film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Based on the analysis of Jeju Island's unique cultural background, the paper aims to study how the life of a woman who has lived as a "Jeju woman" in the feature film <Eomeong>

Jeju Island has as rich a narrative as any other region in the country, as it has an unusual landscape. Unlike the universal plot, the main character in Jeju Island's tale is often a woman.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female myth is "Seolmundae Halmang," a unique example of a goddess with a magnificent spirit and who has made Jeju Island. At the center of the incident, "Jacheongbi" leads the male, Moon Doryeong, to realize his intentions and desires. Not only is she outstanding among the active and active goddesses of Jeju Island, but she is also a rare dynamic female character throughout our classical literature. The scene of "Baekjuto" in the tale also shows her life as a woman who is confident in

front of her husband, does not rely on her husband and children, and leads her life as an independent entity. Women in Jeju Island are no different, either. The female figure of Jeju Island, which resembles the life of Baekjutto, is an important feature of Jeju Island.

The geographical and cultural unique location of Jeju Island was an important factor in establishing the unique female image of Jeju among Korean women. As seen in the Jeju women's image in the narrative, Jeju women's social status also reveals many differences from their positions on women who were dominant in the land sector. To survive on a barren land, he was male, female and independent. If anyone was alive and could work, they had to engage in economic activities. Such a poor environment has made Jeju women the main driver of economic activity. As Jeju women have been recognized as the main driver of economic activities at home and in the region, their family and social status have naturally risen. Women on the Korean Peninsula have never been treated as a lower class than men, subjecting themselves to male-dominated economic activities. Rather, he was able to live on an equal footing with men as an economic activist. Jeju women, who were in charge of one of the economic pillars, were different from women in other areas who could not live unless men made a profit. Jeju women were able to reject patriarchal order and create a feminine image of living proudly.

Films featuring Korean women themselves are rare, but films featuring Jeju women are even rare. Among them are Chang's <Gyechun Halmang> and Ohmyul's <Ineo Jeonseol>

The <Gyechun Halmang> features a number of Jeju-style scenes, including a traditional house in Jeju and a traditional Jeju toilet called the ttongsi, Olae-gil, the Jeju traditional tomb method, a diving good scene, haenyeo material, and an ascending scene. The film, however, limits its reality in reproducing the Jeju Women's Award by not using Jeju dialect, despite featuring a Jeju woman.

In <Ineo Jeonseol> Ohmyul is the director who realistically and pleasantly

embodies Jeju's real life in his previous film. That's possible because the director is a native of Jeju and knows Jeju's emotions well. The film also features many scenes that Jeju people can relate to. By using realistic Jeju dialect, portraying men and women in Jeju, and expressing scenes of Jeju shamanism, the movie captures the universal culture of realistic Jeju.

The independent feature film <Eomeong> is a masterpiece of the researcher and was filmed on location in Jeju Island in 2018. The researcher aims to show the audience the lives of people living on Jeju Island, with Aomuk featuring a Jeju woman. The idiom as a self-reliant, self-reliant, active female figure in Jeju is continuously expressed in the narratives of <Eomeong>. Husband character consists of a woman who supports her husband and family, a woman who lives in a tough life even though her husband dies, and a woman who does not fear death and does not pursue her destiny. It also embodies Jeju's feminine appearance through the external appearance of the host, such as wearing bright clothes and makeup even when materials are made.

In order to recreate the real female image of Jeju, the camera maintains a bureaucratic look. This is the technique of distance-keeping, which excludes the use of close-ups and consistently maintains a constant distance, even in expressing intense emotion or conflict. This reenactment provides the audience with an experience of "the closest neighbor." As a neighbor of the deceased, audiences who watch the life of the deceased can have a realistic and realistic experience. This could be a way of securing the film's realism.

Realism is realized through long take method. Many sequences of <Eomeong> were filmed in a long-take manner. Long-takes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senting the life of the host in a realistic way, compared to the way in which the cuts are distinguished. This was effectively used as a goal to present the life of Jeju women in a realistic way by consistently applying it with the street-drying method.

Finally, <Eomeong> creates a unique cinematic tone by combining comic

sounds even in tragic narratives. The intentional combination of disparate sounds that go against narratives, such as the use of trot songs in scenes of conflict between the host and Yul, the laughter of children who talk of death, and the sound of erotic scenes from heavy inner conflict, form the tone of the movie unique to <Eomeong>. These sounds are sometimes associated with the characters of the master, and are used as realistic and realistic sounds, so the master's life is used in a more realistic way.



연구 윤리 서약서

본인은 한양대학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 윤리의 기본 원칙을 준수하였음을 서약합니다.

첫째,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정직하고 엄정한 연구를 수행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한다.

둘째, 논문 작성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 부정행위도 하지 않는다.

셋째, 논문 작성시 논문유사도 검증시스템 "카피킬러"등을 거쳐야 한다.

2019년12월23일

학위명 : 박사

학과 : 연극영화학과

지도교수 : 이상인

성명 : 고훈


(서명)

한 양 대 학 교 대 학 원 장 귀 하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 as a graduate student of Hanyang University, hereby declare that I have abided by the following Code of Research Ethics while writing this dissertation thesis, during my degree program.

"First, I have strived to be honest in my conduct, to produce valid and reliable research conforming with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and I affirm that my thesis contains honest, fair and reasonable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my thesis supervisor.

Second, I have not committed any acts that may discredit or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falsification,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or plagiarism.

Third, I need to go through with Copykiller Program(Internet-based Plagiarism-prevention service) before submitting a thesis."

DECEMBER 23, 2019

Degree : Doctor
Department : DEPARTMENT OF THEATER AND FILM
Thesis Supervisor : Lee, Sang In
Name : KOH HOON


(Signature)